

(英文目次)

1. Indian philosophy
 - A Report on the studies of Indian philosophy in
Japan/SHIM, Bong Seob1
 - Studies on Śāṅkara's philosophy in Japan
/Soo Woong (LEE, Young Soo)105
2. Indian Buddhism
 - Studies on Early Buddhism and Theravāda Buddhism
in Japan/Chung Won (KIM, Jae Sung)191
 - Overview on the studies of Abhidharma-kośa and
Vijñāna-vādin in Japan/LEE, Jong Cheol341
 - Studies on Early and Middle Madhyamaka school in
Japan/LEE, Hea Kyung367
 - Studies on Later Madhyamaka school in Japan
/LEE, Tae Seung429
3. Chinese Buddhism
 - Studies on Chinese T'ien-tai school in Japan
/Il Jang (CHO, Yang Suk)475
 - Materials for Hua-yen study in Japan
/Jung Eum (SEO, Hea Gi)591
 - Studies on Chinese Hua-yen thoughts in Japan
- Ch'eng-kuan, Tsun-mi, Li T'ung-hsüan -
/CHO, Yoon Ho659

일본의 인도철학 연구현황

沈 奉 燮

〈目 次〉

서 론

bibliography

- | | |
|------------------|------------|
| 1. 인도학의 기원 | 1. 개론적작품 |
| 2. 일본의 인도철학연구사 | 2. 상키야철학 |
| 2-1 개론적 작품 | 3. 요가철학 |
| 2-2 상키야철학의 연구사 | 4. 니야야철학 |
| 2-3 요가철학의 연구사 | 5. 바이세시카철학 |
| 2-4 니야야철학의 연구사 | 6. 미맘사철학 |
| 2-5 바이세시카철학의 연구사 | 7. 베단타철학 |
| 2-6 미맘사철학의 연구사 | 8. 문법학 |
| 2-7 베단타철학의 연구사 | |
| 2-8 문법학의 연구사 | |

서 론

「불교학(Buddhology)」을 포함하는 「인도학(Indology)」이 서양인들에 의해 학문적 내지는 문명비평적으로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하며, 동양학의 한 부문으로서 등장한 지 이백여년이 지났다¹⁾.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이

1) 영국의 존즈가 「벵갈아시아협회」를 창설하고, 윌킨스가 『바가바드기타』의 영역을 발표한 1784년을 기점으로 잡을 경우.

서양적의미의 인도학을 받아들인지 백여년이 지났다²⁾. 그런 지금 한자와 불교를 전했다고 자부심을 내세워 왔던 한민족의 자랑스런 후예들이, 지금은 바로 그 한자와 불교를 전한 나라에 불교와 인도철학을 배우기위해 유학을 가고 있다.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한다면, 적어도 서양적의미의 불교학내지는 인도학에 관한 한, 우리의 학문수준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우리가 처한 현재의 시대상황을 반성하며 분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미력이나마 일본에 있어서의 육파철학을 비롯한 인도학의 연구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인도학의 기원

인도의 언어, 철학, 신화, 종교, 문화, 사회, 역사등의 문물일반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인도학(Indology)」은 「중국학(Sinology)」, 「이슬람사상」과 더불어 「동양학」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이 경우의 「인도」란, 현재의 인도공화국과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등을 포함하는 「인도아대륙」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을 말하나, 때로는 버마, 티벳, 스리랑카등을 포함하는 「인도문화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도학」을 의미하는 영어의 「Indology」, 「Indic studies」는 고대·중세의 인도연구를 가리키며, 「Indian studies」는 제2차세계대전이후의 근·현대인도연구를 가리키는 경향이 있으나, 명확한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³⁾.

유럽인이 인도의 문물에 관하여 지식을 갖게 된 것은, 기원전수세기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며⁴⁾, 또한 17세기에는 「산스크리트어」에 정통한 「예수회(Societas Jesus)」의 선교사들이 등장하기도 한다⁵⁾. 그러나 진정

한 의미의 인도학이 성립한 것은 18세기의 후반으로, 영국의 인도통치의 직접계기가 된 「플라시(Plassey)전투(1757)」이후의 일이다. 당시 인도의 식민통치를 위해 부임한 초대인도총독, W.Hastings(1732~1818)는 인도통치의 필요성에 의해, 토착의 종교적·사회적관습을 이해해야함을 통감하여,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진 고래의 법전의 중요사항을 발췌하여 편집시켰다. 그러나 당시 산스크리트어를 바로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은 없었으며, 일단 페르시아어로 번역한 뒤, 이를 영어로 중역하는 수 밖에 없었다⁶⁾.

1783년 영국의 William Jones(1746~1796)가 캘커타의 고등법원판사로 부임하여, 다음해 1784년에 「벵갈·아시아협회(Asiatic Society of Bengal)」를 창설하여 인도학의 초석을 다졌으며, 동협회의 잡지 『아시아연구(Asiatic Researches)』는 실로 인도연구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⁷⁾. 그는 Kalidasa(5세기경의 시인)의 Śakuntalā를 영역하며, 이것이 독일어로 중역되어, 괴테와 헤르더에게 큰 감명을 주게 된다. 인도인의 사회생활을 규정하는 법전중에서, 인류의 시조 「마누」의 작품으로 여겨져 옛부터 가장 존중되던, 『마누법전(Manu-smṛti)』도, 그에 의해 처음으로 영역되었다. 이 것은 단순히 민법이나 형법, 종교적 의무를 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우주창조와 윤회까지를 설하는데, 이는 유럽인들의 깊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으며, 이 역시 독일어로 중역되었다. 그리고 그는 산스크리트어가 그리스어, 라틴어, 게르만어, 켈트어등의 유럽의 제언어와 친연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의 시원에서 분화했음을 역설하여, 이후 성립을 보는 「비교언어학(comparative linguistics)」내지는 「어원학(etymology)」의 길을 열어 놓았다⁸⁾. 이 「벵갈·아시아협회」는 인도학연구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며, 기요, 인도학연구의 기본문헌등을

2) 난조분유(南條文雄)박사가 東京大에서 산스크리트어강좌를 개강한 1885년을 기점으로 잡을 경우.

3) 『南アジアを知る事典』東京, 平凡社, 1992, p.63

4) 이에 관한 자료로서 『インドとギリシャとの思想交流』(나카무라하지메선집 16, 동경, 춘추사, 1968)가 도움이 된다.

5) 독일출신의 선교사 Heinrich Roth(1620~1668)는 산스크리트어를 학습하고 문법

서를 쓴 최초의 유럽인이다. 라틴어로 쓰여진 그의 문법서는 파니니문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뒤 막스뮐러에 의해 그 가치가 인정되었다고 한다.

Encyclopedia of Vedānta, Delhi, Eastern book linkers, 1993, p124~125.

6) 『世界の名著 1』東京, 中央公論社, 1969, p.9

7) 『南アジアを知る事典』東京, 平凡社, 1992, p.63

8) 『世界の名著 1』東京, 中央公論社, 1969, p.9, p.367

집성한 『印度叢書(Bibliotheca Indica)』를 간행해오고 있다. 한편, 동협회의 유력멤버이자, 법전, 종교, 문법학, 천문학, 수학등 다방면에 정통한 H.T.Colebrooke (1765~1837)는 Jones의 사업을 계승발전시켰으며, 특히 「인도언어학·고고학」의 기초를 세웠다.

한편 Jones가 「벵갈·아시아협회」를 창설하던 그 1784년에는 또 동인도회사의書記 C. Wilkins(1749~1836)가, 힌두교의 중요한 성전인 Bhagavadgita의 영역을 발표했다. 이것은 산스크리트원전이 직접 서양의 근대어로 번역된 최초의 작품으로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그 뒤 존즈와 윌킨스는 「인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유럽에서 최초로 산스크리트어를 가르친 사람은, 「벵갈·아시아협회」설립에 관여한 뒤 고국에 귀국하던 중, 「영불전쟁」으로 말미암아 프랑스에 억류중이던 영국인 A. Hamilton(1762~1824)이며, 1795년 프랑스의 「동양어학교」에서였다. 당시 파리에 체제중이던 독일의 시인 Friedrich Schlegel(1772~1829)은 Hamilton에게서 가르침을 받게 되며, 그리하여 그는 독일 최초의 산스크리트어학자가 되었다. 그리고 F.V.Schlegel은 1808년 명저 『인도인의 언어와 예지에 관하여(Über die Sprache und Weisheit der Indier)』를 발표했는데, 이 안에서 그는 존즈의 통찰을 격찬하면서, 산스크리트어야말로 인도 유럽어족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언어임을 입증하려고 하였으며, 이 언어에 의해 기록된 인도의 철학·종교의 고귀한 정신성을 강조했다. 그의 책은 처음으로 원전에서 獨譯된 Bhagavadgītā, Manusmṛti, Rāmāyaṇa등의 발췌를 담고 있는 등, 독일에 있어서의 인도고전연구의 濫觴이 되었다⁹⁾. 그의 형 August Wilhelm von Schlegel(1767~1845)은 동생의 낭만적인 열광성과는 달리 무미건조한 문헌학적 연구를 추진했다. 그는 동생보다 10여년 늦게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기 시작하나, 1818년 본대학의 초대산스크리트어교수로 취임하게 된다. 그리고 언어학에 관한 몇 편의 논문을 『Indische Bibliothek』에 발표함과 동시에 Rāmāyaṇa 등의 원전과 그 라틴어역을 간행하는 등, 그 후의 연구의 초석을 다져 놓았다¹⁰⁾.

9) 『世界の名著 1』東京, 中央公論社, 1969, p.10

10) 『世界の名著 1』東京, 中央公論社, 1969, p.10

유럽에서 최초로 산스크리트어강좌가 개설된 것은 1814년 파리의 College de France에서였으며, 그 초대교수에는 A.L.Chézy (1773~1832)가 임명되었다. 그 4년 뒤의 1818년에는 A. Wilhelm von Schlegel가 독일의 본대학의 초대 산스크리트어교수로 취임하여, 그 이래 독일의 여러 대학에서도 강좌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영국에서 최초로 산스크리트어가 가르쳐진 것은 1805년의 일이나, 강좌가 설치된 것은 늦게, 1832년 옥스포드대학에서였으며, 그 초대교수로는 「벵갈·아시아협회」의 유력 회원이었던 H.H.Wilson(1786~1860)이 취임했다. 그 뒤 런던, 케임브리지, 에딘버러의 각대학, 그 외의 유럽여러나라와 미국의 주요대학에 개강되어,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인도학은 커다란 진보를 이룩했다.

1816년, Chézy에 師事한 독일의 언어학자 F. Bopp(1791~1867)는 산스크리트어의 동사어미변화의 조직을, 그리스어, 프랑스어, 페르시아어, 독일어등의 동사어미변화의 조직과 비교하여, 이들 언어간의 친연관계를 증명하는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그에 따라 「印歐比較言語學」이 독립된 학문으로서 성립하게 되었다¹¹⁾.

베다성전과 불교문헌에 관한 연구는 『바가바드기타』와 『마누법전』등의 연구보다 늦게 시작되었다. 베다문헌에 관한 신뢰할만한 논문으로서는 1805년 Colebrooke에 의해 발표된 「힌두교도의 성전 베다」가 최초이다. 그 뒤의 연구는 프랑스의 동양학자 Eugene Burnouf(1801~1852)의 밑에 모인 R.Roth(1821~1895), M.Müller(1823~1900)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뮐러에 의해 추진된 『리그베다』 전권(6권, Sāyaṇa의 주석과 함께 색인을 포함하고 있다)의 출판은 1849~1875에 걸친 대사업이었으며, 이는 「비교종교학」의 발단이 되었다. 또 막스뮐러는 권위있는 번역총서 『동방성서(Scared Books of the East)』의 전 50권을 감수하였다.

우파니샤드는 17세기 인도의 무갈제국의 왕자였던 Dara Shikoh(1615~59)의 명령에 의해 당시 알려져 있던 52점이 이슬람교도의 손에 의해 산스크리트어에서 페르시아어역된 적이 있었다. 이것은 그 뒤 프랑

11) 『世界の名著 1』東京, 中央公論社, 1969, p.9

스인인 A. du Perron(1731~1805)에 의해 라틴어역되어, Oupunek'hat라 는 이름으로 1801~1802년에 걸쳐 출판되었다. 이 라틴어역은 상당히 불완전한 것이었으나, 쇼펜하우어는 이를 「지상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책」으로 절찬하였다. 우파니샤드의 원전으로부터의 번역은 근대인도의 사회운동가인 인도인 Rām Mohan Roy(1774~1833)로부터 시작되어, 19세기말에는 쇼펜하우어의 제자인 P.Deussen(1845~1919)이 60권의 독일어역을 완성해 냈다. 베다연구의 영역에서는 독일에서 H.Oldenberg(1854~1920), A.Hillebrandt (1853~1927)등의 석학이 배출되며, 이들이 그 뒤를 잇는다.

유럽에 있어서의 인도연구는, 독일의 O.Böhtlingk(1815~1904)와 R.Roth(1821~95)에 의한 방대한 『범어사전(Sanskrit-Wörterbuch)』 전7권의 출판(1852~75)으로서 그 정점에 이르렀다. 이것은 19세기유럽에 있어서의 최대의 연구성과이다.

그 밖의 연구성과로서 들 수 있는 것은, G.Bühler(1837~1898)를 최초의 主幹으로하는 『인도고전문헌학총서(Grundriß der Indoarischen Philologie und Altertumskunde)』에 19세기후반이래의 혁혁한 연구성과가 한꺼번에 정리, 소개되었다는 점, M.Winternitz (1863~1937)의 『인도문헌사(Geschichte der Indischen Literatur)』 전3권¹²⁾이 정리되었다는 점, T.W. Rhys Davids(1843~1922)가 런던에 팔리성전협회(Pali Text Society)를 창립하여 원시불전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제2차세계대전이후에 생겨난 새로운 연구동향의 하나로서 주목되어지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지역연구」이다. 인도학은 이집트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로 고대문화에만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대인도문화는 현대의 인도안에 면면히 살아 있으며, 따라서 고대인도문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대의 인도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결의 요소임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1947년 미국의 펜실베니아대학의 W.Norman Brown(1882~1975)박사는, 고대인도연구를 기초로, 주로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학자들의 협력을 얻어, 현대의 「남아시아의 지역연구」를 개시했다¹³⁾. 이 경향은 급속히 미국전역과 독일의 많은 대학으로 퍼져나가, 그 간 고대의 문헌만을 연구대상으로하던 연구영역이 지금 살아 있는 인도에로 확대되었다.

2. 일본의 인도철학연구사

일본에 있어서의 인도철학의 연구사는 1879년 12월 25일 하라 탄잔(原坦山, 1819~1892)和尚¹⁴⁾이 동경대학의 和漢文學科의 강사로서 「佛書講義」를 개강한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일본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인도철학의 시작은 그 20여년 뒤의 일이다.

1876년 京都의 「本願寺」에서 유학승으로서 영국에 파견된 난조 분유(南條文雄, 1849~1927)박사는 옥스포드대학에서 F. Max Müller(1823~1900)박사 밑에서 8년간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하고 1884년, 귀국하였다. 그리고 그 이듬해 1885년 동경대학의 강사로 임명되어 산스크리트어 강좌를 개강하였다. 일본에는 일찌기 헤이안(平安)시대에 중국의 당에서부터 시담학(Siddham)이 수입된 이래의 전통이 있었으나, 난조 분유박사는 일본에 서양적의미의 텍스트교정을 기반으로 하는(text-critical) 산스크리트학을 일본에 도입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그야말로 일본에 있어서의 현대적 서양적 의미의 산스크리트학 불교학의 창설자인 셈이다.

이 경향은 다카쿠스 준지로(高楠順次郎, 1886~1945)박사에 의해 더욱 더 확고한 것이 되었다. 그 역시 Max Müller박사의 밑에서 산스크리트어와 산스크리트문학을 학습한 뒤, 독일의 Kiel, Berlin, Leipzig등에

13) 『南アジアを知る事典』 東京, 平凡社, 1992, p.64

14) 그는 조동종의 승려로서, 大雄山最乗寺의 주지였으며, 불교학과 禪學, 儒學, 네덜란드의 의학에도 밝았다한다. 奇行僧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교문화 2-2』, 동경대학불교청년회간, 1971, p.12~13.

12) 이는 나카노기쇼(中野義照)교수에 의해 6권으로 정리되어 일본어로 번역되었다. 高野山大學, 日本印度學會刊行, 1964~1978.

서 팔리어, 인도철학, 티벳어, 몽고어를 학습하였으며, 1897년 일본에 돌아와 그 이듬해부터 동경대의 강사로서 강의를 시작했다. 1901년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동경대에 「梵語學講座」가 설치되었으며 그 초대교수에 다카쿠스 준지로박사가 임명되었다. 그뒤 그는 1906년 「印度哲學宗教史」를 개강하였으며, 이 강좌가 일본에 있어서의 인도철학의 嚆矢가 되었다. 이 강좌는 그 뒤 1912년 기무라 다이켄(木村泰賢, 1881~1930)박사에 이어졌으며, 이 강좌에서의 강의노트가 『印度哲學宗教史』라는 이름으로 1914년 발간되었다. 이 작품은 Rgveda시대에서 Sūtra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인도철학사 전반을 서양학자들의 텍스트를 이용하지 않고 범어원전에서 그대로 해석해낸 일본최초의 작품이 되었다¹⁵⁾.

뒤이어 이 학문적 전통은 우이 하쿠쥬(宇井伯壽, 1882~1963)박사와 가나쿠라 엔쇼(金倉圓照, 1896~1987)박사,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1912~)박사등으로 이어졌으며, 현재 일본의 인도학은 교토(京都), 도호쿠(東北), 호카이도(北海道), 나고야(名古屋), 규슈(九州), 오사카(大阪), 히로시마(廣島)대학등의 국립대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전통은 고마자와(駒澤)대학, 다이쇼(大正)대학, 릿쇼(立正)대학, 도요(東洋)대학, 오오타니(大谷)대학, 부교(佛教)대학, 하나조노(花園)대학, 류코쿠(龍谷)대학, 슈치인(種智院)대학, 시텐노지고쿠사이부교(四天王寺國際佛教)대학, 고야산(高野山)대학, 아이치가쿠인(愛知學院)학, 도호(同朋)대학등의 종립대학에도 확산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의 일본에 있어서의 인도철학은 불교학과 더불어 인도학의 중심부분을 이루고 있다.

일본의 인도철학의 연구사를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의 삼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 단계는 난조 분유박사에서 시작되어 다카쿠스 준지로박사, 우이 하쿠쥬박사, 가나쿠라 엔쇼박사, 나카무라 하지메박사에까지 이어지는 「불교학과 미분의 단계」이다. 이 시기의 일본의 인도철학은 불교학과 더불어 연구되어졌는데, 달리 표현하면 불교학을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다루어 졌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시기의 학자들은 한역경전에 근거하는 전통적인 불교이해와 서구적인 문헌학적 학문방식이라는 양날

의 칼을 휘두르면서 불교학과 인도철학을 연구했다. 그리고 두번째 단계는 이하라 쇼렌(伊原照蓮, 1920~)박사, 혼다 메구무(本多惠, 1930~)박사, 마에다 센가쿠(前田專學, 1931~)박사, 무라카미 신칸(村上眞完, 1932~)박사등에게서 볼 수 있는 「인도철학의 도약의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비교적 인도학이 독립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며, 주로 상키야철학, 요가철학, 베단타철학, 미맘사철학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리고 세번째단계는 현금의 비교적 젊은 학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인도철학의 다양화의 단계」이다. 현재의 일본의 인도철학의 추세는 불교논리학과 니야야·바이세시카철학과 미맘사철학과 문법학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점점으로서의 「언어의 문제」, 「pramāṇa」를 둘러싼 인식론과 논리학의 문제」등으로 관심분야가 확대, 심화되어 가고 있다¹⁶⁾.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베단타철학의 연구열기가 움츠러 들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반면 상키야·요가철학의 연구는 약간 침체된 듯 보인다.

일본의 각분야의 학문은 전반적으로 「나무는 보되 숲은 못 본다」고 비평된다. 이는 상당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일본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분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분야를 정함에 있어, 먼저 불교인가 인도철학인가를 정하고 인도철학의 어느 학파인가를 정하고 그 학파의 어느 인물인가를 정하고 그 인물의 어느 텍스트인가를 정하고 그 텍스트의 어느 문제인가를 정한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자신의 전공분야로 확보한다. 그리고 그 분야의 그 문제를 좁고 깊게 철저히 분석해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동경대의 인도철학과 의 경우, 철저하리만치 「원전강독」, 즉 산스크리트어·티벳어·팔리어 등의 기초어학력을 강조한다. 그 수업방식을 살펴보면, 학부의 3,4년생의 경우에만 사상전반을 다루는 강의식수업이 약간 주어지나, 그 뒤의 석사과정(2~3년과정)과 박사과정(3~5년과정)은 원전강독이 주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역시 일본학문(특히 동경대를 중심

15) Mayeda Sengaku and Tanizawa Junzo, *Studies on Indian Philosophy in Japan 1963~1987*, Acta Asiatica 57, the Toho Gakkai, 1989, p.61

16) 그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동경대학에서 나카무라 하지메박사(인도학불교학전반, 1943~1973재임)의 후임으로 있던 마에다 센가쿠박사(베단타철학, 1973~1991재임)의 후임으로서 마루이 히로시(丸井浩, 1952~)교수(니야야/바이세시카철학)이 1993년 4월 취임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으로한)의 성격을 형성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나무는 보나 숲을 못보는 풍토」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슨 나무인지를 모른다면 결국 무슨 숲인지를 모르는 바, 먼저 무슨 나무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기초어학력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분야의 자신의 테마에 있어서는 철저한 전문가가 되는 일본의 학문풍토를 간단히 「나무는 보되 숲은 못 본다」고 비평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와같은 「한우물과기」 「분파주의」 「세력권확보주의」의 경향을 보이는 일본의 인도철학의 학문풍토¹⁷⁾를 나카무라 하지메선생은 「노예의 학문」으로 규정짓고 1970년대 초반 「비교사상학회」를 창립하고, 한정된 학문분야를 넘어서 사고하는 보다 창조적인 학풍을 제창했는데, 이는 일본 학문에 대한 반성의 움직임의 하나로서 주목되어 진다¹⁸⁾. 그러나 일본의 학문풍토는 상당부분 치밀성과 전문성을 추구하는 일본인의 고유한 성격에 기인하는 바, 하루 아침에 바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중국학의 발생이 서양학자들에 의해 기원하듯, 인도학 역시 서양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들에 의해 전개된 현대적 의미의 중국학과 인도학은 텍스트교정과 번역과 비판적 용어분석을 기반으로하는 문헌학적인 성격과, 가치중립적이며 문명비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종교적이며 신앙적이며 가치중심적인 전통중시의 학문방법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현재 일본에 있어서의 인도학은 불교도입이래의 전통중시의 학문방법위에, 현대적의미의 학문방법이 도입된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학자들의 출신배경으로서 전통을 중시하는 각각의 종단이 있다는 점, 즉 이들 학자의 대부분은 각 종단과 직간접의 신분적 연관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점은 국립대학의 교수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도학이 국립대학내지는 소위 종립대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등은 전통중시의 학문방법을 유지시키는 요소이다. 이 점은 서양에 있어서의 상황과 다

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학문의 방법론에 관한 한 서양적 학문태도의 성격과 다를 바 없다.

한편 주목해야하는 최근의 동향으로서는 인도철학을 단순히 문헌학적으로만 파악하려는 태도에 대한 반성의 움직임이다. 이는 미국에서 시작된 「지역연구」의 동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남아시아연구자간의 협력을 촉진하기위하여 1989년에 「일본남아시아학회」가 조직된 것을 들 수 있다. 이 학회는 인문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포함하는 종합적학회로서 설립되었다¹⁹⁾. 연차학술대회의 개최와 더불어 「남아시아 연구」라는 기관지도 발간되고 있는데, 이 움직임은 인도철학을 보다 실제적이며 포괄적인 것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에 있어서의 인도학의 역사는 1885년 동경대에 산스크리트어강좌가 개강된 이래 백여년이나 되는 짧지 않은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눈부신 발전을 해왔으며, 학자층과 그 논문발표의 양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서 있다. 현재 일본에서 인도철학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기관과 그 학술잡지는 枚擧할 수 없을 정도이다²⁰⁾. 그러나 가능한 한, 이 보고서에서는 그간 일본에서 발표된 인도철학관련서적과 논문들을 육파철학을 중심으로 분류한 뒤, 이를 다시 인물별, 연도별로 정리하여, 이를 근거로 그간의 연구성과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²¹⁾.

19) 『南アジアを知る事典』 東京, 平凡社, 1992, p.813

20) 일본을 제외한 歐美각국에서 발간되는 권위있는 학술지로서 다음의 세 종류가 유명하다.

1. Wiener Zeitschrift für die Kunde Südasiens(= WZKS), Wien, Austria

2. Indo-Iranian Journal(= IJ), Hague, Netherland

3.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JIP), Toronto, Canada

21) 이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일본내의 인도학불교학관련연구서를 어느 정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수와 양에 압도되었다. 이것들을 발행기관을 기준으로 대충 분류해 보면, 1 인도학불교학관련연구단체에서 간행하는 연구연보, 2 종립대학에서 간행하는 기요등의 정기간행물, 3 국립대학을 비롯한 일반대학에서 간행하는 기요등의 정기간행물, 4 각종불교단체에서 간행하는 회보등의 정기간행물, 5 불교인을 위한 일반잡지, 6 회갑기념논문집등의 부정기간행물등, 그 수는 대충잡아도 삼백여종을 헤아린다. 당초 인도철학과 인도문학을 함께 망라하려는 계획이래, 손에 잡히는 대로, 관련 논문들을 복사하고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는등, 삼개월이상 분주하게 보냈으나, 망라하기는 역부족임을 느꼈다.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인도철학과 인도문학을 함께 다루려던 당초의 계획을 수정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능력과 시간이 허락한다면 1 인도문학총론, 2 베다문헌과 우파니샤드, 3 서사시와 푸라나, 4 다르마샤스트라, 5 힌

17) 『學問の開拓』 東京, 佼成出版社, 1986, p.11~13

18) 이와 관련된 주요논문과 서적으로서 다음을 들 수 있다.

『比較思想論』 東京, 岩波全書, 1960,

『奴隸の學問をのりこえて』 『比較思想研究』 15號, 1988, p.1~9

『なぜ奴隸の學問か』 『比較思想研究』 17號, 1990, p.1~12

『比較思想の軌跡』 東京, 東京書籍, 1993, p.574

2.1. 개론적작품

일본에서의 인도철학에 관한 개론적작품으로서 처음 등장한 것은 기무라 타이켄 박사에 의해 1914년 발간된 『印度哲學宗教史』이다. 그 뒤를 이어 등장한 개론서로서는 1932년 발간된 우이 하쿠쥬박사의 『印度哲學史』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한역경전의 연구에서 축적된 불교지식을 살리면서 서양적인 학문방법을 구사하는 일본적인 특수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식 연구태도를 반영하는 이 작품은 그뒤의 인도학연구서의 모델이 되었으며 그 출발점이 되었다(28). 그 뒤 1937년 가나쿠라 엔쇼박사에 의해 『印度哲學概論』이 발간되었다. 여기에서는 고대사상사, 인도철학제파의 학설이 개관되었으며, 당시로서는 인도철학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39). 그뒤 1956년 나카무라 하지메박사는 『インド思想史』를 발간하였는데, 이 책은 「리그베다」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인도사상사 전반에 관하여 평이한 서체로 쓰여졌으며, 특히 입문자용 초보자용 입문서로서 유명하다. 그의 이 작품은 인도의 사회적 역사적배경을 토대로 하여 인도철학사를 전개했다는 점에서 같은 부류의 다른 서적과는 다르다(1). 그리고 그는 1979년 『ヒンドゥー教史』를 출판하기도 하였다(9).

1967년 나카무라 하지메박사등이 동경대학출판회간행의 「강좌동양사상」의 제 1권으로서 『インド思想』을 발간하였다(6). 뒤이어 1982년 마에

다 센가쿠박사등이 학생들을 위한 입문용으로서 『インド思想史』를 간행하였다. 이 책은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뿐만 아니라 인도에 있어서의 이슬람 사상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동경대의 「인도철학불교학연구실」의 학부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과서로서의 위치에 있다(12).

나카무라 하지메박사는 32권이 되는 『中村元選集』을 발간하였는데 그 안에는 『インド人の思惟方法』, 『インドとギリシャとの思想交流』, 『東西文化の交流』등의 「문명비평」내지는 「비교사상」적인 작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작품은 동서문화에 거침없는 나카무라 하지메박사의 사상가적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2,4,7).

고대의 인도사상은 아트만을 둘러싸고 이를 인정하는가 부정하는가에 따라 소위 정통(āstika)과 비정통(nāstika)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일본의 관련학자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조직적이며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1963년, 『自我と無我』로써 완성해냈다(3). 또 같은 부류의 종합적연구서²²⁾로서 1987년 마에다 센가쿠박사의 편집에 의해 『東洋における人間観』이 발간되었다(13).

그리고 최근의 걸작으로서 하토리 마사아키(服部正明, 1924~)박사 등 현역의 학자들에 의해 종합적으로 구성편집된 『インド思想1.2.3』을 들 수 있다. 이는 인도철학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를 다채롭게 편집한 종합적이며 전문적인 연구서이다(57). 그리고 최근의 주목할 만한 성과로서는 무라카미 신칸박사의 『インド哲學概論』을 들 수 있는데, 이 책은 각 항목을 설명함에 있어, 그 출처와 典據를 일일이 밝히고 있어,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매우 효과적인 교재라고 볼 수 있으며, 「存在論」과 「認識論」과 「餘論」의 삼부로 구성되어 있어, 현금의 학자들의 인식론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21).

그리고 인도철학전반에 걸쳐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옴니버스형의 저술로서는 마에다 센가쿠박사의 『インド的思考』와 유다 유타카(湯田豊, 1931~)교수의 『インド哲學の諸問題』와 『バラモンの精神界』²³⁾, 그리고

두교의 제파, 6 카비야를 비롯한 산스크리트문학, 7 과학학술서, 8 근현대의 인도문학, 8 산스크리트문법서와 사전류등에 관해서도 살펴보고 싶다. 그리고 일본의 인도학불교학관계의 연구성과와 동향을 한국에 알릴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시면서 이 작업을 제창하시고, 한국에서의 굵은 일을 맡아 주신 최병헌교수님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리고 논문을 찾는 작업부터 복사 정리등에 이르기까지 자상하게 도와주신 수웅스님과 김명우학우에게, 그리고 『일본인도학불교학회원명부』등의 귀중한 자료들을 찾아 주시면서 부족함을 메꾸워 주신 정원스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지도교수의 입장에서 일본에서의 생활을 여러모로 도와주신 마에다 센가쿠교수님과 에지마 야스노리교수님과 마루이 히로시교수님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산스크리트를 기초에서 부터 자상하게 지도해 주신 츠치다 류타로교수님에게도 감사드리고 싶다.

22) 동일 부류의 작품으로서 『業思想研究』(구모이 쇼젠(雲井昭善)編, 京都, 平樂寺書店, 1979年初版, 1987年二刷)등을 들 수 있다.

23) 『バラモンの精神界』에는 니야야바이세시카철학의 입문서로서 알려져 있는 Tarkabhaṣa의

나카무라 하지메박사의 『インド思想の諸問題』를 들 수 있겠다(5.15.31.33).

2.2. 상키야철학의 연구사

상키야철학은 일본의 인도철학자들이 한때 선호하던 학문분야였다. 연구는 당연히 이 학파의 현존 最古의 작품인 Sāmkhyakārikā(Īśvara-kṛṣṇa著, 4세기경 성립)와 그에 대한 주석서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일본학자가 이 분야에서 공헌한 최초의 주요업적으로서, 다카쿠스 준지로박사의 연구성과를 들 수 있다. 이는 Sāmkhyakārikā에 관한 주석서 중 現存最古의 작품인 『金七十論』(眞諦譯, 6세기 후반)에 관한 연구로서, 「la Sāmkhyakārikā étudiée à la lumière de sa version Chinoise (Bulletin de l'Ecole Française d'extreme-orient, tome 4, 1904, 978~1064p)」라는 제명으로 발표되었다. 이 『金七十論』이라는 작품은 한문본밖에 전해 지지 않고 있으며, 이 점이 한문권 불교경전을 자유롭게 해독할 수 있었던 일본인 학자의 관심을 끌게 되어 분석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한문을 해독해서만 가능한 인도철학의 연구, 내지는 불교등의 타 학파와의 관련속에서의 인도철학의 연구는 일본인 학자들 사이에 한동안 유행되며, 상키야철학에 관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예를 들면 야마구치 예쇼(山口惠照, 1918~)박사, 혼다 메구무박사, 이마니시 준키치(今西順吉, 1935~)교수, 나카다 나옴치박사(中田直道, 1930~)등의 학자들은 Tattvasamgraha(Śantaraksita著, 680~740)등의 불교문헌에 비판되어 있는 상키야학설의 단편들을 혼집하여 검토하였다(64~65, 67, 131, 135, 151, 171~175, 177, 180). 또 가나쿠라 엔쇼박사는 의학서인 Caraka-saṃhitā(Caraka著, 2세기경)와 상키야학설

간의 관련을 검토하였다(160). 한편 나카무라 하지메박사는 「상카라」(700~750년경)의 작품중에서 비판되어지는 상키야철학을 검토하였다(83).

한편 일본학자들은 산스크리트원전에서 부터의 일본어 번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상키야철학에 있어서 중시되는 주요작품들은 대부분 번역되기에 이르렀다. 즉 가나쿠라 엔쇼박사는 『상키야카리카』에 관한 주요한 주석서인 Tattva-kaumudī(Vācaspati-miśra著, 9~10세기경)의 일본어완역을 간행하였으며(162), 나카다 나옴치박사는 또 다른 주석서인 Yuktidipikā(700년경)에 관하여 일역과 교정을 하였으며(59~66, 69~70), 나카무라 료쇼박사는 주석서 Gaudapādabhāṣya와 Sāmkhyakārikā에 관하여 번역과 분석을 거듭하였으며(73~78), 그 연구성과들을 모아 1982년 『サンキヤ哲學の研究』를 발표하였다(82).

일본학자들에 있어서의 또 다른 연구경향으로서는 각 철학설에 있어서의 주요개념을 깊고도 좁게 그리면서도 때로는 폭넓게 고찰해 들어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무라카미 신칸박사는 상키야철학에 있어서의 인식주체로서의 「아트만」과 「푸루샤」등에 관하여,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업과 해탈의 문제에 관하여 검토한 뒤(97~102, 104~106, 112), 그 연구성과를 1978년과 1982년에 각각 발간된 『サンキヤ哲學研究』 『サンキヤの哲學』에 발표하였다(107, 116). 야마구치 예쇼박사는 상키야 체계에 있어서의 「業思想」, 「acetana」, 「ajña」, 「akartṛbhāva」등의 주요개념들을 분석하였으며(126~130, 132~133, 136~138), 그 연구성과를 1964년의 『サンキヤ哲學體系序説』과 1974년의 『サンキヤ哲學體系の展開』에 각각 발표하였다(134, 139).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경향의 작품으로서 혼다 메구무박사의 1980-1981년에 발간된 『サンキヤ哲學研究-上下-』를 들 수 있다(182).

그리고 현재 비교적 청장년층의 야마시타 이사오(山下勲, 1942~)교수, 모테기 메이조(茂木明三, 1948~)교수, 나카이 혼슈(中井本秀, 1955~)선생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나카이 혼슈선생은 상키야학파에 있어서의 인식론에 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84-87).

번역과 Kārikavali(=Bhāṣāpariccheda)의 부분역과 Gaudapādabhāṣya를 포함한 Sāmkhyakārikā의 전역과 미암사학파의 입문서로서 알려져 있는 Arthasaṃgraha의 전역과 불이일원론파의 입문서인 Vedāntasāra의 번역등이 실려 있어 입문자의 길잡이로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 그러나 학문적인 가치에 관련한 미지수이다.

2.3. 요가철학의 연구사

요가학파의 근본경전인 Yoga-sūtra(開祖Patañjali著, 2~4경성립)에 관해 체계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일본학자는, 하바드대학의 교수로 있던 J.H.Woods에게서 사사한 기시모토 히데오(岸本英夫, ?~?)박사인데, 그는 요가철학을 「종교신비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에 관한 약간의 논문을 발표한 뒤(230~237), 이 연구성과를 모아 1958년 요가수트라(의 번역과 색인을 담아 『宗教神秘主義』를 간행하였다(238). 이 전통은 사호다 츠루지(佐保田鶴治, 1899~1986)박사로 이어졌다. 그는 학자일뿐 아니라 실천가이기도 한데 1973년 경도에 요가도장(요가이슈람)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그는 1973년 Hathayogapradīpikā, Gheranda-saṃhitā, Śivasamhitā, Patañjali-sūtra의 번역판인 『ヨ-ガ根本經典』을 간행하였으며(191), 그 외에도 요가관련의 수련의 책을 간행하였다. 요가철학자체가 갖고 있는 실용적 측면, 대중적 측면을 고려해서 인지, 이들 작품 모두가 엄밀한 학문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191~194).

한편 불교(특히 유부)가 요가학파에 미친 영향등에 관한 연구가 관심을 끌기도 했으며, 이에 관한 연구로서는 혼다 메구무박사, 다카기 신겐(高木 榊元, 1930~)박사, 구모이 쇼젠(雲井昭善, 1915~)박사등의 연구성과를 들 수 있다(227~228, 242, 244~245, 253).

한편 Yogasūtra의 주석인 Vyāsa-bhāṣya(Vyāsa著, 500년경)가 혼다 메구무박사에 의해 번역되어, 1978년 『ヨ-ガ書註解』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256). 한편 1970년대의 중반부터 Vyāsa-bhāṣya에 관한 상카라의 주석으로서의 Yogasūtrabhāṣyavivarāṇa를 둘러싼 연구가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 나카무라 하지메박사는 이 작품이 상카라의 진작임을 밝히는 권위있는 연구성과를 남겼다(186~188).

그리고 가시오 지카쿠(桎尾慈覺, 1943~)교수는 Yogasūtra에 관해 약간의 검토를 가했으며(218~221), 요가철학에 있어서의 고타의 문제, 倫理의 문제등에 관하여 검토하기도 했다(216, 224). 한편 야마시타 고이치(山

下幸一)선생, 엔도 코(遠藤康, 1959~)선생등의 비교적 젊은 학자들이 요가학파에 있어서의 인식론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바(202~204, 205~207), 이는 시대적인 추세의 반영이다.

2.4. 니야야철학의 연구사

니야야철학의 연구는 니야야철학의 근본경전인 Nyāyasūtra(開祖Gautama著, 250~350경 성립)와 그 주석서인 「Vātsyāyana」(350년경 활약)의 Bhāṣya, 그리고 그에 대한 복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에 있어서의 니야야철학의 연구는 다른 철학파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새로운 움직임에 속한다. 이 분야에 관한 연구는 미야사카 유쇼(宮坂宥勝, 1921~)박사와 야스모토 도오루(泰本融, 1921~1984)교수와 우노 아츠시(宇野惇, 1922~)교수등에 의해 추진되었다. 즉 니야야철학에 있어서의 최초의 의미있는 성과는 1956년 미야사카 유쇼박사가 저술한 『ニヤヤ・バーシュヤの論理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책은 Nyāyasūtra와 주석서인 Bhāṣya를 함께 일본어로 번역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에 대한 연구성과를 담고 있다(284). 한편 「Uddyotakara」(Bhāṣya의 復注인 Nyāyavārttika의 작자, 6세기후반)의 전문가인 야스모토 도오루교수는 『Kāthāvatthu』(論事)에 규정된 논쟁법과 「니야야학파」의 논쟁법등에 관해 비교논리학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이를 1976년 『東洋論理の構造』에서 발표하였다(326). 그리고 그는 Nyayakusumañjarī(Udayana著, 10세기경)의 제5편에 대해서도 상세히 분석하기도 하였다(323). 그리고 우노 아츠시(宇野惇, 1922~)교수는 일찍부터 「navyanāya」(신정리학과)의 중요성에 눈을 떠, 그 학파에 있어서의 「전문용어」(technical term)전반에 관해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344~347, 351~352).

한편 그 뒤세대에 해당되는 기무라 도시히코(木村俊彦, 1940~)교수, 야마카미 쇼도(山上證道, 1939~)교수, 와타나베 시게아키(渡邊重朗, 1939~)교수등에 의해서는 「니야야학파」의 學匠이며 동시에 「Pāsupata派」의 추종자로 여겨지는 「Bbhāsarvajña」(10세기경)에 관한 연구가 관심을 끌

기 시작하여, 그의 Nyāyabhūṣaṇa등이 유행처럼 검토되기 시작했다(306~310, 312, 314, 341~343, 372, 378~379, 381~382). 그리고 「Jayanta(bhaṭṭa)」(9세기 후반)에 관한 연구도 시마 요시노리(島義徳, 1945~)선생, 야마카미 쇼도교수, 와타나베 시게아키교수등에 의해 이루어졌다(295~296, 298, 314, 340).

그리고 「Udayana」에 의해 적극적으로 재창되기 시작한 니야야학파의 「有神論說」이, 야스모토 도오루교수, 미야모토 게이이치(宮元啓一, 1948~)교수, 이시토비 미치코(石飛道子, 1951~)선생, 가노 교(狩野恭, 1951~)선생등에 의해 각각 검토되었다(277, 321~323, 367, 370, 372, 374).

그런 한편 나카무라 하지메박사는 미야사카 유쇼박사가 번역한 바 있는 Bhāṣya를 재검토하여 1982~1983년에 걸쳐 완역하였다(269, 271). 그리고 그는 1983년 인도논리학의 입문자를 위하여 「인도논리학용어집」을 발간했으며(270), 1981년에는 「Dharmakīrti」의 Nyāyabindu에 관해서도 완역했다(266). 이 업적들은 인도논리학을 연구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하토리 마사아키박사, 기타가와 히데노리(北川秀則, 1921~)박사등은 불교논리학에 관해서도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383, 359~396).

우노 아츠시교수에 의해 개척되기 시작한 신정리학과에 관한 연구가 최근의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즉 마루이 히로시(丸井浩, 1952~)교수는 「신정리학과」의 「명령문의 의미」를 추구하였으며(272~274), 나가오 무츠시(長尾睦司, 1939~)교수는 「신정리학과」의 언어문제를 검토했으며(260~261), 미야모토 게이이치교수는 「신정리학과」의 입문서인 Maṇikāṇa의 「abhāvavāda章」을 검토하였다(278). 그리고 이시토비 미치코선생은 신정리학과와 vyāpti개념을 검토하기도 했다(338~339, 368~369, 371). 한편 와다 도시히로(和田壽弘, 1954~)박사는 「신정리학과」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Gaṅgeśa」(1325년경)의 Tattva-cintāmaṇi의 일부를 영역 해설하기도 했다(336).

2.5. 바이세시카철학의 연구사

일본인학자의 이 분야에 있어서의 공헌으로서 1917년 발표된, 우이 하쿠쥬박사의 『勝宗十句義論』(慧月著, 550~650년경, 玄奘에 의한 翻譯만이 전해지고 있다)에 관한 연구, 「Vaiśeṣika Philosophy according to the Daśapadārthaśāstra(London, 1917)」를 들 수 있다(463).

이 학파에 관한 연구는 그 근본경전인 Vaiśeṣikasūtra(Kaṇāda著, 50~150년경성립)와 그 주석서적 성격의 작품인 Padārthadharmasamgraha(Praśastapāda著, 450~500년경)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들 작품에 대한 일본어 번역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 가나쿠라 엔쇼박사와 나카무라 하지메박사에 의해 각각 이루어졌다(400, 473). 한편 『바이세시카수트라』만의 일역으로서는 1980년의 가나오카 슈유(金岡秀友, 1927~)박사의 것을 들 수 있다(469).

그리고 Padārthadharmasamgraha의 주석서로서의 Nyāyakandali(Śrīdhara著, 10세기경)와 Kiraṇāvali(Udayana著, 10세기경)가 고찰되어, 전자는 혼다 메구무박사에 의해 일역되었으며(498~507), 후자는 다치카와 무사시박사에 의해 분석되었다(475~476).

또한 타학과와의 교섭사에 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되었다. 예를 들면, 미야사카 유쇼박사, 아다치 도시히데선생 등은 Carakasamhitā에 있어서의 바이세시카철학에 관해 분석하였으며(449, 455~456), 가나쿠라 엔쇼박사와 사다카타 아키라(定方晟, 1936~)교수는 바이세시카학파의 기원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여, 전자는 자이나교를 비롯한 인도철학제파의 영향을 강조한데 반하여(473), 후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주장하였다(451).

그리고 이 학파의 주요개념들이 분석되기에 이르러, 예를 들면, 마루이 히로시교수는 「지각」에 관한 약간의 논문을(418~419, 422), 미야모토 게이이치교수는 「pākaja», 「samkhyā», 「apekṣābuddhi», 「viśeṣaṇa», 「vi-mokṣa」등의 개념들을 다룬 논문을(435~442), 노자와 마사노부박사는

「hetvābhāva」, 「saṃśaya」등의 개념을 다룬 논문을 각각 발표하였다(402~410). 나카무라 하지메박사, 무라카미 신칸박사, 다케나카 도모야스(竹中智泰, 1945~)교수, 도모오카 마사야(友岡雅彌, 1954~)선생등은 「sāmānya」의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399, 405, 429~430, 477, 478), 그외 여러학자들은 니야야·바이세시카학파에 있어서의 해탈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다(275, 281, 321, 390, 452, 487~488, 496). 한편 이 철학파의 연구에 오랜동안 관여해온 호조 겐조(北條賢三, 1929~)박사는 주로 이 학파의 해탈관, 도덕설, 윤리관, 인간관등을 중심으로 검토해왔다(486~495).

한편 『바이세시카수트라』중의 약간의 수트라 그 자체를 분석하는 경향이 일기 시작하며, 예를 들면 노자와 마사노부(野澤正信, 1947~)박사, 하토리 마사아키박사, 마루이 히로시교수, 미코가미 예쇼(神子上惠生, 1935~)교수, 미야모토 케이이치교수, 아다치 도시히데(安達俊英, 1957~)선생등의 연구성과를 들 수 있다(412~415, 420, 426, 433, 435, 453, 456, 482).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 전반에 걸쳐 「Praśastapāda」의 「知覺說」을 둘러싸고, 일본의 인도철학계에서는 보기 드문 논쟁이 일어난 적이 있다. 이는 하토리 마사아키박사가 1968/1969년에 발표한 「two types of non-qualificative perception」가 그 발단이 되었다(483). 박사는 여기에서 Praśastapādabhāṣya의 지각론을 검토한 뒤, 1. 니야야·바이세시카학파가 설하는 「直接知」(pratyakṣa)에는 「無分別知」(nirvikalpajñāna)와 「有分別知」(savikalpajñāna)의 구분이 있다는 점, 2. 그리고 「무분별지」에는 「svarūpālocanamātra로서의 무분별지」와 「viśeṣaṇajñāna로서의 무분별지」의 구별이 있다는 점, 3. 그리고 「svarūpālocanamātra로서의 무분별지」는 지각이 생기는 심리적과정의 단계로서, 「Dignāga」(400~480년경)의 영향, 즉 Dignāga에 대한 대항의식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Praśastapāda」가 니야야·바이세시카학파에서는 최초로 도입한 개념이나, 한편 「viśeṣaṇajñāna로서의 무분별지」는 viśiṣṭajñāna의 전제로서 논리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서, Vaiśeṣika-sūtra에서 유래하는 것이라는 점, 4. 그리고 「Vācaspatimiśra」는 이

유래를 달리하는 두 무분별지를 구별하지 못해 당황하고 있다는 점, 5. 이처럼 Praśastapāda에는 Dignāga에 대한 영향이 엿보이는 바, 그는 Dignāga(400~480년경)보다 후대의 인물임이 확인된다는 점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듬해 독일의 V.L. Schmithausen교수의 〈zur Lehre von der Vorstellungsfreien Wahrnehmung bei Praśastapāda〉(Wien, Wiener Zeitschrift für die Kunde Süd-und Ost-Asiens, 14, 1970, 125~129)에 의해 즉각 비판되었으며, 이후 1982년에는 미야모토 케이이치교수에 의해서도 반론되었다(441). 미야모토 케이이치교수의 반론을 살펴보면 「Praśastapāda의 pratyakṣa론은 철저하게 viśeṣaṇa와 viśiṣṭa의 관계위에 성립할 뿐이며, 따라서 그는 정확히 Vaiśeṣikasūtra를 계승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한다. 즉 「svarūpālocanamātra를 심리적인 事實이라고, veśeṣaṇajñāna를 논리적인 想定이라고 하면서, 무분별지를 두종류로 구분하려는 태도는 그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Praśastapāda가 반드시 Dignāga의 후대의 인물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하였다.

이상은 선후배의 질서를 존중하는 일본의 인도철학계에서는 보기 드문 논란의 한 예인데, 이와같은 이들의 왕성한 학적추구를 본다면, 니야야·바이세시카철학은 앞으로 일본의 인도철학계의 중심분야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니야야·바이세시카철학은 일본의 젊은 학자들의 관심의 표적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약간 내리막길을 걷는 듯이 보이는 상키야·요가철학의 경우와는 대조적이다.

2.6. 미맘사철학의 연구사

미맘사학파의 근본경전인 Mīmāṃsāsūtra(Jaimini著, 100년경성립)가 1967~1968년에 걸쳐 가나오카 슈유박사에 의해 일본어로서는 처음 번역되었다(547~551). 그리고 기타가와 히데노리(北川秀則)박사와 유다 유타카교수에 의해 미맘사학파의 입문강요서로 유명한 Arthasaṃgraha(Lauṅākṣi-bhāskara著, 17세기)가 일본어로 각각 번역되었다(543, 582).

그리고 Sarvadarśanasamgraha(Mādhava著, 14세기)의 「미맘사章」이 마에다 센가쿠박사와 구라타 하루오(倉田治夫, 1949~)선생의 공동작업에 의해 색인과 함께 일본어로 번역되었다(514~515).

한편 「Bhātṭa파」의 개조인 「Kumārila」(650~700년경)는 『미맘사수트라』의 주석서인 Bhāṣya(Śabarāsvāmin著, 550년경)에 대한 주석서로서 Śloka-vārttika, Tantravārttika, Tūptika를 각각 썼는데, 일본의 관련학자들의 연구는 이 주석서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야마자키 츠기히코(山崎次彦)선생은 Śloka-vārttika의 「apoha」, 「abhāva」, 「atman」등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519~531), 하토리 마사아키박사는 Śloka-vārttika의 「apohavāda」에 관해 주목할 만한 논문을 남겼으며(613~614), 이하라 쇼렌(伊原照蓮, 1920~)박사는 Tantravārttika에 있어서의 「Bhāvanā론」에 관해 검토하였다(545). 한편 야마카미 쇼도교수, 다케나카 도모야스교수, 구로다 히로시(黒田泰司, 1952~)교수, 아카마츠 아키히코(赤松明彦, 1953~)박사등의 京都大學출신의 젊은 네 학자들이, 1983년부터 1985년에 걸쳐, 공동연구로서 Śloka-vārttika의 「anumāna章の研究(1)(2)(3)」을 발표했다²⁴⁾(518). 그리고 Tantravārttika의 전문가인 하리카이 구니오(針貝邦生, 1942~)박사는 「abhidābhāvanā」, 「mantra」, 「niyama」, 「apūrva」, 「śabdārtha」등의 개념을 검토하였으며(594~609, 611), Tantravārttika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1990년, 『古典印度聖典解釋學研究』에 발표하였다(610). 한편 다케나카 토모야스교수는 「Bhātṭa파」의 「보편론」을 중심으로 검토를 거듭했다(583~592). 그리고 우노 아츠시선생은 「Kumārila」의 「abhihitānvayavāda」와 「Prabhākara」(700년경)의 「anvitābhidhānavāda」에 관해 면밀한 검토를 하기도 했다(539).

그리고 「Prabhākara파」(일명Guru파)의 개조, 「Prabhākara」의 제자로 알려지고 있는 「Śālikanātha」(900년경?)의 작품인 Prakaraṇa-

24) 이 논문들은 경도대학출신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발간된 『印度思想史研究』라는 부정기 학술지에 실렸다. 이와 같은 류의 잡지는 공동의 테마를 정하고 팀워크를 짜고 함께 협력하는 경도대학의 학풍, 나아가서는 일본의 학계의 학풍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같은 류의 공동작업에 의해 『漢譯對照梵和大辭典』(鈴木學術財團編) 편찬등의 커다란 업적이 가능했다고 여겨진다.

pañcika가 가나자와 아츠시(金澤篤, 1951~)교수와 구로다 히로시교수 등에 의해 검토되기도 했다(556, 572, 575~577).

한편 가와사키 신조(川崎信定, 1935~)박사, 가츠라 쇼류(桂紹隆, 1944~)박사, 에지마 야스노리(江島惠教, 1939~)박사, 하토리 마사아키박사등은 불교와 미맘사학과간의 교류에 관해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530~531, 532, 562~563, 612, 615, 617).

전반적인 추세에서 보건대 「Kumārila」에서 비롯되는 「Bhātṭa파」에 관한 연구열기와 비교해 볼 때, 「Prabhākara」에서 비롯되는 「Prabhākara파」는 비교적 학자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이는 「Kumārila」가 불교를 격렬히 비판하면서도, 불교논리학을 자기의 체계내에 채용하였다는 점등이, 불교와의 교섭사에 늘 주목해오는 일본학자들의 관심을 끈데 반해, 「Prabhākara파」는 역사적으로도 미맘사철학의 주류를 형성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 문헌이 잘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미맘사철학(특히 Bhātṭa파의)은 자신의 체계내에 논리학적 논의를 축적해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방면에 관심을 갖는 젊은 학자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2.7. 베단타철학의 연구사

일본에 있어서의 베단타철학의 연구는 가나쿠라 엔쇼박사에 의해 1932년에 발표된 『ヴェーダ-ンタ哲學の研究』로서 본 궤도에 올라섰으며(829), 나카무라 하지메박사에 의해 1951~1955년에 걸쳐 발표된 4권의 『초기 베단타철학사』로서 그 정점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625~626, 628, 893). 그 제1권은 1983년 인도의 Motilal Banārsidass출판사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기도 했다(655).

한편 베단타학파의 근본경전인 『브라흐마수트라』(開祖Badarayana著, 400~450년경성립)에 대한 상카라의 주석서인 Brahmasūtrabhāṣya는, 가나쿠라 엔쇼박사에 의해 일본어로 완역되어 1980년, 『シャンカラの哲學 1,2卷』의 제명으로 출판되었다(832). 그리고 이하라 쇼렌박사에 의해

Brahmasūtrabhāṣya 1.1의 색인이 인도의 Nirṇaya Sagara판(1938, Bombay)에 근거하여 1970년에 완성되었다(812).

그리고 마에다 센가쿠박사는 Upadeśasāhasrī를 상카라의 작품중, 주석사이외의 것으로서는 유일한 것임을 밝히고, 1973년 그 교정과 영역을 출판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다(671). 한편 그것의 일본어번역이 역주와 해설과 함께 그에 의해 문고판으로 출판되기도 했다(690). 그리고 그는 1980년, 베단타철학에 관한 초보자의 입문서이며 동시에 전문적인 학술서이기도 한 『ヴェーダ-ンタの哲學』을 출판하기도 했다(681). 그런 한편 나카무라 하지메박사는 1989년, 상카라철학의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연구서로서, 그 완결편이라고도 볼 수 있는 『シャンカラの哲學』을 발간하였다(659).

사와이 요시즈구(澤井義次, 1951~)박사는 主知主義적 성격이 강한 상카라철학에 있어서 소홀시되기 쉬운 신앙과 종교의 문제등 주로 실천적 측면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해왔으며(728~736), 그간 「Vācaspati-miśra」(9세기경)의 Bhāmati에 관한 역주를 검토하며(755~758, 760~763, 766~767), 또 브라흐만과 현상세계의 관계를 밝히는 등(749, 751, 759)의 연구업적을 쌓아온 시마 이와오(島岩, 1950~)교수역시, 상카라에 있어서의 「Bhakti(信愛)사상」을 검토하기 시작하는 등(770~774), 상카라학파의 종교적 성격에 관한 논의가 현재 관심을 끌고 있다.

이하라 쇼렌박사는 미맘사학파의 「쿠마릴라」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Maṇḍanamiśra」(700년경)의 Brahmasiddhi, Sphoṭasiddhi등의 작품에 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해왔으며(804~808, 810, 813~815), 히노 쇼운(日野紹運, 1948~)박사는 상카라의 제자, 「Sureśvara」(700년경)의, Vārtika(상카라의 Brhadāraṇyaka-upaniṣad-bhāṣya와 Taittirīya-upaniṣad-bhāṣya에 관한 주석)에 관해 치밀한 검토를 가했다(871~875, 879~884).

그간 「상카라파」이외의 베단타제학파에 관한 연구는 일본에서는 별다른 연구성과를 얻지 못했으나, 근년 「Śrīvaiṣṇava파」의 「박티사상」을 베단타철학에 접목시킨 「Yāmuna」(918~1037년)를 전공하는 이시토비 사다노리(石飛貞典, 1951~)선생의 연구성과(785~797)와, 「被限定者不二

一元論(Viśiṣṭadvaita)派」의 開祖인 「Rāmānuja」(1017~1137년)를 전공하는 마츠모토 쇼케이(松本照敬, 1942~)박사의 연구성과(694~711)와, 「Viśiṣṭadvaita派」전반을 검토한 도쿠나가 무네오(徳永宗雄, 1944~)선생의 연구성과(857~858)와, 「不一不異說(Bhedābheda-vāda)」과 「知行併合說(jñānakarmasamuccayavāda)」을 중심사상으로 하는 「Bhāskara」(750~800년경)를 전공하는 쇼신 기미노리(正信公章, 1950~)선생등의 활발한 연구성과(740~748)에 힘입어 그 폭은 넓어졌다. 특히 마츠모토 쇼케이박사는 그간의 연구성과를 모아 1991년 『ラ-マ-ヌジャの研究』를 발간하였다(709).

그런 한편 최근의 젊은 학자들이 새롭게 이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할 일이다. 예를 들면 미치바야시 노부오(道林信郎, 1953~)선생의 「Sureśvara」연구(723~724), 이토 미치야(伊藤道哉, 1956~)선생의 「生身解脫(jīvanmukti)」, 「離身解脫(videhamukti)」의 개념을 둘러싼 연구(799~803), 가와쿠치 겐(川口賢, 1958~)선생의 「Śrīharṣa」(1125~1180년)의 「지각론」연구(835~837), 무라카미 유키미(村上幸三, 1963~)선생의 「상카라」연구(715~719), 사토 히로유키(佐藤裕之, 1958~)선생의 「불이일원론파」의 전반에 관한 연구(737~739)등등, 그 폭은 더욱 더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는 베단타철학의 연구의 열기가 여전히 뜨겁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2.8. 문법학의 연구사

고대인도에서는 베다성전의 해석·어원·문법에 관하여 일찍부터 전문학자가 배출되었으며, 베다성전연구의 육보조학(vedāṅga)²⁵⁾의 하나로서 문법학(vyākaraṇa)이 성립해 있었다. 이들 문법학의 문법학서로서 Pāṇini(기원전 5~4세기경)의 文典 Aṣṭadhyāyī²⁶⁾가 현존최고의 것으로서 남아

25) 베다성전의 육보조학은 제사학(kalpa), 천문학(jyotiṣa), 어원학(nirukta), 운물학(chandas), 음운학(śikṣa), 문법학(vyākaraṇa)으로 구성되며, 그 중 後四者は 暗喑으로 전수되던 「베다어」그 자체의 해석을 본질로 한다.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법학은 이 『파니니문전』에 이르러서는 이미 베다학의 보조학으로서의 영역을 넘어서 독립된 학문으로서 성립을 보게 된다. 그 뒤 『파니니문전』은 Kātyāyana(기원전 250년경)의 Vārttika와 Patañjali(기원전2세기경)의 Mahābhāṣya에 의해 보수정정되어, 세세한 점까지 규정되며, 이들 문법학서를 근본경전으로하는 문법학은 일단 체계적인 완성을 이룬다. 그러나 파탄잘리사후, 문법학파는 현저하게 쇠퇴하며, 침체기를 맞는다. 그 뒤 문법학파는 Bhartṛhari(5세기후반)에 의해 부흥되며, 그의 주저로서는 독립작품인 『文章單語篇(Vākyapadīya)』과 파탄잘리의 『大註解(Mahābhāṣya)』에 대한 주석서인 『大註解解明(Mahābhāṣyadīpikā)』을 들 수 있다. 한편 바르트리하리는 자신의 문법학의 체계내에 베단타철학을 도입하였으며, 따라서 베단타학자로서 취급되기도 한다.

일본에 있어서의 문법학의 연구는 바르트리하리의 『문장단어편』을 중심으로하는 연구와 『파니니문전』과 그 주석서를 중심으로하는 연구가 있다. 우선 이분야에서의 개척자적인 존재로서의 오지하라 유타카박사(大地原豊, 1923~?)는 프랑스의 L.Renou(1896~1966)와의 공저로서, 『Kāśika(-vṛtti)』(7세기경, Jayāditya와 Vāmana의 공저, Pāṇinisūtra에 관한 주석서)를 붙여로 번역하는 등의 업적을 남겼으나(917~936), 그 업적이 금방 큰 흐름을 형성하지는 못했다.

한편 나카무라 하지메박사는 『초기베단타철학사』시리즈의 제4권인 『ことばと形而上學』(1956년)에서 「Bhartṛhari」(5세기후반)의 언어철학을 규명하였다(893). 그리고 이하라 쇼렌박사도 철학적인 관점에서 「Bhartṛhari」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법학을 다루기도 하였다(813~815, 941~947). 그리고 인도문학의 전문가인 가미무라 가즈히코(村上勝彦, 1944~) 박사는 「인도수사학」의 「Dhvani론」과 「인도문법학」의 「Sphoṭa설」의 관계를 밝히기도 하였다(949).

26) 이는 『Pāṇinisūtra』, 『Aṣṭaka』, 『Pāṇiniya-aṣṭaka』등으로도 불리우며, 『파니니문전』, 『八章篇』등으로 번역된다. 파탄잘리에 의해서는 3972의 수트라로, 『Kāśikā』와 『Siddhāntakaumudī』의 작자에 의해서는 3983의 수트라로 각각 헤아려지고 있다.

그러나 순수히 문법학을 전공으로 하는 경우는 오지하라 유타카박사를 제외하면, 비교적 새로운 동향이며 그 주요한 인물로서는 야기 도오루(八木徹, 1948~)교수의 『파니니수트라』전반에 관한 연구(904~908), 시미즈 신이치(清水新一, 1947~)선생의 바르트리하리등에 관한 연구(896~899), 다니자와 준조(谷澤淳三, 1954~)교수의 대명사와 고유명사등에 관한 연구(954~963), 오가와 히데요(小川英世, 1954~)선생의 「不變化辭 eva」등에 관한 연구(909~915), 하라다 와소(原田和宗, 1959~)선생의 바르트리하리에 관한 연구(965~967)등을 들 수 있겠다. 앞으로 문법학은 니야야·바이세시카철학과 더불어 일본의 인도철학의 다음 세대의 주된 흐름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인도철학에 있어서의 문법학이, 서양철학에 있어서의 언어철학의 경우처럼, 그 기초가 되는 학문임이 점차 인식됨에 따른 자연스런 추세로 여겨진다.

Bibliography

1. 概論的作品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1912-, 문학박사(동경대), 동경대교수, 동방학원장)

1 『インド思想史』

東京, 岩波書店, 1956, 14+274p. 改訂版1968, 18+282+41p.

2 『インド人の思惟方法』

中村元選集 1, 東京, 春秋社, 1961(1988復刊)

3 『自我と無我』

京都, 平樂寺書店, 1963, 11+719+66p.

4 『東西文化の交流』

中村元選集 9, 東京, 春秋社, 1965, 7+326+7p.

5 『インド思想の諸問題』

中村元選集 10, 東京, 春秋社, 1967(1991復刊), 9+606+34p.

6 — et al. 『インド思想(講座東洋思想1)』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67, 3+371+15p.

- 7 『インドとギリシャとの思想交流』
中村元選集 16, 東京, 春秋社, 1968, 7+525+44p.
- 8 「シヴァ教の説, 水銀派の説, ヴァイシェーシカ説 — マダヴァ 『全哲學綱要』 第7, 第9, 第10章の翻譯」
『三康文化研究所年報』 6/7, 1975, 1-41
- 9 『ヒンドゥー教史』
東京, 山川出版社, 1979, 14+332+3p.
- 10 『自己の探求』
東京, 青土社, 1989(1992三刷), 295p
- 11 『比較思想の軌跡』
東京, 東京書籍, 1993, 574p
- 마에다 센가쿠(前田專學, 1931-, 동경대졸, 철학박사(펜실베이니아대), 문학박사(동경대), 동경대학교수역임, 무사시노여자대학교수)
- 12 — et al.: 『インド思想史』
東京大學出版會, 1982, 8+266+13p.
- 13 — et al.: 『東洋における人間觀』
東京大學出版會, 1987, 16+521p.
- 14 『インド中世思想の研究』
東京, 春秋社, 1991
- 15 『インド的思考』
東京, 春秋社, 1991, 8+205p
- 16 「インド思想の根底にあるもの」
東京, 春秋社, 『春秋』, 1991.5,
- 17 「佛教とインド哲學諸派との交渉(2)」
塚本啓祥篇, 『佛教傳播史における諸派の形成とその基盤』 1991,
- 무라카미 신칸(村上眞完, 1932-, 문학박사(동북대), 동북대교수)
- 18 「インド哲學における哲學の原語」
『宗教研究』 52-3(238號), 1979,
- 19 「インド哲學史における心の發展」
『佛教論叢』 23, 1979, 95-99.
- 20 「インド思想史における心の問題」
『印度學佛敎學研究』 30-2, 1982, 15-20.

- 21 『インド哲學概論』
京都, 平樂寺書店, 1991, 10+451p
- 미야모토 게이이치(宮元啓一, 1945-, 동경대졸, 國學院대학조교수)
- 22 「インド思想を考える — とくに因果應報と業について」
京都, 法藏館, 『佛教』 19(季刊誌), 1992, 57-66
- 야마구치 예쇼(山口惠照, 1918-, 문학박사(경도대), 오사카대교수)
- 23 「The Conception of Samsāra」
『印度學佛敎學研究』 18-2, 1970, 1062-1055
- 24 「Thoughts on Mokṣa」
『印度學佛敎學研究』 20-2, 1972, 1008-1002
- 25 「解脫と救済の問題」
『宗教研究』 47卷3輯(218號), 1974
- 26 「インド哲學における智慧の問題」
『모리미키사부로(森三樹三郎)博士頌壽記念, 東洋學論集』 1979, 1093-1107
- 와타나베 쇼코(渡邊照宏, 1907-1977, 동경대졸, 동양대학교수, 眞言宗智山派승려):
- 27 「インド哲學における「自然」の問題」
『思想』 619, 1976, 35-50
- 우이 하쿠쥬(宇井伯壽, 1882-1963, 문학박사(동경대), 동북대및동경대교수, 고마자와(駒澤)대총장, 조동종승려):
- 28 『印度哲學史』
東京, 岩波書店, 1932(1965復刊),
- 유다 유타카(湯田豊, 1931-, 메이지(明治)학원대졸, 동경대대학원졸, 카나가와(神奈川)대학교수, 릿쇼(立正)대학교수):
- 29 『インドの思想』
東京, 第三文明社, レグルス文庫 42, 1975,
- 30 「インド哲學における存在の問題に關して」
『人文研究』 69, 1978, 39-74

- 31 『인도哲學의諸問題』
東京, 大東出版社, 1978, 10+460+23p
- 32 『인도哲學と現代』
東京, 隆文館, 1990, 356p
- 33 『바라몬의精神界 — 인도六派哲學의敎典』
すずき出版, 1992, 397p

이마니시 준키치(今西順吉, 1935-, 문학석사(동경대), 호카이도(北海道)대교수):

- 34 「我と無我」
『印度哲學佛敎學』1, 1986, 北海道印度哲學佛敎學會, 28-43
- 35 「無我說における我の概念(1)」
『印度哲學佛敎學』5, 1990, 北海道印度哲學佛敎學會, 39-66
- 36 「無我說における我の概念(2)」
『印度哲學佛敎學』6, 1991, 北海道印度哲學佛敎學會, 1-24

가나오카 슈유(金岡秀友, 1927-, 문학박사(동경대), 동양대교수, 眞言宗妙藥寺주지)

- 37 『인도哲學史概說』
『佛敎文化』選書, 東京, 佼成出版社, 1990, 32+264+6p

가나쿠라 엔쇼(金倉圓照, 1896-1987, 문학박사(동경대), 동북대교수):

- 38 「輪廻思想の淵源」
『思想』155, 1935,
- 39 「印度哲學概論」
『基礎哲學』, 理想社出版部, 1937, 319-379
- 40 『印度古代精神史』
東京, 岩波書店, 1939,
- 41 「印度哲學と西洋思想」
『理想』172, 1947,
- 42 『印度中世精神史(上)』
東京, 岩波書店, 1949,
- 43 『印度哲學入門』
東京, 百華苑, 1952,

- 44 『悟りへの道』
京都, 平樂寺書店, サ-ラ叢書 9, 1958
- 45 「인도文化と女性」
『東北文化研究所年報』2, 1960,
『인도文化』3, 1962,
- 46 『印度中世精神史(中)』
東京, 岩波書店, 1962,
- 47 『인도哲學史』
京都, 平樂寺書店, 1962, 244p
- 48 『인도哲學的自我思想』
東京, 大藏出版, 1974,
- 49 『인도哲學佛敎學研究(3) — 인도哲學篇 2』
東京, 春秋社, 1976, 488p

기무라 다이켄(木村泰賢, 1881-1930, 문학박사(동경대), 동경대교수):

- 50 『印度哲學宗教史』
東京, 大法輪閣, 1914(1981五刷), 木村泰賢全集 1,
- 51 『印度六派哲學』
東京, 大法輪閣, 1915(1981五刷), 木村泰賢全集 2,

다마키 코시로(玉城康四郎, 1916-, 문학박사(동경대), 동경대명예교수, 일본 대학교수):

- 52 『近代インド思想の形成』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65(1980復刊), 5+18+630+28+24p

다케우치 게이지(竹内啓二, 1953-, 고마자와대졸, 철학박사(타고르국제대)):

- 53 『近代印度思想の源流』
東京, 新評論, 1991,

다카사키 지키도(高崎直道, 1926-, 동경대졸, 철학박사(푸나대), 동경대명예교수, 와세다 대학객원교수):

- 54 「인도學·佛敎學と宗教學 — 方法論的課題」
『宗教研究』40-4(191號), 1967,
- 55 『인도思想論』

京都, 法藏館, 1991.

도쿠나가 무네오(德永宗雄, 1944-, 경도대졸, 철학박사(하바드대), 경도대조교수):

56 「同語反覆表現に見られるインド的思惟の特質」

『哲學研究』48-3, 1991, 1-39, 京都大學文學部內京都哲學會,

하토리 마사아키(服部正明, 1924-, 경도대졸, 철학박사(켈커타대), 경도대교수, 오오사카(大阪)학원대교수):

57 — et al.: 『인도思想 1,2,3』

東京, 岩波書店, 『岩波講座 東洋思想』5-7卷(1988-9), 復刊(1991)

호조 겐조(北條賢三, 1929-, 문학박사(동북대졸), 다이쇼(大正)대교수, 眞言宗豊山派僧侶):

58 「인도思想に見られることばの本性をめぐって」

『다케나카신조(竹中信常)博士頌壽記念』1984, 673-689

2. 상키야철학

나카다 나옴치(中田直道, 1930-, 문학박사(동경대), 철학박사(멜리대), 츠루미(鶴見)대학여자단기대학교수, 曹洞宗淨林寺주지):

59 「Vyākhyāṅga and parapratī: pādvāṅga in the Yuktidīpikā」

『印度學佛敎學研究』13-2, 1965, 51-57

60 「Three kinds of inferences in the commentaries on the Sāṃkhyakārikā」

part 1, 『印度學佛敎學研究』14-2, 1966, 38-48

61 「Three kinds of inferences in the commentaries on the Sāṃkhyakārikā」

part 2, 『印度學佛敎學研究』15-1, 1967, 437-427

62 「Word and inference in the Yuktidīpikā — part 1」

『印度學佛敎學研究』18-2, 1970, 41-45

63 「Word and inference in the Yuktidīpikā — part 2」

『印度學佛敎學研究』19-2, 1971, 25-31

64 「The Sanskrit text of the Madhyamaka-hṛdaya-kārikā and the Tibetan text of the Madhyamaka-hṛdaya-vṛttikajvāla, śaṣṭhaḥ pariccedaḥ, Sāṃkhyatattvāvatāraḥ(part 1, pūrva pakṣa)」

『츠루미(鶴見)女子大學短期大學部紀要』6, 1973, 145-155

65 「中觀心論の頌第六章および論理の炎 — 인도의二元論의哲學 「산키야說」を紹介せる部分の和譯と註」

『鶴見女子大學短期大學部紀要』6, 1973, 156-185

66 「ことばと推論 — ユクティディーピカーにおける(和譯と校訂)」

『中村元博士還曆記念論文集, 印度思想と佛教』1973, 37-56

67 「On a primary material cause of Sāṃkhya philosophy as expounded in the Tattvasaṅgraha and the Tattvasaṅgrahapañjikā」

『鶴見大學紀要』7-11, 1974, 163-188

68 「산키야 — 마하바라타에對する 니라칸타의註を通じてみる」

『佛教の歴史的展開にみる諸形態』東京, 創文社, 1981, 90-106

69 「論理の燈における知識根據の數に關する議論 — 梵文和譯と校訂」

『고마자와(駒澤)大學佛敎學部論集』13, 1982, 289-276

70 「word and inference in the Yuktidīpikā」

『나리타(成田)山佛敎研究所紀要』12, 1988, 47-74

나카무라 료쇼(中村了昭, 1927-, 문학박사(동북대), 가고시마경제대학교수):

71 「數論師ヴィンドヴァーシンの所說」

『印度學佛敎學研究』8-1, 1960, 300-302

72 「數論哲學の體系(1) — 數論偈諸註の比較對照の研究」

『密敎文化』58, 1962,

73 「가우다파다바시야 — 인도의二元論의原典的解明 1」

『가고시마(鹿兒島)經大論集』14-2, 1973,

74 「가우다파다바시야 — 인도의二元論의原典的解明 2」

『가고시마(鹿兒島)經大論集』14-3, 1974,

75 「가우다파다바시야 — 인도의二元論의原典的解明 3」

『가고시마(鹿兒島)經大論集』15-2, 1974,

76 「가우다파다바시야 — 인도의二元論의原典的解明 4」

『가고시마(鹿兒島)經大論集』15-3, 1974,

- 77 「인도의二元論 — 산크야카리카-諸注釋書の比較對照の研究(1)」
『地域研究』 2, 1973,
- 78 「인도의二元論 — 산크야카리카-諸注釋書の比較對照の研究(2)」
『地域研究』 4-1, 1974, 47-69
- 79 「ウパニシャッドと산크야說 — 初期의산크야說」
『가고시마(鹿兒島)經大論集』 15-4, 1975, 75-96
- 80 「산크야哲學의基本的學說」
『가고시마(鹿兒島)經大論集』 19-2, 1978, 69-88
- 81 「산크야哲學研究의備忘」
『가고시마(鹿兒島)經大論集』 20-2, 1979, 27-48
- 82 『산크야哲學의研究 — 인도의二元論』
東京, 다이토(大東)出版社, 1982, 11+524+37p
-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 83 「شانカラ의산크야說および요가說論難」
『智山學報』 23/24, 1974, 267-280
- 나카이 혼슈(中井本秀, 1955-, 동북대졸, 릿쇼(立正)大短大部非常勤講師, 日蓮宗僧侶):
- 84 「Sāṃkhya派知覺論について」
『東北印度學宗教學論集』 7, 1980, 95-106
- 85 「Sāṃkhya派におけるpramāṇa論」
『印度學佛敎學研究』 28-2, 1980, 170-171
- 86 「Sāṃkhya派知覺論について — 金七十論とsāṃkhyavṛttiを中心として」
『東北印度學宗教學論集』 7, 1980, 95-106
- 87 「Sāṃkhya派におけるpramāṇa理論의受容形態」
『東北印度學宗教學論集』 8, 1981, 53-80
- 마츠오 기카이(松尾義海, 1909-, 種智院대학교수):
- 88 「산크야哲學における覺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3-2, 1955, 452-456
- 89 「산크야哲學に於ける轉變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4-2, 1956, 454-455
- 90 「산크야哲學における知識論」

- 『印度學佛敎學研究』 6-1, 1958, 118-119
- 모테기 메이조(牟根 茂木明三, or 秀淳, 1948-, 경도대졸, 신슈(信州)대조교수):
- 91 「Yuktidipika의研究(1)」
『印度學佛敎學研究』 26-2, 1978, 166-167
- 92 「Yuktidipika의研究(2)」
『印度學佛敎學研究』 27-1, 1978, 453-448
- 93 「산크야派における創造神의變遷 — mahātmyasārīraについて」
『宗教研究』 53-1(240號), 1979, 67-86
- 94 「Yuktidipika의研究(3)」
『印度學佛敎學研究』 28-2, 1980, 907-904
- 95 「on 'tanmātra',」
『印度學佛敎學研究』 34-2, 1986, 1-6
- 96 「산크야學派의推理說」
『인도思想史研究』 6, 服部正明博士退官記念論集, 1989, 41-52
- 무라카미 신칸(村上眞完):
- 97 「산크야(數論)의解脫의主體について — 산크야카리카(數論頌)64를めぐって」
『사토(佐藤)敎授古稀記念論集』 佛敎思想論叢, 1972, 393-422
- 98 「산크야哲學における解脫의問題」
『印度學佛敎學研究』 21-1, 1972, 74-79
- 99 「산크야哲學におけるプル샤(靈我)의偏在と一多의問題」
『東北大學日本文化研究所研究報告』 10, 1974, 35-94
- 100 「プル샤と아트만」
『宗教研究』 218, 1974,
- 101 「산크야哲學と無我의問題(序說)」
『東北大學文學部研究年報』 23, 1974, 36-117
- 102 「산크야哲學의靈我とヴェーダ-ンタ哲學의個我」
『東北大學文學部研究年報』 24, 1975, 79-115
- 103 「Sāṃkhyakārikā註 Jayamaṅgalā」
『印度學佛敎學研究』 24-2, 1976, 32-38
- 104 「プル샤と아트만(2)」

- 『宗教研究』226, 1976
- 105 「aṅguṣṭhamātra puruṣa (親指大のプルシャ)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25-2, 1977, 101-109
- 106 「サンクシャ哲學における業・法・非法とヴァイシェシカ哲學」
『論集』4, 1977, 107-117
- 107 『サンクシャ哲學研究 — インド哲學における自我觀』
東京, 春秋社, 1978, 794+144+23p.
- 108 「サンクシャ哲學における業の問題 — ヴァイシェシカ哲學とも關聯して」
『業思想研究』京都, 平樂寺書店, 1979,
- 109 「知行併合説(samuccaya-vāda)」
『印度學佛教學研究』28-1, 1979,
- 110 「saṃnyāsa(捨離,遁世)考」
『宗教研究』242, 1980
- 111 「インド哲學における知と行」
『日本佛教學會年報』45, 1980, 1-17
- 112 「靈我とところ — サンクシャ哲學における」
『佛教學』9/10合併號, 1980, 165-190
- 113 「永遠の有と轉變 — サンクシャ哲學と世親」
『佛教思想史』2, 1981, 1-30
- 114 「a demonstration of the existence of the creator and the criticism of it: deity as conceived of by the Sāṃkhya school」
『神觀念の比較文化論的研究』東京, 講談社, 1981, 539-588
- 115 「認識から解脱への筋道 — サンクシャ哲學における」
『佛教思想』8, 1982, 353-403
- 116 『サンクシャの哲學 — インドの二元論』
京都, 平樂寺書店, 1982, 323+35p.
- 117 「ユクティディーピカー — 譯註 —」
東北大學文學部研究年報 33, 1984, 37-69
- 118 「Benares manuscripts of the Yuktidīpikā」
『印度學佛教學研究』35-2, 1987, 1020-1016
- 119 「感官のsāmānya-jñāna(Yuktidīpikā p.102)」
『印度學佛教學研究』39-2, 1991, 282-289

- 사와이 다카노리(澤井高範, 1945-, 문학석사(立命館大), 영어교실강사):
- 120 「サンクシャ哲學におけるプルシャと絶對無(西田)」
『印度學佛教學研究』36-1, 1987, 300-303
- 아다치 오사무(足立修, 1923-, 경도대졸, 이나자와(稻澤)여자단기대학교수):
- 121 「數論哲學の細身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3-2, 1955, 508-509
- 아루가 고키(有賀弘紀, 1963-, 와세다(早稻田)대졸, 문학석사(동경대)):
- 122 「some problems of anumāna in Sāṃkhya」
『印度學佛教學研究』39-2, 1044-1042
- 아사노 겐세이(淺野玄誠, 1955-, 오타니(大谷)대졸, 도호(同朋)대전임강사):
- 123 「Sāṃkhya思想における認識主體の問題」
『오타니(大谷)學報』64-2, 1986, 15-30
- 124 「サンクシャ映像說による知の理解 — Tattvasaṃgraha, ジャイナ後期論書と Tattvakaumudī, Yogasūtrabhāṣya」
『도호(同朋)大學論叢』63, 1990, 46-118
- 125 「他學說の扱うサンクシャ映像說 — 眞理綱要とジャイナ後期論書」
『東海佛教』36, 1991, 64-76
- 야마구치 에쇼(山口惠照, 1918-, 문학박사(경도대), 오사카(大阪)대명예교수):
- 126 「サンクシャ體系に於ける業思想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3-2, 1956, 746-764
- 127 「サンクシャ體系に於けるakartṛbhāva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4-1, 1956, 253-256
- 128 「サンクシャ哲學におけるacetanaとajña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5-1, 1957, 33-36
- 129 「數論に於ける數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6-1, 1958, 166-169
- 130 「triṣṇa의組織について — SāṃkhyaとYoga」
『印度學佛教學研究』7-1, 1959, 115-122
- 131 「菩提資料としてのtriṣṇa說について — Sāṃkhyaと佛教」
『印度學佛教學研究』8-2, 1960, 451-458

- 132 「sāṃkhyatattva의體系について — parīṇāma-vāda 一般の展望のに」
『印度學佛敎學研究』9-2, 1961, 441-449
- 133 「プルシャ・プラクリティ의結合(samyoga)について — 산키야哲學體系展開の基本構想(序說)」
『インド學試論集』6/7, 1965, 93-104
- 134 『산키야哲學體系序說 — 산키야へみちびくもの』
京都, アポロン社, 1964, 8+3+311+36+8p
- 135 「The problem of dharma in Buddhism and dharma-adharma in Sāṃkhya」
『印度學佛敎學研究』13-2, 1965, 28-34
- 136 「A consideration of dharma, adharma, jñāna, and ajñāna」
『印度學佛敎學研究』14-2, 1966, 47-54
- 137 「A consideration of pratyayasarga」
『印度學佛敎學研究』15-2, 1967, 16-22
- 138 「One aspect of the deviation of pratyayasarga」
『印度學佛敎學研究』16-2, 1968, 6-14
- 139 『산키야哲學體系의展開 — 究極的な轉迷開悟の道』
京都, アポロン社, 1974, 5+4+760+29p

야마시타 이사오(山下勲, 1942-, 경도대졸, 오사카공대조교수):

- 140 「Sāṃkhya의pratyakṣa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19-2, 1971, 866-869
- 141 「Sāṃkhya의sāmānyato dṛṣṭa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25-1, 1976, 150-151
- 142 「プルシャ의存在をめぐって」
『印度學佛敎學研究』26-1, 1977

야마시타 고이치(山下幸一, ???-):

- 143 「アビダルマディンパに言及される산키야說について」
『佛敎學セミナー』32, 1980, 67-80

유다 유타카(湯田豊):

- 144 「古典的산키야의體系」
『人文研究』82, 1982, 45-75

- 145 「산키야카리카(1)」
『人文學研究情報』17, 1984, 35-56
- 146 「아-유클베-다와산키야思想」
『Āyurveda kenkyu』14, 1984, 2-43
- 147 「산키야카리카(2)」
『人文學研究情報』19, 1986, 91-118

이마니시 준키치(今西順吉):

- 148 「산키야頌의系譜 — 第7.9頌をめぐって」
『印度學佛敎學研究』8-2, 1960, 566-567
- 149 「산키야に於けるプルシャ觀の一つの問題 — adhiṣṭhātr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13-2, 1965, 162-169
- 150 「마-그바『全哲學綱要』の一考察 — 第14章『산키야哲學』의文獻學的研究」
『古代學』12-2/3, 1965, 91-108
- 151 「提婆, 婆藪によって言及された산키야 — 初期中觀派における산키야思想2」
『北海道大學文學部紀要』18-1, 1970,
- 152 「인도哲學と因果論(산키야哲學を中心として)」
『佛敎思想 3-因果』1978, 447-472.
- 153 「산키야頌의譬喩」
『印度學佛敎學研究』30-2, 1982, 330-336
- 154 「산키야哲學(哲學)と요-가(實修)」
東京, 岩波書店, 『岩波講座 東洋思想 5卷』1988, 135-170
- 155 「산키야と요-가의語義」
『印度哲學佛敎學』3, 1988, 北海道印度哲學佛敎學會, 64-84

츠카모토 게이쇼(塚本啓祥, 1929-, 쿠마모토(熊本)대학부졸, 문학박사(立正大), 동북대교수):

- 156 「바가ヴァッド기타におけるSāṃkhya의語義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19-1, 1971, 18-26

기무라 니키(木村日紀, ???):

- 157 「Bhagavad-gītāに現はれたSāṃkhya-yoga思想」

『印度學佛敎學研究』 6-2, 1958, 403-404

가나쿠라 엔쇼(金倉圓照):

- 158 「サンクヤ・タットヴァ・カウムディー」
『東北大學文學部研究年報』 7, 1956,
159 「金七十論疏和譯」
東京, 大東出版社, 『國譯一切經論疏部』 23, 1958,
160 「チャラカ醫典の數論說」
『オクダシオ(奥田慈應)先生喜壽記念佛敎思想論集』 1976, 1061-1074
161 「自在黒の思想 — 數論偈における人間の存在と運命」
『印度哲學佛敎學研究』 3 印度哲學篇 2, 東京, 春秋社, 1976, 104-82
162 『眞理の月光 — タットヴァカウムディー』
東京, 春秋社, 1984, 334+83p.

다무라 쇼지(田村庄司, ???-):

- 163 「Uddhalakaの三元素と數論の三徳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8-2, 1960, 568-569

다카기 신겐(高木禰元, 1930-, 고야산대학졸, 문학박사(동북대), 고야산대학장):

- 164 「ユクティ・ディーピカーについて」
『密敎文化』 52, 1961,
165 「數論派の古師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10-1, 1962, 70-75
166 「the Sāṃkhyaview in the Yoga-bhāṣya」
『印度學佛敎學研究』 11-2, 1963, 48-52
167 「數論偈に第二頌に對する一考察 — 數論の起源」
『密敎文化』 71/72, 大山公淳敎授頌壽記念論集 下, 1965,
168 「マ-ダヴァの傳える唯物論思想」
『密敎文化』 86, 1969

혼다 메구무(本多惠, 1930-, 동경대졸, M.A.(예일대), 문학박사(동경대?), 동봉대교수):

- 169 「カーリカ以前のサンキヤの典籍」

『印度學佛敎學研究』 2-2, 1954, 488-489

- 170 「サンキヤ派の神論」
『印度學佛敎學研究』 3-2, 1955, 743-745
171 「Sāṃkhya philosophy described by his opponent Bhavya」
『印度學佛敎學研究』 16-1, 1967, 33-38
172 「Dharmapāla's report on Sāṃkhya」
『印度學佛敎學研究』 17-1, 1968, 1-6
173 「Sāṃkhya in the Buddhagotra」
『印度學佛敎學研究』 18-1, 1969, 441-434
174 「Sāṃkhya reported by Paramārtha in the Buddhist canon」
『印度學佛敎學研究』 21-1, 1972, 7-18
175 「バブイヤ가傳えるサンキヤ哲學」
『日本佛敎學會年報』 38, 1973, 227-244
176 「サンキヤ派における諸原理の展開」
『中村元博士還曆記念論文集, 印度思想と佛敎』 1973, 5-20
177 「Āryadeva's critique of Sāṃkhya」
『印度學佛敎學研究』 23-1, 1974, 491-486
178 「Pañcādhikaraṇa, a Sāṃkhya teacher」
『印度學佛敎學研究』 24-1, 1975, 518-514
179 「Chi's 基 statement of Sāṃkhya」
『印度學佛敎學研究』 25-1, 1976, 516-510
180 「「タットヴァサング라ハ」のサンキヤ說」
『히라카와아키라(平川彰)博士還曆記念論集』 春秋社, 1975, 601-621
181 「ユクティディーピカー雜考」
『印度學佛敎學研究』 27-1, 1978, 64-69
182 『サンキヤ哲學研究 — 上下』
東京, 春秋社, 1980-1981, 4+689p., 2+573+44p

후나츠 가즈유키(船津和行, 1948-, 동경대졸, 신슈(信州)대조교수):

- 183 「サンキヤ學派とヨーガ學派のアートマン論」
東京, 岩波書店, 『岩波講座 東洋思想 6卷』 1988, 245-263

하타노 하쿠유(羽田野伯猷, ???-):

- 184 「數論派における解脱論と數論偈」

『印度學佛教學研究』 1-1, 1953, 164-171

185 「數論のプラティビンバ(反影)説について」

文化10-9, 1943,

法藏館, 『チベット・インド學集成』第四卷, 1988, 3-33

3. 요가철학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186 「notes on Śaṅkara's Yogasūtrabhāṣyavivaraṇa」

『오쿠다지오(奥田慈應)先生喜壽記念佛教思想論集』 1976, 1219-1230

187 「シャンカラのヨーガスートラ註解書解明 上」

『印度學佛教學研究』 25-1, 1976, 70-77

188 「シャンカラ의ヨーガスートラ註解書解明 下」

『印度學佛教學研究』 26-1, 1977, 119-127

189 「ヨーガと合理主義的思惟」

『佛教の歴史的展開にみる諸形態』 東京, 創文社, 1981, 107-126

190 「ヨーガスートラ解明」

『Āgama』 10-38, 1980-1983

사호다 츠루지(佐保田鶴治, 1899-1986, 문학박사(경도대), 오사카대 명예교수, 立命館대 교수):

191 『ヨーガ根本教典(2卷)』

東京, 히라카와(平河)出版社, 1973, 1978,

192 『ヨーガ의宗教理念』

東京, 히라카와(平河)出版社, 1976,

193 『ウパニシャッドからヨーガへ』

東京, 히라카와(平河)出版社, 1978,

194 『解脱ヨーガスートラ』

東京, 히라카와(平河)出版社, 1980, 281+15p

사토 미치오(佐藤道郎, 1929-, 동북대졸, 이와테(岩手)대 교수):

195 「śaḍ-aṅga-yoga展開考」

『印度學佛教學研究』 39-2, 1991, 961-955

아루가 고키(有賀弘紀)

196 「On Vācaspatiśra's Explanation of the Cause of samyoga」

『印度學佛教學研究』 41-2, 1993, 1131-1127

아사노 겐세이(淺野玄誠):

197 「yogadr̥ṣṭisamuccaya의ヨーガ階第一 sthirā, kāntā」

『印度學佛教學研究』 37-1, 1988, 460-455

야마구치 에쇼(山口恵照):

198 『ヨーガ의知慧』

東京, 東方出版, 1987,

야마시타 고이치(山下幸一):

199 「ヨーガ學派におけるsaṃskāra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25-1, 1976, 152-153

200 「ヨーガ學派におけるkarma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26-2, 1978, 381-384

201 「ヨーガ哲學における轉變と時間」

佛教學セミナー 29, 1979, 71-86

202 「ヨーガ哲學における認識の構造」

『印度學佛教學研究』 27-2, 1979, 168-169

203 「ヨーガ學派의量論 — 直接知覺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29-1, 1980, 235-238

204 「ヨーガ哲學における論理的思考について」

『宗教研究』 246, 1981,

엔도 코(遠藤康, 1959-, 코마자와대졸, 동방연구회전임연구원):

205 「Yogabhāṣyaにおける直接知覺의對象をめぐって」

『駒澤大學大學院佛教學研究會年報』 18, 1985, 15-25

206 「Yogabhāṣyaにみられるavayavinについて」

『佛教學研究會年報』 19, 1986, 1-13

207 「Yogabhāṣya의推理說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35-2, 1987, 987-985

208 「Notes on the Trivandrum Manuscript of the Pātañjalayogaśāstravivaraṇa」

- 『印度學佛教學研究』 41-2, 1993, 1144-1139
- 209 「Yogasāraṅgraha의業理論」
『東方』 9, 1993, 107-118
- 유다 유타카(湯田豊) :
210 「ヨーガ」,
『人文研究』 83, 1982, 35-58
- 이하라 쇼렌(伊原照蓮, 1920-, 문학박사(동북대), 큐슈대명예교수) :
211 「ヨーガ學派のスポーク」
『密敎文化』 74, 1966,
- 가나쿠라 엔쇼(金倉圓照):
212 「ヨーガ・ストラの人間像」
『東北大學文學部研究年報』 2, 1952,
213 「ヨーガ・ストラの成立と佛敎との關係」
『印度學佛教學研究』 1-2, 1953, 259-268
214 「ヨーガ學派に於ける人間の存在」
佛敎學研究 8/9, 1953,
- 가시오 지카쿠(桎尾慈覺, 1943-, 오사카대졸, 히메지(姫路)공대교수):
215 「ヨーガ哲學における能見所見の結合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22-2, 1974, 418-425
216 「ヨーガ哲學における倫理の問題」
『印度學佛教學研究』 26-2, 1978, 385-389
217 「a bibliography of Japanese studies on Yoga」
『Bulletin of the Yoga research centre』 1, 1979, 25-30
218 「ヨーガ스트라第一章一七節をめぐって」
『印度學佛教學研究』 27-2, 1979, 194-197
219 「ヨーガ스트라第一章十八節をめぐって」
『宗教研究』 52-3(238號), 1979,
220 「ヨーガ스트라第四章第十六節について」
『宗教研究』 53-3(242號), 1980,
221 「ヨーガ스트라第四章の考察」
『印度學佛教學研究』 28-2, 1980, 186-190

- 222 「ヨーガにおける心の階梯について」
『宗教研究』 54-3(246號), 1981,
- 223 「八支ヨーガ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30-2, 1982, 337-342
- 224 「ヨーガ哲學における苦の問題」
『마치카네야마(待兼山)論叢』 16, 1982, 37-54
- 가토 마사카즈(加藤正和, ????-):
225 「ヨーガ派の三昧について」
『마치카네야마(待兼山)論叢』 9, 1975, 51-67
- 구모이 쇼젠(雲井昭善, 1915-, 문학박사(오타니대), 오타니대명예교수,
불교대교수):
226 「ヨーガ學派における心(citta)」
『佛敎思想』 9, 1984, 598-648
227 「ヨーガ學派と佛敎との交渉」
『佛敎大學研究紀要』 69, 1985, 1-35
228 「ヨーガ學派と佛敎」
『印度哲學佛敎學』 6, 1991, 25-41, 北海道印度哲學佛敎學會
- 기무라 도시히코(木村俊彦, 1940-, 동북대졸, 동해여자대학조교수):
229 「ヨーガ者における直觀と開悟」
『禪文化研究所紀要』 9, 1977, 135-150
- 기시모토 히데오(岸本英夫, ????-):
230 「ヨーガスト라における哲理と體驗」
『宗教研究』 新5-6, 1928,
231 「神秘階梯とヨーガ經」
『宗教研究』 新12-1, 1935
232 「神秘主義と邪惡の問題の 一 考察(特にヨーガ思想に於ける無明avidya
について)」
『宗教研究』 新12-5, 1935
233 「宗教神秘主義に於ける恍惚狀態について」
『是真』 6-4, 1935

- 234 「修行の素材としての心ーパタンジャリのヨーガストラに於ける」
『宗教研究』新13-3, 1936
- 235 「ヨーガストラの理論的機構の意義ー理論と實踐との宗教的相關」
『宗教研究』新13-5, 1936
- 236 「宗教學の一分野としての修行研究について」
『日本宗教學會第五回大會紀要』1938
- 237 「宗教神秘主義論」
『日本宗教學會第五回大會紀要』第二年第二集, 1940
- 238 『宗教神秘主義ーヨーガの思想と心理』
東京, 大明堂, 1958, 8+370p
- 다나카 노리히코(田中典彦, 1944-, 오사카교육대졸, 문학석사(불교대), 불교
대조교수, 淨土宗孝恩寺):
- 239 「ヨーガストラにおける心の概念」
『佛教大學研究紀要』66, 1982, 23-42
- 다치카와 무사시(立川武藏, 1942-, 나고야대졸, 철학박사(하바드대), 나고야
대교수):
- 240 『ヨーガの哲學』
東京, 講談社 現代新書, 1988
- 다카기 신겐(高木禪元):
- 241 「ヨーガ哲學に關する二,三の問題ーサンキヤとの關係」
『密敎文化』45/46, 1959
- 242 「ヨーガ疏と數論說との關係ー疏2-19にあらわれる轉變說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8-1, 1960, 303-306
- 243 「ヨーガ學派における認識論」
『宗教研究』33卷-3輯(161號), 1960
- 244 「ヨーガバーシャとディグナーガとの關係」
『印度學佛教學研究』9-1, 1961, 180-183
- 245 「ヨーガ學派の時間論ーアビダル마佛教との對比」
『密敎文化』64/65, 1963, 68-83
- 246 「on Kriyāyoga in the Yogasūtra」
『印度學佛教學研究』15-1, 1966, 24-33

- 247 「ヨーガ・ヤージュニャヴァウキヤの文獻學的考察」
『密敎文化』92, 1970,
- 248 「마-다브아의傳えるヨーガ學說」
高野山大學論叢 8, 1973, 52-103
- 249 「ヨーガ行法における神秘體驗ー抑滅の階梯を中心として」
日本佛教學會年報 40, 1975, 225-240
- 하라 미노루(原實, 1930-, 동경대졸, 철학박사(하바드대), 문학박사):
- 250 「Yogasūtra 3-37」
『구모이쇼젠(雲井照善)博士古稀記念, 佛教と異宗教』1986, 41-56
- 251 「ヨーガと苦行」
東京, 岩波書店, 岩波講座 東洋思想 7卷, 1989, 149-176
- 하토리 마사아키(服部正明)
- 252 「Yogabhāṣya 3-17」
『東方學論集』1987, 東方學會刊行
- 혼다 메구무(本多惠):
- 253 「ヨーガ學派と佛教」
『印度學佛教學研究』20-2, 1972, 23-30
- 254 「ヨーガ派に於ける三昧の補助手段」
『日本佛教學會年報』41, 1976, 69-82
- 255 「ヨーガ註解」
『도호(同朋)大學論叢』34, 1976, 133-194
- 256 『ヨーガ書註解ー試譯と研究』
京都, 平樂寺書店, 1978, 5+285+72p
- 257 「ヨーガの語義」
『印度學佛教學研究』28-2, 1980, 44-46
- 후나츠 카즈유키(船津和行):
- 258 「Yoga學派の主宰神存在證明」
『印度學佛教學研究』37-1, 1988, 455-450

4. 니야야철학

나가오 무츠시(長尾睦司, 1939-, 큐슈대졸, 쿠마모토(熊本)음악단기대교수):

- 259 「phalamukha-gauravaの例」
『印度學佛敎學研究』18-2, 1970, 872-874
- 260 「新正理學派におけるpadaの概念 — 人稱語尾の意味に關して」
『印度學佛敎學研究』20-2, 1972, 361-364
- 261 「Naiyāyikaのkṛti說 — 人稱語尾の理解をめぐって」
哲學年報 31, 1972, 37-59
- 262 「新正理學派におけるvākyaの概念」
『印度學佛敎學研究』23-2, 1975, 1026-1022
- 263 「Nyāyasūtra 2.2.66の解釋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25-1, 1976, 447-444
- 264 「新正理學のsamāsa論における前提」
『印度學佛敎學研究』26-1, 1977, 412-409

나카다 나옴치(中田直道,):

- 265 「正理經のプラマーナの一考察」
『印度學佛敎學研究』4-2, 1956, 456-457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 266 「インド論理學理解のために1. ダルマキールティ論理學小論(nyayabindu)」
『法華文化研究』7, 1981, 1-178
- 267 「排中律に關するインド理論家の見解」
『印度學佛敎學研究』30-2, 1982, 9-14
- 268 「インド論理學における歸納法の意義」
『印度學佛敎學研究』31-1, 1982, 99-105
- 269 「ニヤ-ヤストラ邦譯(上)」
『산코(三康)文化研究所年報』14, 1982, 1-151
- 270 「インド論理學の理解のために2 — 인도論理學集成」
『法華文化研究』9, 1983, 1-241
- 271 「ニヤ-ヤスト라邦譯(下)」

『산코(三康)文化研究所年報』15, 1983, 1-139

마루이 히로시(丸井浩, 1952-, 동경대졸, 동경대조교수):

- 272 「ニヤ-ヤストラ 1.1.14の解釋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30-2, 1982, 930-926
- 273 「命令文の意味を問う議論 — 新ニヤ-ヤ派の論爭研究の序として」
『타카사키지키도(高崎直道)博士還曆記念論集』1987, 139-154
- 274 「ニヤ-ヤ學派における儀軌論爭史の一斷面 — シャシャグラによるウダヤナ說批判」
『印度學佛敎學研究』37-2, 1989, 950-956
- 275 「インド論理學派の解脫觀について」
『무사시노(武藏野)女子大學佛教文化研究所紀要』7, 1989, 31-46
- 276 「新ニヤ-ヤ派が言及するbhāvana說」
『印度學佛敎學研究』39-2, 1991, 954-950

미야모토 케이이치(宮元啓一, 1948-, 동경대졸, 國學院大조교수):

- 277 「Uddyotakara의 Īśvara論(1) — Īśvara의 存在證明」
『印度學佛敎學研究』22-1, 1973, 421-419
- 278 「Manikāṇa의 abhāvavāda — 和譯と註解」
『佛敎學』13, 1982, 55-72
- 279 「anumāna and nyāya of the Naiyayikas」
『印度學佛敎學研究』30-2, 1982, 1022-1017
- 280 &이시토비 미치코(石飛道子): 「インド論理學の體系(1)(2)」
『東洋學術研究』22-1, 1983, 210-231; 22-1, 149-160
- 281 「ニヤ-야-ヴァイシェシ카兩派의 人間觀 — とくに解脫について」
『東洋における人間概念의 研究, 昭和55-57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綜合研究(a), 研究成果報告書』1983, 16-25
- 282 「viśiṣṭajñāna의 系譜」
『東方』1, 1985, 52-57
- 283 「ニヤ-야-ヴァイシェシ카學派의 人間概念」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東洋における人間觀』1987

미야사카 유쇼(宮坂宥勝, 1921-, 문학박사(동북대), 나고야대 명예교수, 智山傳法院院長, 眞言宗智山派照光寺주지):

- 284 『니야-야바-슈야의論理學 — 印度古典論理學』
東京, 山喜房佛書林, 1956,
- 285 「니야-야學派의時間論」
金倉博士古稀記念印度學佛敎學論集, 1966, 253-263
- 286 「Pramāṇavārttika-kārikā(Sanskrit and Tibetan)」
Acta Indologica 2, 1971-1972, 1-206
- 287 「the concept of paryāpti in Navyanyāya」
『印度學佛敎學研究』30-2, 1982, 1025-1023
- 288 『インド古典論(下)』
東京, 筑摩書房, 1984, 22+20+516p
- 미야사카 유코(宮坂有洪, ????-, 成田山勸學院講師):
- 289 「the avacchedakatvanirukti of Raghunātha-sīromaṇi」
『東海佛敎』27, 1982,
- 290 「니야-야學派から見た佛敎の異端性」
『日本佛敎學會年報』48, 1983, 139-157
- 291 「Navyanyāyaにおけるśābdabodha의構造分析」
『Sambhāṣā』5, 1983, 3-23
- 292 「the definition of vyāpti in Navyanyāya — its nature and construction with reference to Gaṅgeśa and Raghunātha-sīromaṇi」
『Sambhāṣā』9, 1987, 47-82
- 사사키 고키(佐佐木幸貴, ????-, 동북대학원생)
- 293 「Jayantaによる「아트만直接知覺」論批判」
『印度學佛敎學研究』42-2, 1994, 970-968
- 시마 요시노리(島義徳, 1945-, 龍谷大齋, 帝塚山學院大강사):
- 294 「니야-야學派における實踐について」
『宗教研究』47-3(218號), 1974,
- 295 「Jayanta의abhāva論(1)」
『印度學佛敎學研究』23-2, 1975, 985-983
- 296 「Jayanta의abhāva論(2)」
『印度學佛敎學研究』24-2, 1976, 966-963

- 297 「Nyāya學派におけるśabda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29-2, 1981, 947-944
- 298 「Jayanta의pratyakṣa論」
『印度學佛敎學研究』33-2, 1985, 58-62
- 299 「니야-야學派における倫理思想」
『印度學佛敎學研究』35-2, 1987, 984-981
- 아카마즈 아키히코(赤松明彦, 1953-, 경도대졸, 철학박사(파리제삼대), 큐슈대조교수):
- 300 「Nyāya學派의apoha論批判」
『印度學佛敎學研究』30-2, 1982, 936-931
- 301 「前期니야-야學派의知覺理論 — 到達作用說의展開」
『哲學年報』49, 1990, 215-250
- 302 「ウッディヨータカラ의思想 — NV研究(1) — tattvajñānān niḥśreyaādhigamaḥ —」
『インド思想史研究 6, 服部正明博士退官記念 論集』1989, 67-76
- 303 「ウッディヨータカラ의思想 — NV研究(2) — apūrva를めぐって」
『이하라쇼렌(伊原照蓮)博士古稀記念論文集』1991, 377-398
- 야마모토 가즈히코(山本和彦, 1960-, 문학석사(오타니대), 철학박사):
- 304 「On the Anupalabdhiṣādhara's Nyāyasiddhāntadīpa」
『印度學佛敎學研究』43-1, 1994, 519-517
- 야마오리 데즈오(山折哲雄, 1931-, 동북대졸,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교수):
- 305 「インド의論理學及び詩學における比喩の問題」
『印度學佛敎學研究』7-1, 1959, 180-181
- 야마카미 쇼도(山上證道, 1939-, 경도대졸, 京都産大교수):
- 306 「Bhāsarvajña's refutation of the Naiyāyika upamāna」
『印度學佛敎學研究』17-2, 1969
- 307 「Bhāsarvajña의hetvābhāsa論における問題點」
『印度學佛敎學研究』18-2, 1970, 104-108
- 308 「Nyāyabhūṣaṇaにみられるkhyātivāda」
『印度學佛敎學研究』19-2, 1971, 951-947

- 309 「Bhāsarvajña의佛教批判 1 — avayavin을めぐる論争とその發展
citrādvaita批判」
『神戸女子大紀要』5, 1975,
- 310 「Nyāyabhūṣaṇaにおけるprāpyakārivāda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25-1, 1976, 436-432
- 311 「Nyāyasūtra 1-1-4のavyapadeśyaの語をめぐって」
『印度學佛敎學研究』26-1, 1977,
- 312 「バーサルヴァジュニヤがつたえるニヤ-ヤストラ 1-1-26~31の解釋」
『아시카가야츠우지(足利惇氏)博士喜壽記念論集』1978, 541-558
- 313 「saṃśayaの種類をめぐって」
『印度學佛敎學研究』27-1, 1978, 457-454
- 314 「sādhakatamaの語義をめぐりJayantabhaṭṭaとBhāsarvajñaとに
傳承された諸見解」
『密敎學』16/17, 1980, 31-47
- 315 「Nyāyasūtra 1.1.23の解釋をめぐる諸問題」
『京都産業大學論集』9-4, 1980, 22-40
- 316 「Nyāya學派におけるtarkaの語義」
『印度學佛敎學研究』28-2, 1980, 911-908
- 317 & 아카마츠 아키히코(赤松明彦): 「ニヤ-ヤ學派の知識論」
東京, 岩波書店, 『岩波講座 東洋思想 5卷』1988, 197-234
- 318 「Nyāyabhūṣaṇaに關説されたCārvāka説」
『インド思想史研究』6, 服部正明博士退官記念論集, 1989, 19-30
- 야스모토 도오루(泰本融, 1921-1984, 법정대교수역임):
- 319 「ウッディヨータカラの現量論」
『印度學佛敎學研究』4-2, 1956, 400-404
- 320 「인도論理學形成の一斷面—ウッディヨータカラにおける링가파—마
르샤의性格」
『印度學佛敎學研究』6-2, 1958, 469-472
- 321 「ニヤ-ヤ學派の解脫觀と有神論(『全哲學綱要』第十一章譯註)」
『유키(結城)敎授頌壽記念佛敎思想史』1964, 281-308
- 322 「ニヤ-ヤ學派における神の存在の證明 — 比較研究の可能性」
『宗教研究』202, 1970,
- 323 「主宰神(Īśvara)の存在證明と文法學說 — Nyāyakusumañjali第5篇

- (6-14詩頌)を中心として」
『東洋文化研究所紀要』58, 1972,
- 324 「ニヤ-ヤ學派における論證式の問題 — Uddyotakaraの主張を中心と
して」
『東洋文化研究所紀要』67, 1975, 1-36
- 325 「Uddyotakara's Lehre vom Liṅgaparāmarśa」
『東洋文化研究所紀要』64-65, 1976, 35-63, 29-56
- 326 『東洋論理の構造 — ニヤ-ヤ學說の研究』
東京, 法政大學出版局, 1976, 12+308+27p
- 327 「ウッディヨータカラにおける感性的知覺の辯證」
『타무라요시로(田村芳朗)博士還曆記念論集』1982, 481-499
- 야이타 히데오미(矢板秀臣, 1953-, 경도대졸, 문학석사(大正大), 대정대비상
근강사, 眞言宗智山派觀音寺):
- 328 「Nyāyakandaliにおける佛敎說について」
『大正大大學院論集』5, 1981,
- 329 「Nyāyakandaliにおけるabhedaの論證」
『智山學報』45, 1982, 21-30
- 330 「Tarkarahaṣyaに見られる引用文」
『산코(三康)文化研究所』16/17, 1985, 17-30
- 오카자키 야스히로(岡崎康浩, 1958-, 히로시마대졸):
- 331 「初期ニヤ-ヤ學派における知覺論の展開 — Vacaspatimiśraに歸せら
れる知覺論をめぐって」
『印度學佛敎學研究』38-2, 1990, 918-915
- 332 「ウッディヨータカラの아트만觀」
『印度學佛敎學研究』40-2, 1992, 989-984
- 와다 도시히로(和田壽弘, 1954-, 나고야대졸, 철학박사(푸나대), 나고야대조
교수):
- 333 「Mathurānātha의 pakṣatā」
『印度學佛敎學研究』32-2, 1984,
- 334 「qualifier (viśeṣaṇa) in Navyanyāya Philosophy」
『印度學佛敎學研究』37-1, 1988, 506-500

- 335 「インド哲學における言語分析(1)」
『나고야(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哲學 36, 1990, 73-92
- 336 *Invariable concomitance in Navyanyaya*
Delhi, *Sri Garib Dass Oriental Ser.101*, 1990, 12+535p
- 337 「インド哲學における言語分析(3)」
『나고야(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哲學 39, 1993, 17-33
- 338 「A Source of Gaṅgeśa's Conclusive Definition of vyāpti」
『印度學佛教學研究』42-2, 1994, 1074-1070
- 339 「初期新ニヤ-ヤ學派のシャシャダラによる vyāpti の第二確定定義」
『印度學佛教學研究』43-1, 1994, 433-431
- 와타나베 시게아키(渡邊重朗, 1939-, 동경대언어학과졸, 문학석사(동경대),
즈쿠바(筑波)대조교수):
- 340 「ジャヤンタバッタの自性因所作因批判」
『中村元博士還暦記念論文集』印度思想と佛教 1973, 147-159
- 341 「バーサルヴァジュニヤの比量觀」
『가츠마타순교(勝又俊教)博士還暦記念論文集』1981,
- 342 「ニヤ-야브-샤나に引用されたチャ-ルヴァ-カ說」
『구모이쇼젠(雲井照善)博士古稀記念 — 佛教と異宗教』1986, 87-106
- 343 「バーサルヴァジュニヤの遍充把捉論」
『다카사키지키도(高崎直道)博士還暦記念論集』1986, 87-106
- 우노 아츠시(宇野惇, 1922-, 경도대졸, 동해대교수역임, 킨키(近畿)대교수):
- 344 「The determination of terms in Navyanyāya」
『印度學佛教學研究』7-1, 1959, 335-341
- 345 「One aspect of extraordinary perception —
sāmānya-lakṣaṇa-pratyakṣa」
『印度學佛教學研究』8-2, 1960, 740-747
- 346 「The ascertainment of truth of knowledge in the
Nyāya-vaiśeṣika」
『印度學佛教學研究』9-1, 1961, 377-385
- 347 「Satpratipakṣa as a fallacy in the Navyanyāya」
『印度學佛教學研究』18-2, 1970, 28-40
- 348 「インドの論理的思辨 — 論議の形式の技法をめぐって」

- 『文明理論への試み』1973,
- 349 「A study of pratiyogin」
『印度學佛教學研究』23-2, 1975, 1110-1104
- 350 「インド認識論の一考察」
『오쿠다지오(奥田慈應)先生喜壽記念佛教思想論集』1976, 1127-1139
- 351 「新正理學の述語(1)」
『히로시마(廣島)大學文學部紀要』37, 1977, 85-105
- 352 「新正理學の述語(2)」
『히로시마(廣島)大學文學部紀要』38, 1978, 89-109
- 353 「インドの推論式」
『아시카가아츠우지(足利惇氏)博士喜壽記念論集』1978, 433-446
- 354 「正理勝論學說研究」
『히로시마(廣島)大學文學部紀要』40, 1980
- 355 「インドにおける眞理論」
『히로시마(廣島)大學文學部紀要』44, 1984, 20-42
- 356 「インドにおける眞理論(續)」
『히로시마(廣島)大學文學部紀要』45, 1986, 74-93
- 357 「anvaya, vyatireka考」
『나리타(成田)山佛教研究所紀要』11, 1988, 105-127
- 우에다 노보루(上田 昇, 1949-, 동경대졸, 문학석사(동경대), 共立藥科大非
常勤講師):
- 358 「インド論理學における命題因の不可能性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43-1, 1994, 362-359
- 유다 유타카(湯田豊):
- 359 「インド論理學入門(上)」
『神奈川大人文研究』64, 1976, 35-63,
- 360 「インド論理學入門(下)」
『神奈川大人文研究』65, 1976, 29-56
- 361 「タルカ바-シャー — 인도의論理學」
『神奈川大人文學研究情報』15, 1981, 19-58
- 362 「니야-야學派의 認識論과 論理學」
『神奈川大人文研究』80, 1981, 35-66

이시토비 미치코(石飛道子, 1951-, 북해도대졸, 코마자와대북해도교양학부비
상근강사)):

363 「Navyanyāyaにおけるlakṣaṇaの問題 — ativyāptiとavyāptiをめ
ぐって」

『印度學佛敎學研究』27-1, 1978, 467-465

364 「Gaṅgeśa의Vyātipañcakaについて(續)」

『印度學佛敎學研究』26-2, 1978, 973-970

365 「Uddyotakara의hetvābhāsa」

『印度學佛敎學研究』28-2, 1980, 915-912

366 「인도論理學におけるhetvābhāsa」

『佛敎學』12, 1981, 63-84

367 「ウッディヨータカラと有神論批判」

『印度哲學佛敎學』2, 1987, 170-182, 北海道印度哲學佛敎學會

368 「인도論理學派におけるvyāpti의概念 — Maṇikāṇa의和譯と註解」

『印度哲學佛敎學』4, 1989, 75-85, 北海道印度哲學佛敎學會

369 「現代論理學から見たvyāpti의概念」

『후지타코타츠(藤田宏達)博士還曆記念論集』1989, 125-144

370 & 이시토비 사다노리(石飛貞田): 「中世인도의主宰神論證 — 우그야나

『니야-야크스만ジャリ-』試譯(1)」

『코마자와(駒澤)大學北海道敎養部論集』4, 1989, 1-12

371 「나ヴィ야니야-야派におけるvyāpti의概念 — Maṇikāṇa의和譯と註解(續)」

『印度哲學佛敎學』6, 1991, 128-141, 北海道印度哲學佛敎學會

가노 교(狩野恭, 1951-, 케이오(慶應)대졸, 문학석사(경도대), 경도대조교):

372 「BhāsarvajñaにおけるĪśvara의存在論證」

『印度學佛敎學研究』34-2, 1986, 52-55

373 「atman의存在論證 — kevaravyatirekin의2形式」

『印度學佛敎學研究』36-1, 1987, 440-433

374 「Īśvara의存在論證とpuruṣa의存在論證」

인도思想史研究 6, 服部正明博士退官記念論集, 1989, 105-118

가토 도시오(加藤利生, 1959-, 龍谷대졸, 문학석사(龍谷大)):

375 「Nyāyavārttika ad NS, 4.2.31-35に於ける唯識說批判(3)」

『佛敎學研究』49, 1993, 26-50

기무라 도시히코(木村俊彦):

376 「ウグヤナによる現世派批判」

『宗教研究』45-3(210號), 1972,

377 「シヴァ敎パーシュパタ派の認識理念」

『宗教研究』47-3(218號), 1974,

378 「Sakalajagadvidhātṛānumānam(1): the intellect of the god
Śiva argued by Bhāsarvajña」

『印度學佛敎學研究』28-1, 1979, 502-499

379 「Sakalajagadvidhātṛānumānam(2): the intellect of the god
Śiva argued by Bhāsarvajña」

『印度學佛敎學研究』29-1, 1980, 476-471

380 「正理勝論學派神論の研究 — ウィーン學派における」

『文化(東北大)』35-4, 1981,

381 「Sakalajagadvidhātṛānumānam(3): the intellect of the god
Śiva argued by Bhāsarvajña」

『印度學佛敎學研究』30-2, 1982, 1016-1013

382 「Sakalajagadvidhātṛānumānam(4): the intellect of the god
Śiva argued by Bhāsarvajña」

『印度學佛敎學研究』31-1, 1982, 473-470

기타가와 히데노리(北川秀則, 1921-, 동북대졸, 문학박사(동북대?), 나고야
대학교수):

383 『인도古典論理學の研究 — 陣那の體系』

東京, 스즈키(鈴木)學術財團, 1965(1973二刷), 584p,

京都, 린센(臨川)書店, 1985, 複製第一刷發行, 584p,

384 「On Upādhi」

『印度學佛敎學研究』14-1, 1965, 436-430

385 「On Upādhi — continued」

『金倉博士古稀記念印度學佛敎學論集』1966, 97-109

기타하라 유젠(北原裕全, ???):

386 「Viśeṣaṇa考 — Nyāyavārttikatātparyatīka의直接知覺論理解のた
めに」

『東北印度學宗敎學論集』19, 1992, 114-130

다치카와 무사시(立川武藏):

- 387 A sixth-century manual of Indian logic,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1-2, 1971, 111-145
 388 「Udayana의 Lakṣaṇāvalīについて(1)」
 『印度學佛敎學研究』22-1, 1973, 431-434

다마루 도시아키(田丸俊昭, 1949-, 龍谷大졸, 中津女短大비상근강사):

- 389 「Uddyotakara의 無我說批判(1)」
 『印度學佛敎學研究』29-2, 1981, 35-39

도모오카 마사야(友岡雅彌, 1954-, 오사카대졸):

- 390 「解脫論としてのニヤ-ヤ」
 『東洋哲學研究所紀要』1, 1985, 204-229
 391 「初期ニヤ-ヤ 學派의 諸問題 — 初期 ニヤ-ヤ 學派의 解脫論」
 『印度學佛敎學研究』33-2, 1985, 54-57
 392 「ニヤ-ヤと佛敎」
 『東洋哲學研究所紀要』2, 1986, 182-172

하토리 마사아키(服部正明):

- 393 「論證の前段階としてのsaṃśaya」
 『가나쿠라(金倉)博士古稀記念, 印度學佛敎學論集』1966, 265-281
 394 「古典ニヤ-ヤ學派의 아트만論とその背景」
 『哲學研究』43-6, 1966, 49-73
 395 『Dignāga on percep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11+265p
 396 「Nyayavārttika 2.2.66におけるアポーハ論批判」
 『密敎學』16/17, 1980, 15-30

호소노 구니코(細野邦子, 196?-, ????, 문학석사(동경대):

- 397 「Tarkāmṛtaにおける言語論」
 『印度學佛敎學研究』42-2, 1994, 967-963

5. 바이세시카철학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 398 『國譯勝宗十句義論』(國譯一切經和漢撰述 43 論疏部 23)
 東京, 大東出版社, 1958
 399 「普遍의 觀念을手がかりとするヴァイシェーシカ體系의 考察」
 『印度學佛敎學研究』7-2, 1959, 300-313
 400 「ヴァイシェーシカ學派의 原典」
 『산코(三康)文化研究所年報』10/11, 1977-78,
 401 「ヴァイシェーシカ哲學における「普遍」と「特殊」」
 『가즈마타순교(勝又俊教)博士古稀記念論集』春秋社, 1981, 509-530

노자와 마사노부(野澤正信, 북해도대졸, 문학석사, 철학박사(마드라스대), 누
 마즈(沼津) 工業高専조교수):

- 402 「The Sūtrapāṭha of the Vaiśeṣikasūtravyākhyā」
 『印度學佛敎學研究』23-1, 1974, 474-471
 403 「The Vaiśeṣikasūtra referred to in the Padārthadharṃasamgraha」
 『印度學佛敎學研究』24-2, 1976, 1006-1000
 404 「ブラシャ스타파ダ의 似因說」
 『印度學佛敎學研究』28-1, 1979, 150-151
 405 「카-샤바는ヴァイシェーシ카か」
 『印度學佛敎學研究』29-2, 1981, 212-216
 406 「ヴァイシェーシカにおける生死について」
 『日本佛敎學會年報』46, 1981, 459-472
 407 「Vaiśeṣikasūtra에 現れたる sāmānyatodrṣṭa」
 『印度學佛敎學研究』31-1, 1982, 452-449
 408 「『파타-르타달마사נג라하』 似因의 節의 研究」
 누마즈(沼津) 工業高等專門學校研究報告 17, 1983, 75-83
 409 「Acākṣuṣapratyakṣatva」
 『印度學佛敎學研究』33-1, 1984, 372-369
 410 「A problem of saṃśaya theory in the early Nyāya-vaiśeṣika」
 『印度學佛敎學研究』35-1, 1986, 6-11

- 411 『『ヴァイシェシカーストラ』の構成と元素説』
『印度哲學佛教學』2, 1987, 159-169, 北海道印度哲學佛教學會
- 412 『Vaiśeṣikasūtra 3-2-6~14の推論説』
『印度學佛教學研究』37-1, 1988, 466-461,
- 413 『ヴァイシェシカーストラー 2-2-1~5と第二章の構成』
『印度哲學佛教學』3, 1988, 185-204, 北海道印度哲學佛教學會
- 414 『ヴァイシェシカーストラー 3-1-14の解釋をめぐって』
『印度哲學佛教學』4, 1989, 62-74, 北海道印度哲學佛教學會
- 415 『ヴァイシェシカーストラー 4-1-1~5の形而上學』
『印度哲學佛教學』5, 1990, 81-94, 北海道印度哲學佛教學會
- 416 『Abhivṛtyakti(顯現)について』
『印度哲學佛教學』6, 1991, 91-105, 北海道印度哲學佛教學會
- 417 『Theory of Perception in 8th Adhyāya of the Vaiśeṣikasūtra』
『印度學佛教學研究』41-2, 1993, 1156-1150

마루이 히로시(丸井浩):

- 418 『ニヤーヤ・ヴァイシェシカ學派における知覺の條件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28-2, 1980, 172-173
- 419 『vāyuの知覺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29-2, 1981, 644-645
- 420 『Vaiśeṣikasūtra 4, 1, 6の研究 1』
『佛教文化』14, 17, 1984, 64-41
- 421 『A study of textual problems of the Padārthadharmasamgraha』
『東方』1, 1985, 106-120
- 422 『インド哲學における知覺論の一問題』
『東方』2, 1986, 162-175

마에다 센가쿠(前田專學,):

- 423 『ニヤーヤ・ヴァイシェシカ哲學と因果論』
『佛教思想 3-因果』1978, 473-497

마츠오 가카이(松尾義海):

- 424 『ヴァイシェシカ哲學の根本的立場』
『印度學佛教學研究』2-1, 1954, 37-39

모테기 슈준(茂木秀淳):

- 425 『初期ヴァイシェシカ學派の아트マン論』
東京, 岩波書店, 『岩波講座 東洋思想 6卷』1988, 264-279
- 426 『The Vaiśeṣikasūtra 9-1 referred to in the Yuktidīpikā』
『印度學佛教學研究』36-2, 1988, 985-978

무라카미 신칸(村上眞完):

- 427 『ヴァイシェシカーストラにおける아트マン』
『印度學佛教學研究』23-2, 1975, 186-187
- 428 『ヴァイシェシカ哲學における存在の論證』
『東北大學文學部研究年報』25, 1976, 1-56
- 429 『Vyomavatiにおけるsāmānya(普遍)論』
『印度學佛教學研究』37-1, 1988, 66-72
- 430 『概念とその對象 —ヴァイシェシカ(勝論)の普遍の意味』
『후지타코타츠(藤田宏達)博士還曆記念論集』1989, 75-106
- 431 『ヴァイシェシ카파와 니야-야派における無分別의 直接知覺』
『이하라쇼렌(伊原照蓮)博士古稀記念論文集』1991, 123-159
- 432 『インド自然哲學における人間觀』
『東北大學印度學講座65周年記念論集』1991, 67-141

미코가미 예쇼(神子上惠生, 1935-, 류코쿠대졸, 류코쿠대교수):

- 433 『Vaiśeṣikasūtra 2-2-19를めぐ는問題』
『印度學佛教學研究』23-2, 1975, 1021-1013
- 434 『ヴァイシェシカ學派의 知覺說 —ヴァイシェシカーストラ 8-1-5를めぐって』
『龍谷大學論集』442, 1993, 47-60

미야모토 게이이치(宮元啓一):

- 435 『Nyāya-vaiśeṣika의 pakaja理論およびVaiśeṣikasūtra 7-1-10, 11』
『印度學佛教學研究』21-2, 1973, 142-143
- 436 『インド自然哲學의 研究 —ヴァイシェシカ學派의 pakajotpatti理論』
『宗教研究』225, 1975, 29-50
- 437 『ヴァイシェシカ學派의 數體(samkhyā)論』
『東洋學報』57-3/4, 1976, 213-240

- 438 「Vaiśeṣika學派のapekṣābuddhi」
『印度學佛敎學研究』25-2, 1977, 903-908
- 439 「因中無果論における原因の能力(śakti)」
『佛敎學(佛敎學研究會)』5, 1978,
- 440 「知識の眞偽の根據 — インド論理學派の知識論をめぐって」
『法政大敎養部紀要』42, 1982,
- 441 「Svarūpaとviśeṣaṇa — Praśastapādaのpratyakṣa論」
『타무라요시로(田村芳朗)博士還曆記念論集』1982, 513-526
- 442 「ニヤ-ヤ-ヴァイシェ-シカ兩派の解脫觀」
『佛敎思想』8, 1982, 327-352
- 443 &이시토비 미치코(石飛道子): 「인도論理學の體系(1)」
『東洋學術研究』22-1, 1983
- 444 &이시토비 미치코(石飛道子): 「인도論理學の體系(2)」
『東洋學術研究』22-2, 1983,
- 445 「初期ヴァイシェ-シカ學派のアートマン觀 — 아트マンの唯一性と多數性について」
東京, 春秋社, 『前田專學博士還曆記念論集, 我の思想』1991, 17-32

미야사카 유쇼(宮坂有勝):

- 446 「へーツ・タットヴァ・ウパデーシャ」
『密敎文化』29/30, 1955
- 447 「『集量論註・疏』に傳えるヴァイシェ-シカ學派の現量論」
『密敎文化』34, 1956,
- 448 「ヴァイシェ-シカ・ニヤ-ヤにおける業思想の展開」
『日本佛敎學會年報』25, 1960,
- 449 「醫書チャラカ本集に傳えるヴァイシェ-シカ哲學說」
『密敎文化』64/65, 1963, 50-67
- 450 「へーツ・タットヴァ・ウパデーシャ索引」
『密敎文化』68, 1964,

사다카타 아키라(定方晟, 1936-, 동경대졸, 동해대교수):

- 451 「勝論の起源とアリストテレス哲學」
『印度學佛敎學研究』21-1, 1972, 64-71

아다치 도시히데(安達俊英, 1957-, 오사카대졸, 동방연구회전임연구원):

- 452 「ヴァイシェ-シカストラにおける解脫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32-2 1984, 694-695
- 453 「Vaiśeṣika-sūtra 1.1.15~16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33-2, 1985, 63-65
- 454 「Vaiśeṣikasūtra의veda觀とlīṅga」
『印度學佛敎學研究』35-2, 1987, 990-988
- 455 「CarakasamhitaにおけるVaiśeṣika句義說の 수용」
『印度學佛敎學研究』38-2, 1990, 911-907
- 456 「Vaiśeṣikasūtra 5.2.19とCarakasamhita — 身體を經巡りするアートマン」
『印度學佛敎學研究』40-2, 1992, 996-993

야마자키 츠기히코(山崎次彦, ????):

- 457 「勝論經におけるabhāva의概念」
『印度學佛敎學研究』2-1, 1954, 121-122
- 458 「正理經におけるabhāva의概念」
『印度學佛敎學研究』3-1, 1955, 605-606

야마다 교도(山田恭道, ???-):

- 459 「ヴァイシェ-シカのアドリシュタ說」
『印度學佛敎學研究』3-2, 1955, 506-507

오아미 이사오(大綱功, ???-):

- 460 「古代인도におけるVaiśeṣika學派의運動論」
『科學史研究』156, 1986, 194-204

오카자키 야스히로(岡崎康浩)

- 461 「Praśastapada's Definition of Sense-organs — A Note on the Development of Early Vaiśeṣika」
『印度學佛敎學研究』42-2, 1994, 1079-1075

우노 아츠시(宇野惇):

- 462 「勝論學派의pākaja說」

『후지타코타츠(藤田宏達)博士還曆記念論集』 1989, 55-78

우이 하쿠쥬(宇井伯壽)

463 *The Vaiśeṣika Philosophy according to the Daśapadārthaśāstra*
London, Royal Asiatic Society, 1917,

464 「勝論經に於ける勝論學說」

『印度哲學研究』 3, 1923

465 「勝論經及び彌曼蹉經の編纂年代」

『印度哲學研究』 1, 1924

유다 유타카(湯田豊):

466 「ヴァイシェーシカ哲學」

『人文研究』 79, 1981, 75-103

이시토비 미치코(石飛道子):

467 「Vaiśeṣika學派における原子論」

『印度學佛教學研究』 31-1, 1982, 456-453

468 「Praśastapāda의 anapadeśa」

『Sambhāṣā』 5, 1983, 24-38

가나오카 슈유(金岡秀友):

469 「『ヴァイシェーシカーストラ』試譯」

『東洋大學文學部紀要』 33, 『東洋學論叢』 5, 1980, 81-106

가나쿠라 엔쇼(金倉圓照):

470 「タルカ・バーシャー」

『東北大學文學部研究年報』 1, 1951,

471 「チャンドラ・アーナンダの釋による勝論經の全譯」

『히카타(干渴)博士古稀記念論文集』 1964,

472 「勝論の佛教」

『와세다(早稻田)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 10, 1964

473 『인도의自然哲學』

京都, 平樂寺書店, 1971, 3+9+313+13p

다나카 노리히코(田中典彦,):

474 「VaiśeṣikasūtraとPraśastapāda」

『佛教學會紀要』 1, 1993, 31-50

다치카와 무사시(立川武藏):

475 「Udayana의 Lakṣaṇāvaliについて(1)」

『印度學佛教學研究』 22-1, 1973, 431-426

476 *The structure of the world in Udayana's realism — a study of the Lakṣaṇāvali and Kiraṇāvali*

Dordrecht, 1981, 14+180p

다케나카 도모야스(竹中智泰, 1945-, 경도대졸, 尙葉學園大교수):

477 「Nyaya-vaiśeṣika學派の普遍の定義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32-1, 1983, 521-516

도모오카 마사야(友岡雅彌):

478 「Praśastapādaにおける2種のsāmānya」

『印度學佛教學研究』 29-1, 1980, 435-433

479 「ニヤヤ・ヴァイシェーシカ學派の實在論的展開 1」

『마치카네야마(待兼山)論集』 14, 1980,

하토리 마사아키(服部正明):

480 「Vaiśeṣika의 知覺說に對するDignāga의 批判(1)」

『イント學試論集』 2, 1961, 23-30

481 「Vaiśeṣika의 知覺說に對するDignāga의 批判(2)」

『イント學試論集』 3, 1962, 39-57

482 「Studies of the Vaiśeṣikadarśana(1): on the Vaiśeṣikasūtra, 3-1-13」

『印度學佛教學研究』 14-2, 1966, 95-107

483 「Two types of non-qualificative perception」

Wiener Zeitschrift für die Kunde Süd-und Ost-Asiens,
12/13, 1968-1969, 161-169

484 「ヴァイシェーシカ學派の自然哲學」

東京, 岩波書店, 『岩波講座 東洋思想 5卷』 1988, 172-196

- 485 「ヴァイシェーシカ스트ラにおけるダルマについて」
『후지타코타츠(藤田宏達)博士還曆記念論集』1989, 37-54

호조 겐조(北條賢三):

- 486 「ヴァイシェーシカにおけるイ-슈ヴァラの概念」
『密教學研究』2, 1970,
487 「勝論正理學派の融合の一断面 — とくに解脱論を通じて」
『印度學佛教學研究』18-2, 1970,
488 「勝論學派の解脱説について」
『大正大學紀要』56, 1971,
489 「勝論學派の道德説(1) — 勝論經をめぐって」
『豊山學報』22, 1978,
490 「勝論學派の道德説(2) — 句義法綱要をめぐって」
『豊山學報』23, 1978
491 「「法·非法」解釋をめぐって」
『豊山學報』25, 1980,
492 「「聲生論」管見」
『哲學年誌』4, 1980
493 「勝論學説における倫理觀の變遷」
『大正大學紀要』66, 1981,
494 「ヴァイシェーシカ哲學の實體説」
『哲學年誌』5, 1986, 115-128
495 「ヴァイシェーシカ哲學に見られる人間觀」
『東北大學印度學講座65周年記念論集』1991, 37-66

히시다 구니오(菱田邦男, 1930-, 愛知學藝大卒, 문학석사(나고야대), 아이치
(愛知)教育大學教授)

- 496 「勝論學派における迷いと悟り」
『日本佛教學會年報』44, 1979, 81-94
497 『インド自然哲學の研究 — Tattvasamgrahaの一考察と
Saptapadārthiの和譯解説』
東京, 山喜房佛書林, 1993, 10+361p

혼다 메구무(本多惠):

- 498 「正理の芭蕉樹和譯(1)」
『同朋佛教』13, 1979, 103-134
499 「正理の芭蕉樹和譯(3)」
『東海佛教』25, 1980, 74-86
500 「ニヤ-ヤカンダリ-のマナス」
『印度學佛教學研究』29-2, 1981, 540-546
501 「正理の芭蕉樹和譯(4)」
『同朋大學論叢』42, 1981, 79-138
502 「正理の芭蕉樹和譯(5)」
『同朋大學論叢』43, 1981, 157-199
503 「正理の芭蕉樹和譯(6)」
『同朋大學論叢』44/45, 1981, 643-666
504 「ヴァイシェーシカ哲學的自我觀 — 正理の芭蕉樹自我章後半和譯」
『佛教の歴史的展開にみる諸形態』東京, 創文社, 1981, 214-227
505 「正理の芭蕉樹和譯(7)」
『同朋大學論叢』47, 1982,
506 「正理の芭蕉樹和譯(8)」
『同朋大學論叢』48, 1983, 1-62
507 「正理の芭蕉樹和譯(9)」
『同朋大學論叢』50, 1984, 73-112
508 「ヴァイシェーシカ스트라原型への一考察」
『印度學佛教學研究』33-1, 1984, 379-373
509 「ヴァイシェーシカ스트라覺書」
『印度學佛教學研究』35-1, 1986, 67-73
510 「ヴァイシェーシカ學派の非存在論」
『同朋佛教』20/21, 1986, 213-224
511 「ヴァイシェーシカ스트라覺書2」
『印度學佛教學研究』37-1, 1988, 473-467

6. 미맘사철학

나이토 아키히미(內藤昭文, 1956-, 龍谷大졸, 淨土眞宗教學研究員):

- 512 「TSPにおける影像説の一断面」
『印度學佛教學研究』37-1, 1988, 442-437
-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513 「ウバヴァアルシャの字音論」
『印度學佛教學研究』27-2, 1979, 41-46
- 마에다 센가쿠(前田專學)&구라타 하루오(倉田治夫):
514 「インド祭事學派の諸問題(1) — 마-그바著 全哲學綱要미-만-사-章
の研究」
『鈴木學術財團研究年報』12/13, 1975-1976, 77-100
515 「インド祭事學派の諸問題(2) — 마-그바著 全哲學綱要미-만-사-章
の研究」
『佛教學』4, 1977
- 미야사카 유쇼(宮坂宥勝):
516 「미-만-사-學派의 그-바-關에對する달마키르티의批判」
『宗教研究』150, 1956,
- 야마모토 가즈히코(山本和彦):
517 「The Prabhākara theory quoted by Raghunātha-sīromani」
『印度學佛教學研究』42-1, 1993, 539-537
- 야마카미 쇼도(山上證道)et al.:
518 「Śloka-vārttika, anumāna章の研究(1)(2)(3)」
『印度思想史研究』2, 1983, 1-35; 3, 1985, 13-52; 4, 1985,
9-52
- 야마자키 츠기히코(山崎次彦, ???-?):
519 「Yogi-jñāna」
『印度學佛教學研究』3-2, 1956, 740-742
520 「Śloka-vārttikaに於けるabhāva의概念」
『印度學佛教學研究』4-1, 1956, 262-265
521 「シャブダを廻ぐる問題」

- 『印度學佛教學研究』10-1, 1962, 282-285
- 522 「The concept of svataḥ prāmāṇya in the mīmāṃsā śloka-vārttika」
『印度學佛教學研究』11-1, 1963, 32-37
- 523 「Adhyāsa-vādaについて — シュローカヴァールッティカ現量章の一節」
『印度學佛教學研究』12-1, 1964, 106-111
- 524 「クマーリラのアポーハ説批判」
『印度學佛教學研究』13-2, 1965, 49-52; 14-1, 1966, 13-21
- 525 「クマーリラに於けるアートマンの概念」
『印度學佛教學研究』15-1, 1966, 113-116
- 526 「クマーリラのアートマン論」
『미에(三重)大學教養部報』5-2, 1966
- 527 「シュローカヴァールッティカ「文章論」前主張の概要」
『印度學佛教學研究』18-1, 1969, 154-158
- 528 「シュローカヴァールッティカ「文章論」の一節 — 文章無部分説批判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20-1, 1971, 115-120
- 529 「クマーリラに於ける普遍の概念」
『印度學佛教學研究』16-1, 1976, 86-89
- 530 「クマーリラの佛教説批判」
『미에(三重)大學教育學部哲學倫理學研究室論集』2, 1979, 21-40
- 531 「クマーリラの佛教説批判(その2)無我說批判」
『미에(三重)大學哲學倫理學論集』3, 1984, 1-36
- 에지마 야스노리(江島惠教, 1939-, 문학박사(동경대), 동경대교수):
- 532 「Kumārilaによる佛教批判の一斷面」
『印度學佛教學研究』20-2, 1972, 932-927
- 와카하라 유쇼(若原雄昭, 1953-, 龍谷大卒, 문학석사(龍谷大), 龍谷大非常勤講師)
- 533 「バッタ派の眞理論 — Nyāyaratnamālāを中心に」
『印度學佛教學研究』42-2, 1994, 995-980
- 요시미즈 기요타카(吉水清孝, 1959-, 동경대졸, 문학석사(동경대)):
- 534 「クマーリカ無形象知識論の方法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34-1, 1985, 406-404

535 「미-만-사-學派의 聖典解釋學におけるlingaの機能について」

『東洋學術研究』26-2, 1987,

536 「Prajñākara-guptaによるMīmāṃsā義軌論批判の一視點」

『印度學佛教學研究』38-1, 1989, 433-429

537 「前期マンガナシシュラによるniyoga說批判と祭祀行爲論」

『佛教文化』23, 1989, 37-60

538 「Svargakāmaḥ—프라바카라における當爲の自覺」

東京, 春秋社, 『前田專學博士還曆記念論集, 我の思想』1991, 501-512

우노 아츠시(宇野淳):

539 「Mīmāṃsā views on the verbal judgement: anvitabhīdhāna and abhihitānvaya」

『印度學佛教學研究』17-2, 1969, 39-46

540 「アルタ-パッティ(想定)—グル派の見解を中心として」

『密教學』13, 14, 1977, 34-47

541 「미-만-사-學派의 遍充論(1)」

『히로시마(廣島)大學文學部紀要』42, 1982, 60-81

542 「미-만-사-學派의 遍充論(2)」

『히로시마(廣島)大學文學部紀要』43, 1983, 78-101

유다 유타카(湯田豊):

543 「미-만-사-스트라1.1.1-5에對する샤바라스ヴァ-민의註釋」

『神奈川大人文學研究情報』12, 1978, 118-138

544 「알타사ング라하—미-만-사-體系概要」

『神奈川大人文學研究情報』13, 1979, 96-122

이하라 쇼렌(伊原照蓮, 1920-, 문학박사(동북대), 큐슈대명예교수, 나리타(成田)산불교연구원):

545 「미-만-사-派의bhāvana研究資料」

『密教學』13/14合併號, 1977, 1-14

이토 미치야(伊藤道哉, 1956-, 동북대졸, 문학석사(동북대), 동북대조교):

546 「Seśvara-mīmāṃsā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33-2, 1985, 71-73

가나오카 슈유(金岡秀友):

547 「Mīmāṃsāsūtra試譯 1」

『東洋學研究』2, 1967, 1-14

548 「Mīmāṃsāsūtra試譯 2」

『東洋大學紀要』22, 1968, 1-8

549 「Mīmāṃsā-sūtra和譯」

『東洋大大學院紀要』28, 1974

550 「미-만-사-스트라翻譯」

『東洋大文學部紀要』12, 1976, 392-370

551 「Mīmāṃsā-sūtra和譯」

『東洋大文學部紀要』29-1, 1976, 1-162

552 「미-만-사-스트라における달마について」

東京, 春秋社, 『히라카와아키라(平川彰)博士還曆記念論集』1977, 589-599

가나자와 아츠시(金澤篤, 1951-, 동경대졸, 문학석사(동경대),氣象대학교전임강사):

553 「Tattvabindu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29-2, 1981, 650-651

554 「クマーリラとavinābhāva」

『印度學佛教學研究』31-2, 1983, 933-928

555 「Ātman, ātmaka, tadātmyaについて」

『고마자와(駒澤)大學佛教學部論集』15, 1984, 384-360

556 「Prakaraṇapañcikaに於けるpratibandha」

『印度學佛教學研究』33-2, 1985, 74-80

557 「Saṅkarṣa-kāṇḍaをめぐる諸問題—Mīmāṃsā研究序說」

『東洋學報』67-3, 4, 1986, 1-35

558 「Prapañcahṛdaya試論—匿名作品の歴史的 위치づけ」

『고마자와(駒澤)大學佛教學部研究紀要』44, 1986, 398-377

559 「미-만-사-學派의文章論—『타트바빈두』의所說を中心に」

東京, 『岩波講座 東洋思想 7卷』1989, 94-112

560 「미-만-사-というタルカ—クマーリラのものと考えられる一詩節につ

いて(2)」

『고마자와(駒澤)大學佛敎學部論集』 21, 1990, 464-482

가나쿠라 엔쇼(金倉圓照):

561 「ヴァーチャスパティミシュラのタットヴァビンドウ」

『文化』 11-7, 1944,

가와사키 신조(川崎信定, 1935-, 동경대출, 문학박사(동경대), 츠쿠바(筑波)대교수):

562 「バヴィヤの傳えるミ-マンサー-思想」

『中村元博士還曆記念論文集, 印度思想と佛教』 1973, 71-86

가츠라 쇼류(桂紹隆, 1944-, 경도대출, 철학박사(토론토대), 문학박사(경도대), 히로시마대교수):

563 「Kumārila의推理論 — Dignāgaとの對比」

『印度學佛敎學研究』 31-1, 1982, 445-439

구라타 하루오(倉田治夫, 1949-, 와세다대학부출, 문학석사(동경대), 동방연구회겸임연구원, 텔레비신슈(信州)報道部):

564 「Niśādashapatinyaya」

『印度學佛敎學研究』 24-2, 1976, 162-163

565 「Mīmāṃsā學派のparisaṃkhyā論」

『印度學佛敎學研究』 25-1, 1976, 431-428

566 「Samyogaprthaktvanyāya: as a basis of the theory of mokṣa」

『印度學佛敎學研究』 28-2, 1980, 975-970

567 「Mīmāṃsā學派의解脫觀の一斷面」

『印度學佛敎學研究』 33-2, 1985, 66-70

568 「미-만-사-學派의一斷面 — 파르다사-라티의場合」

『東方』 1, 1985, 58-67

569 「祭式と不妄語戒」

『東方』 4, 1988, 79-86

570 「自我의認識と宗教的實踐 — 미-만-사-學派의아트만觀の一斷面」

東京, 春秋社, 『前田專學博士還曆記念論集, 我の思想』 1991, 33-44

571 「Madhava as a Mīmāṃsaka」

『東方』 7, 1991, 164-177

구로다 히로시(黒田泰司, 1952-, 경도대출, 문학석사(경도대), 오사카학원단대조교수):

572 「Prakaraṇapañcika研究」

『印度學佛敎學研究』 27-1, 1978, 186-187

573 「Kumārila의bhāvana說について(1)」

『印度學佛敎學研究』 28-1, 1979, 458-456

574 「Kumārila의bhāvana說について(2)」

『印度學佛敎學研究』 29-1, 1980, 441-436

575 「Prakaraṇapañcika研究(2) — abhāvaに關する記述をめぐって」

『印度學佛敎學研究』 30-1, 1981, 420-414

576 「Prabhākara派のniyoga說 — niyoga의論證を中心として」

『印度思想史研究』 1, 1981

577 「Prakaraṇapañcika研究(3) — Śalikanātha의認識論の一側面」

『印度學佛敎學研究』 31-1, 1982, 448-446

578 「祭事哲學의體系(미-만-사-)」

東京, 岩波書店, 『岩波講座 東洋思想 5卷』 1988, 235-257

579 「旧プラバーカラ派(Jaratprabhakaraḥ)について」

『インド思想史研究 6, 服部正明博士退官記念論集』 1989, 77-94

기무라 니키(木村日記, ????):

580 「彌曼蹉が顯示するdharma의意義」

『印度學佛敎學研究』 2-2, 1955, 596-600

581 「彌曼蹉學派に於けるbhāvanaとapūrvaとの關係」

『印度學佛敎學研究』 4-1, 1956, 257-261

기타가와 히데노리(北川秀則):

582 「Arthasaṃgraha和譯解説1,2,3」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47, 1968, 37-62; 49, 1968, 69-88; 1971, 27-65

다케나카 도모야스(竹中智泰):

583 「普遍と個物의關係の一斷面 — Bhaṭṭa派의bhedābheda論證とNyāya-

- vaiśeṣika批判」
『印度學佛教學研究』20-2, 1972, 909-905
- 584 「Sāṇādiviśiṣṭakṛtiḥ (Śabarābhāṣya ad MS 1.1.5)의解釋について — Bhāṭṭa派におけるupalakṣaṇaとviśeṣaṇaの概念をめぐる」
『印度學佛教學研究』21-1, 1973, 428-435
- 585 「インド實在論學派の普遍論 — 普遍の實在論證および普遍と個物の關係」
『東方學』48, 1974, 97-82
- 586 「森の譬喩について — Ślokavārttika, vanavādaを中心として」
『日本佛教學會年報』41, 1976, 33-48
- 587 「Samānya, sārūpya, and sādrśya: Kumārila's criticism of the similarity theory」
『印度學佛教學研究』26-1, 1977, 505-500
- 588 「バーッタ派の普遍論」
『하나조노(花園)大學研究紀要』10, 1979, 1-25
- 589 「バーッタ派の普遍論」
『하나조노(花園)大學研究紀要』11, 1980, 1-26
- 590 「バーッタ派の普遍論」
『하나조노(花園)大學研究紀要』13, 1982, 97-113
- 591 「Mīmāṃsā學派の推理論 — niyamaとその確定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31-2, 1983, 922-916
- 592 「バーッタ派の普遍論」— Śāstradīpikaの和譯研究(6)
『インド思想史研究 6, 服部正明博士退官記念論集』1989, 105-118
- 도사키 히로마사(戶崎宏正, 1930-, 큐슈대졸, 문학박사(큐슈대), 큐슈대교수):
- 592 「クマーリラ著『シュローカヴァールティカ』第4章(知覺ストラ)和譯(4)」
『印度哲學佛教學』6, 1991, 北海道印度哲學佛教學會』75-90
- 593 「JS 1.1.4의意趣と各語の意味 — クマーリラ著『シュローカヴァールティカ』第4章(知覺ストラ)和譯(1)」
『이하라쇼렌(伊原照蓮)博士古稀記念論文集』1991, 329-352
- 하리카이 구니오(針貝邦生, 1942-, 문학박사(큐슈대), 사가(佐賀)의대조교수):
- 594 「Abhidhabhāvanā의解釋」
『印度學佛教學研究』18-2, 1970, 605-606
- 595 「Über die Authentizität des Arthavāda」

- 『印度學佛教學研究』19-2, 1971, 983-987
- 596 「Arthavāda의三分類法について — Guṇavāda의成立根據を介して」
『印度學佛教學研究』20-2, 1972, 926-920
- 597 「Mantraとniyama」
『哲學年報』32, 1973, 101-123
- 598 「Mantra機能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21-2, 1973, 1003-998
- 599 「タントラヴァールuttiカ聖傳和譯研究」
『哲學年報』33, 1974, 43-75
- 600 「마하노바샤第一日課とタントラヴァールuttiカ」
『哲學年報』34, 1975, 342-318
- 601 「Sādhuśabda를めぐって」
『印度學佛教學研究』23-2, 1975, 1045-1037
- 602 「Apūrva覺書(1)」
『日本佛教學會年報』42, 1977, 1-15
- 603 「Apūrva覺書(2)」
『印度學佛教學研究』26-1, 1977, 426-420
- 604 「Apūrva覺書(3)」
『印度學佛教學研究』28-1, 1979, 463-459
- 605 「クマーリラの語意(sabdārtha)論」
『印度學佛教學研究』30-2, 1982, 942-937
- 606 「クマーリラの語意論(2)」
『印度學佛教學研究』32-1, 1983, 515-510
- 607 「Ajita: a commentary on the Tantravārttika, part 1-7」
『Acta Eruditorum, 사가(佐賀)醫科大學一般教育紀要』1-7, 1983-1988,
- 608 「クマーリラの釋尊觀」
『日本佛教學會年報』50, 1985, 49-65
- 609 「Nyāyasūtra에引用されるbrhātṭika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37-2, 1989, 957-951
- 610 「古典インド聖典解釋學研究 — 미어만사-學派의釋義만트라論」
『후쿠오카(福岡), 큐슈(九州)大學出版會』1990, 14+603p
- 611 「クマーリラの語義(sabdārtha)論(3) — lokaveda adhikaraṇa解讀」
『이하라쇼렌(伊原照蓮)博士古稀記念論文集』1991, 353-376

하토리 마사아키(服部正明):

- 612 「Dignāga's criticism of the Mīmāṃsaka theory of perception」
『印度學佛敎學研究』9-2, 1961, 724-729
- 613 「Mīmāṃsāślokavārttika, apohavāda章の研究(上)」
『京都大學文學部研究紀要』14, 1973, 1-44
- 614 「A study of the chapter on apoha in the Mīmāṃsāślokavārttika(2)」
『京都大學文學部研究紀要』15, 1975, 1-63
- 615 「言語理論に見られる ミー만-ン사- 學派と佛敎部派との關係」
『아시카가야츠우지(足利淳氏)博士喜壽記念論集』1978, 513-521
- 616 「クマーリラの vakyārtha(文章の意味)論」
『哲學研究』47-8, 1984, 200-206
- 617 「佛敎學派の無我論に對する批判 — クマーリラとウディヨ-タカラ」
『印度哲學佛敎學』2, 1987, 335-351, 北海道印度哲學佛敎學會

혼다 메구무(本多惠):

- 618 「シュローカヴァールッティカ試譯」
『타카사키지키도(高崎直道)博士還曆記念論集』1987, 17-32
- 619 「クマーリラの推論 — 슈ロー카ヴァールッティカ和譯」
『후지타코타츠(藤田宏達)博士還曆記念論集』1989, 107-124
- 620 「クマーリラの創造主批判」
『印度學佛敎學研究』39-1, 1990, 287-290
- 621 「シャバラ註論理章和譯」
『同朋大學論叢』62, 1991, 43-100
- 622 「クマーリラのアートマン觀」
『印度學佛敎學研究』41-2, 1993, 259-262

호조 겐조(北條賢三):

- 623 「ミー만-ン사-經にみられる言語論 — 能詮と所詮の關係をめぐって」
『이하라쇼렌(伊原照蓮)博士古稀記念論文集』1991, 89-121

7. 베단타철학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 624 「シャンカラ哲學の歴史的社會的立場」
『우이하쿠쥬(宇井伯壽)博士還曆記念論文集』1951, 331-372
- 625 『初期のヴェーダ-ンタ哲學(初期ヴェーダ-ンタ哲學史 1)』
東京, 岩波書店, 1951(1989復刊),
- 626 『ブラフ마스-トラの哲學(初期ヴェーダ-ンタ哲學史 2)』
東京, 岩波書店, 1951(1989復刊)
- 627 「만즈-키야頌第4章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1-2, 1953, 358-359
- 628 『ヴェーダ-ンタ哲學の發展(初期ヴェーダ-ンタ哲學史 3)』
東京, 岩波書店, 1955(1989復刊)
- 629 「シャンカラの哲學思想」
『大倉山學院紀要』3, 1959, 219-260
- 630 「傳統と合理主義の抗爭 — シャンカラにおける一問題」
『印度學佛敎學研究』8-1, 1960, 9-18
- 631 「シャンカラの著作(1)(2)」
『古代學』8-4, 1960, 376-388, 『古代學』9-1/2, 1961, 71-80
- 632 「シャンカラの小乘佛敎批判」
『나카노(中野)教授古稀記念論文集』1960, 53-82
- 633 「シャンカラの唯識說批判」
『츠카모토(塚本)博士頌壽記念, 佛敎史學論集』1961, 514-531
- 634 「シャンカラ派の總本山 — 슈링ゲ-リー」
『印度學佛敎學研究』9-1, 1961, 115-119
- 635 『現文對譯·ヴェーダ-ンタサーラ』
京都, 平樂寺書店, 1962
- 636 「마도브아의哲學 — 마-다브아全哲學綱要第五章翻譯」
『산코(三康)文化研究所年報』1, 1966, 91-116
- 637 「主宰神の排斥 — シャンカラのヒン즈-諸派論難」
『우노테츠오(宇野哲人)先生白壽祝賀記念東洋學論叢』1974, 1-16
- 638 「世界開展における因果關係 — シャンカラの所論」

- 『スズキ(鈴木)學術財團研究年報』10, 1974, 1-12
- 639 「シャンカラ説とナクリ-シャノパ-シュパタ説, Sarvadarśanasamgraha 第16, 第6章翻譯」
『산코(三康)文化研究所年報』9, 1976, 1-122
- 640 「シャンカラにおける瞑想」
『禪文化研究所紀要』9, 1977, 107-134
- 641 「念想による明知と解脱」
『現代思想』8-8, 1980, 230-239
- 642 「絶對者 — シャンカラにおける思索」
『現代思想』8-10, 1980, 209-213; 11, 238-243; 12, 247-253
- 643 「シャンカラの神秘主義 — 念想による明知と解脱」
『現代思想』8-11, 1980, 227-229
- 644 「世界原因の考察」
『現代思想』8-13, 1980, 238-343
- 645 「「さとり」のみでよいか? 行をも必要とするか?」
『現代思想』特輯「禪」, 1980, 8-13
- 646 「シャンカラの小乗佛教批判」
『나카노(中野)教授古稀記念論文集』1980, 53-82
- 647 「「本來の自己」の否定的性格」
『古田紹欽著作集』11, 1981, 3-6
- 648 「どうしたら明知が得られるか?」
『現代思想』9-1, 1981, 240-243
- 649 「シャンカラの哲學思想(1)(2)(3)(4)(5)」
『現代思想』9-2, 1981, 259-263; 3, 223-229; 4, 218-223; 5, 208-215; 6, 207-211
- 650 「個人存在 — シャンカラ哲學における問題(13)(14)(15)(16)」
『現代思想』9-7, 1981, 197-202; 9, 244-247; 10, 226-231; 11, 201-207
- 651 「シャンカラ哲學における最高神」
『現代思想』9-13, 1981, 234-237
- 652 「シャンカラの神秘主義」
『現代思想』10-6, 1982, 198-203; 7, 222-227; 8, 222-227; 9, 200-203; 10, 215-219; 11, 232-234; 13, 239-243; 14, 272-275; 15, 258-261

- 653 「シャンカラの神秘主義(30) — 個人存在の基底 3」
『現代思想』11-1, 1983, 236-242
- 654 「シャンカラ哲學における具象的念想」
『나가카와첸쿄(中川善教)先生頌德記念論集』1983, 635-645
- 655 「A history of early Vedānta Philosophy, pt. 1, tr. form Japanese by T. Leggett et al. 『Religions of Asia Series No. 1』」
Delhi, Motilal Banarsidass, 1983, 24+566p
- 656 「シャンカラの神秘主義(42)(43)(44)」
『現代思想』12-1, 1984, 296-301; 2, 273-277; 3 266-271
- 657 「シャンカラにおける眞實と非眞實」
東京, 山喜房佛書林, 『타케나카(竹中)博士, 宗教文化の諸相』1984, 647-657
- 658 「シャンカラ哲學の二問題」
『那須政隆博士米壽記念, 佛教思想論集』1984, 179-176
- 659 『シャンカラの哲學』
東京, 岩波書店, 1989, 24+850+40p
- 마에다 센가쿠(前田專學):
- 660 「シャンカラにおけるabhasaの意味 — ウパデー-シャサー-ハスリー-を中心に
して」
『印度學佛教學研究』6-1, 1958, 174-177
- 661 「The authenticity of the Upadeśasāhasrī ascribed to Śaṅkara」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85-2, 1965, 178-196
- 662 「The authenticity of the Bhagavadgītābhāṣya ascribed to Śaṅkara」
Wiener Zeitschrift für die Kunde Süd- und Ost-Asiens, Bd. 9, 1965, 155-197
- 663 「On Śaṅkara's authorship of the Kenopaniṣadbhāṣya」
Indo-Iranian Journal 10-1, 1967, 33-35
- 664 「On the author of the Māṇḍūkyaopaniṣad- and the Gauḍapādiya-bhāṣya」

- Dr. V.Raghavan Felicitation Volume, the Adyar Library Bulletin, 31/32, 1967-68, 73-94
- 665 「The Advaita theory of perception」
Festschrift für Erich Frauwallner, Wiener Zeitschrift für die Kunde Süd- und Ost-Asiens, Bd. 12/13, 1968-69, 221-239
- 666 「シャンカラの哲學的立場と倫理」
『印度學佛教學研究』18-2, 1970, 120-126
- 667 「不二一元論派の聖典解釋の方法 — anvayaとvyatireka」
『印度學佛教學研究』19-2, 1971, 74-80
- 668 「Upadeśasāhasrī, a source book of Advaita Vedānta」
Hawaii,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71, 123-150
- 669 「シャンカラ哲學入門Upadeśasāhasrī散文篇 — 第二章和譯」
『スズキ(鈴木)學術財團研究年報』8, 1971, 57-69
- 670 「NārāyaṇaのKenopaniṣaddīpikā」
『印度學佛教學研究』20-2, 1972, 938-931
- 671 Śaṅkara's Upadeśasāhasrī, critically edited with introduction and indexes
Tokyo, Hokuseido, 1973, 13+370p
- 672 「Vakyavrtti考」
『中村元博士還暦記念論文集, 印度思想と佛教』1973, 57-69
- 673 「シャンカラ哲學入門(2) — 散文篇第一章和譯」
『スズキ(鈴木)學術財團研究年報』10, 1974, 44-58
- 674 「不二一元論派における無明論の展開」
『印度學佛教學研究』24-1, 1975, 78-83
- 675 「ヴェーダーンタ哲學におけるダルマ — シャンカラのダルマ觀の一断面」
東京, 春秋社, 『히라카와아키라(平川彰)博士還暦記念論集』1975, 545-566
- 676 「ヴェーダーンタ哲學における絶對者」
『타마키코시로(玉城康四郎)博士還暦記念論集』1977, 533-548
- 677 「シャンカラ哲學入門(3)」
『スズキ(鈴木)學術財團研究年報』15, 1978, 38-40
- 678 「スレーシュヴァラと聖句「汝はそれなり」」
『印度學佛教學研究』27-1, 1978, 70-77

- 679 「不二一元論學派における儀禮否定の論理」
『佛教儀禮』1978, 19-29
- 680 A thousand teachings: the Upadeśasāhasrī of Śaṅkara, translated with introduction and notes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79, 17+265p
- 681 「ヴェーダーンタの哲學 — シャンカラを中心として」
京都, 平樂寺書店, 1980, 11+304+34p
- 682 「Śaṅkara and Sureśvara: their exegetical method to interpret the great sentence 'tat tvam asi」」
The Adyar Library Bulletin 44/45, 1980-1981, 147-160
- 683 「不二一元論派の知覺論(1) — ダルマ-ジャを中心として」
東京, 創文社, 『勝又俊教博士古稀記念論集, 大乘佛教から密教へ』, 1981
- 684 「ヴェーダーンタと佛教 — 不二一元論派と大乘佛教」
『佛教思想』史 2, 1981, 31-62
- 685 「十六世紀における不二一元論の變容 — Madhusūdana-sarasvatīを中心として」
『다무라요시로(田村芳朗)博士還暦記念論集, 佛教教理の研究』1982, 469-480
- 686 「ヴェーダーンタ哲學における眞理觀」
『佛教眞理觀の綜合的研究, 昭和56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綜合研究(a), 研究成果報告書』1982, 53-62
- 687 「マドゥヴァ派の聖地と僧院」
『東方』1, 1985, 44-51
- 688 「解脱への道」
『구모이쇼젠(雲井照善)博士古稀記念, 佛教と異宗教』1986, 57-69
- 689 「シャンカラとナーラ-ヤナグル — カースト論をめぐる」
『다카사키지키도(高崎直道)博士還暦記念論集』1987, 3-16
- 690 「ウパデーシャサーハスリー — 眞實の自己の探究」
東京, 岩波書店, 岩波文庫, 1988,
- 691 「アートマン論「總論」」
東京, 岩波書店, 『岩波講座 東洋思想 6巻』1988, 226-244
- 692 「ブラフマストラおよび不二一元論派」
東京, 岩波書店, 『岩波講座 東洋思想 7巻』1988, 260-296
- 693 「シャンカラ研究の回顧と展望」

『學術月報』42-11(通卷539), 1989,

마츠모토 쇼케이(松本照敬, 1942-, 와세다대출, 문학박사(동경대), 大東文化
大 교수):

694 「Yādhavaprakāśa」

『印度學佛敎學研究』17-1, 1968, 21-24

695 「The Vedārthasaṃgraha and the Śrībhāṣya」

『印度學佛敎學研究』18-1, 1969, 22-27

696 「라마-누ジャ의 祭事觀」

『印度學佛敎學研究』22-1, 1973, 418-413

697 「Anavādhika-atiśaya-ānandam」

『印度學佛敎學研究』23-1, 1974, 485-481

698 「ヴェーダ-ンタ學派における王子の比喩」

『印度學佛敎學研究』25-1, 1976, 427-423

699 「聖註における梵と現象界の比喩」

『密敎學』13/14, 1977, 210-219

700 「라마-누ジャにおける絶對者と個我」

『타마키코시로(玉城康四郎)博士還曆記念論集』1977, 563-578

701 「Vedārthasaṃgrahaにおけるmokṣaとprapatti」

『印度學佛敎學研究』26-1, 1978, 234-238

702 「The Term Mokṣa in Gauḍakārikabhāṣya」

『智山學報』28, 1979, 1-11

703 「야-무나作「스토-라트나」」

『成田山佛敎研究所紀要』6, 1981, 101-128

704 「라마-누ジャの生涯」

『成田山佛敎研究所紀要』7, 1982, 21-63

705 「바스카라의佛敎批判(1)」

『타무라요시로(田村芳朗)博士還曆記念論集』1982, 501-511

706 「眞言佛敎とヒンドゥ-敎」

『成田山佛敎研究所紀要』10, 1984, 72-80

707 「샤라나-가디가디야 — 最高神と信仰者との對話」

『成田山佛敎研究所紀要』8, 1984, 41-62

708 「라마-누ジャ의 자이나敎인쇄敎說批判」

東京, 春秋社, 『타카사키지키도(高崎直道)博士還曆記念論集』1987,

49-64

709 『라마-누ジャ의 研究』

東京, 春秋社, 1991, 9+556p.

710 「라마-누ジャ派における個我의 概念 — Yatīndramatadīpikā第8章解讀」

東京, 春秋社, 『前田專學博士還曆記念論集, 我의 思想』1991, 57-70

711 「라마-누ジャ派における最高神의 概念 — yatīndramatadīpikā第9章解讀」

『이하라쇼렌(伊原照蓮)博士古稀記念論文集』1991, 299-315

무라카미 신칸(村上眞完):

712 「いわゆるパンチャシカ斷片(4)とヴェーダ-ンタ哲學의 個我」

『宗教研究』222, 1975,

713 「프라카-샤아-난다의 差別否定論」

『印度學佛敎學研究』42-2, 1994, 977-971

714 「主觀的觀念論drṣti-srṣti-vāda의 源泉」

『印度學佛敎學研究』43-1, 1994, 430-424

무라카미 유키미(村上幸三, 1963-, 동북대출,):

715 「شانカラ의 廳聞思惟冥想」

『印度學佛敎學研究』37-1, 1988, 449-447

716 「شانカラ의 宇宙論 — 브라만·主宰神にまつわるvyavahāra」

『印度學宗教學會論集』16, 1989, 120-136

717 「adhyāsa, mithyājñāna, aviveka — 無明概念あるいは無明感覺」

『東北印度學宗教學論集』18, 1990, 78-92

718 「شانカラにおける冥想의 一側面」

『印度學佛敎學研究』39-2, 1991, 964-962

719 「Brahman, paramātman, paramēśvara」

『印度學佛敎學研究』42-1, 1993, 1050-1047

미야모토 게이이치(宮元啓一):

720 「不二一元論의 不知論 — 無はいかにして知れられるか」

『アジア研究所紀要』9, 1982, 87-107

미치바야시 노부오(道林信郎, 1953-, 코마자와대출, 曹洞宗大龜山玉龍寺):

723 「Sureśvaraにおけるbhedābhedavāda批判」

『印度學佛敎學研究』28-2, 1980

724 「Sureśvaraの研究(1)」

『東方』1, 1985, 92-105

미카미 도시히로(三上俊弘, ????, 동북대학원생):

725 「라-마-누자의解脱道と知 — karmayogaとjñānayogaをめぐって」

『東北印度學宗教學論集』18, 1990, 108-94

726 「라-마-누자における獨存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40-2, 1992, 975-973

727 「ヴェーダーンタ・デーシカの獨存論(1)」

『印度學佛敎學研究』42-2, 1994, 981-978

사와이 요시즈구(澤井義次, 1951-, 천리대출, 문학석사(동북대), 철학박사(하바드대), 天理大おやさと研조교수):

728 「出家遊行」

『東北印度學宗教學論集』9, 1982, 341-359

729 「シャンカラ派僧院の歴史と傳承」

『東方學』70, 1985, 118-133

730 「On a legendary biography of Śaṅkara: especially in regard to the date of Mādhava's Śaṅkaradigvijaya」

『印度學佛敎學研究』34-1, 1985, 459-454

731 「出家遊行の理念と意味」

『天理大學學報』151, 1986, 67-85

732 「Śaṅkara's theory of samnyāsa」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14-4, 371-387

733 「The legend of Śaṅkara's birth」

『印度學佛敎學研究』36-1, 1987, 468-464

734 「라-마-누자의生誕의傳記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39-1, 1990, 475-471

735 「シャンカラ信仰の意味構造」

『印度學佛敎學研究』40-1, 1991, 307-311

736 「シャンカラと救い」

『印度學佛敎學研究』41-1, 1992, 39-43

사토 히로유키(佐藤裕之, 1958-, 다이쇼(大正)대출, 동경대의 석사):

737 「Vijñānabhikṣu의相互投影說」

『印度學佛敎學研究』37-2, 1989, 945-943

738 「svaprakāśaḥ — Tattvapradīpikā의定義を中心にして」

東京, 春秋社, 『前田專學博士還曆記念論集, 我の思想』1991, 475-486

739 「vṛtti and jñāna」

『印度學佛敎學研究』39-2, 1991, 1040-1038

쇼진 키미노리(正信公章, 1950-, 경도대출, 동해대강사):

740 「Vedānta學者Bhāskaraの研究(1) — Śaṅkara의Brahmasūtrabhāṣyaに言及される一異見をめぐって」

『印度學佛敎學研究』27-2, 1979, 930-927

741 「Bhāskara作BhagavadgītābhāṣyaにおけるBhagavadgītā引用句1-1について」

『印度思想史研究』1, 1981, 7-17

742 「Kullūka의Manvarthamuktāvalī第一章にみるBhāskara說の受容の事實」

『Sambhāṣa 5』1983, 84-89

743 「Bhāskara의Brahmasūtra註解にあらわれる「展現解消說」要素」

『印度思想史研究』4, 1985, 1-8

744 「Śaṅkara의Brahmasūtra注解におけるbrahman概念の實質」

『印度學佛敎學研究』33-2, 1985, 81-86

745 「힌두교의研究方法に關する覺え書 — Diana L.Eck, Banaras: city of light, New York 1982をめぐって」

『印度思想史研究』5, 1987,

746 「ヴェーダーンタの諸類派 — 바스칼라, 라-마-누자, 마드뵤아」

東京, 岩波書店, 『岩波講座 東洋思想 5巻』1988, 297-323

747 「誰のためのギーターなのか — ギター註解史における正統派の一視點」

『インド思想史研究 6, 服部正明博士退官記念論集』1989, 53-66

748 「인도중世における三杖一杖論爭(1) — その前史」

東海大學, 『文明研究』11, 1992, 1-16

시마 이와오(島岩, 1950-, 나고야대졸, 아이치가쿠인(愛知學院)대조교수):

- 749 「ブラフマンと現象世界との關係 — 實在と非實在との關係」
『印度學佛教學研究』26-2, 1978, 170-171
- 750 「Abhavaについて」
『佛教學研究』34, 1978, 170-171
- 751 「ブラフマンと現象世界との關係 — 因果律を中心として」
『佛教學(佛教學研究會)』8, 1979
- 752 「不二一元論學派入門 1」
『Sambhāṣā 2』1980, 24-36
- 753 「不二一元論學派入門 2」
『Sambhāṣā 3』1980, 1-22
- 754 「シャンカラにおける解脱への道とその理論的根據」
『日本佛教學會年報』45, 1980, 39-50
- 755 「Bhāmatīにおける無明と附託」
『印度學佛教學研究』31-2, 1983, 927-923
- 756 「『ノーマティ』 1.1.1-4和譯(1)」
『나고야(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87, 『哲學』29, 1983, 59-78
- 757 「『ノーマティ』 1.1.1-4和譯(2)」
『東海佛教』28, 1983, 81-69
- 758 「『ノーマティ』 1.1.1-4和譯(3)」
『Sambhāṣā 5』1983, 90-110
- 759 「The relationship between brahman and the phenomenal world in Śaṅkara's Philosophy」
『나고야(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90, 『哲學』30, 1984, 23-35
- 760 「『ノーマティ』 1.1.1-4和譯(4)」
『Sambhāṣā 6』1985, 56-73
- 761 「『ノーマティ』 1.1.1-4和譯(6)」
『Sambhāṣā 7』1986, 24-42
- 762 「『ノーマティ』 1.1.1-4和譯(7)」
『哲學』32, 1986, 1-17
- 763 「『ノーマティ』 1.1.1-4和譯(8)」
『東海佛教』31, 1986, 110-121
- 764 「不二一元論派に於ける解脱の道」
『宗教研究』269, 60권-2집, 日本宗教學會, 1986, 95-116

- 765 「不二一元論學派における顯現說と映像說と限定說」
『印度學佛教學研究』35-2, 1987, 977-972
- 766 「『ノーマティ』 1.1.1-4和譯(11)」
『Sambhāṣā 9』1987, 25-46
- 767 「『ノーマティ』異同對照表(1.1.1-4)」
『아이치가쿠인(愛知學院)大學文學部紀要』18, 1988, 113-140
- 768 「『バガヴァッドギーター』註解」和譯(序章)」
『아이치가쿠인(愛知學院)大學人間文化研究所紀要』3, 1988, 130-162
- 769 「不二一元論學派における無明論の一展開」
『成田山佛教研究所紀要』11, 1988, 221-236
- 770 「『バガヴァッドギーター』註解」和譯(第1章)」
『아이치가쿠인(愛知學院)大學人間文化研究所紀要』4, 1989, 53-81
- 771 「『バガヴァッドギーター』註解」和譯(第2章の1)」
『아이치가쿠인(愛知學院)大學文學部紀要』19, 1989, 30-53
- 772 「『バガヴァッドギーター』註解」和譯(第2章の2)」
『아이치가쿠인(愛知學院)大學人間文化研究所紀要』5, 1990, 173-216
- 773 & 히키타 히로미치: 「『バガヴァッドギーター』註解」和譯(第2章の3)」
『아이치가쿠인(愛知學院)大學文學部紀要』20, 1990, 161-176
- 774 「Śaṅkara's interpretation of the Bhagavadgītā」
『印度學佛教學研究』39-1, 1990, 501-496

와타나베 시게아키(渡邊重朗)

- 775 「pratipattividhi」
『印度學佛教學研究』17-1, 1968, 31-41

요시다 겐오(吉田健翁, 1893-1971, 동양대졸):

- 776 「Śaṅkaraの思想におけるbhaktiの意義」
『印度學佛教學研究』41-2, 1993, 1041-1039
- 777 「Śaṅkaraにおけるbhaktiのupāsana的解釋」
『印度學佛教學研究』42-2, 1994, 989-986

우노 아즈시(宇野惇):

- 778 「ヴィヴェラナ派の映像說」
『印度學佛教學研究』10-2, 1962, 468-473

유다 유타카(湯田豊):

- 779 「シャンカラとヘーゲル — 比較哲學への一の試み」
『スズキ(鈴木)學術財團研究年報』9, 1973, 34-51
- 780 「シャンカラとヘーゲル — 神觀をめぐって」
東京, 八千代出版, 『印度宗教論』1975, 243-261
- 781 「ヘーゲルとシャンカラ — 西洋的思惟とインド的思惟」
『人文學研究情報』10, 1976, 9-16
- 782 「マドゥス-ダナサラスヴァティーの表した正統バラモン體系概觀」
『學術研究』17-3, 1978, 44-68
- 783 「自己の存在證明 — シャンカラの再檢討」
東京, 春秋社, 『前田專學博士還曆記念論集, 我の思想』1991, 45-56

이소다 히로후미(磯田熙文, 1938, 동북대졸, 문학석사(동북대), 동북대조교수)

- 784 「ヴェーダ-ンタ派の數論破について」
『密敎文化』74, 1966

이시토비 사다노리(石飛貞典, 1951-, 북해도대졸, 센슈(專修)대북해도단대비
상근강사):

- 785 「야-ム나의認識論」
『印度學佛敎學研究』27-1, 1978, 460-458
- 786 「야-ム나의ātman論」
『印度學佛敎學研究』26-2, 1978, 172-173
- 787 「Ātmasiddhi와 Prakaraṇapañcikā의ātman論」
『印度學佛敎學研究』28-2, 1980, 919-916
- 788 「Rāmānujaにおけるbrahmanと現象界」
『印度學佛敎學研究』30-2, 1982, 946-943
- 789 「Samvitsiddhiにおけるavidya批判」
『印度學佛敎學研究』32-1, 1983, 509-504
- 790 「Yamunaにおけるmokṣa와 sādhanā」
『印度學佛敎學研究』32-1, 1983, 509-504
- 791 「Viśiṣṭadvaita考」
『宗教研究』261, 1984, 1-24
- 792 「Rāmānuja의救濟理論 — prapatti思想を中心として」
『Sambhaṣa 6』1985, 10-21

793 「Svayamprakāśatva를めぐって」

『印度學佛敎學研究』35-1, 1986, 74-77

794 「ヴィシシュタadvaita派における信と知」

『印度哲學佛敎學』1, 1986, 57-70, 北海道印度哲學佛敎學會

795 「야-ム나傳の研究(2)」

『印度哲學佛敎學』4, 1989, 108-128, 北海道印度哲學佛敎學會

796 「야-ム나傳の研究(3)」

『印度哲學佛敎學』5, 1990, 108-129, 北海道印度哲學佛敎學會

797 「스피노자와 라-마-누자 — 神とその様態를めぐって」

『印度哲學佛敎學』7, 1992, 108-120, 北海道印度哲學佛敎學會

이츠즈 도시히코(井筒俊彦):

- 798 「마-야-的世界認識 — 不二一元論的ヴェ-ダ-ンタ思惟構造를めぐって」
東京, 岩波書店, 『思想』1990-1, 1990, 4-40

이토 미치야(伊藤道哉):

- 799 「Iṣṭasiddhi의 jīvanmukti론(1)」
『東北印度學宗教學論集』12, 1985, 65-80
- 800 「Jīvanmukti以後」
『印度學佛敎學研究』35-1, 1986, 78-81
- 801 「Videhamuktiについて」
『印度學宗教學會論集』17, 1991, 108-96
- 802 「ヴェ-ダ-ンタ派의人格完成論 — sthitaprajña를めぐって」
『東北大學文學部印度學講座開設65周年記念論文集』1992, 243-275
- 803 「生死之際의內なる意識 — Yogavāsīṣṭhaを中心に」
『印度學佛敎學研究』40-2, 1992, 980-976

이하라 쇼렌(伊原照蓮):

- 804 「만다나作「ブラフマシッディ」」
『宗教研究』35卷3輯(170號), 1961,
- 805 「Brahmasiddhi and Śloka-vārttika」
『印度學佛敎學研究』11-2, 1963, 44-47
- 806 「만다나미슈라의著作」
『이와이(岩井)博士古稀記念典籍論集』1963, 90-98

807 「マングナミシュラの年代」

『宗教研究』37卷4輯(179號), 1964, 1-12

808 「Pratihbha説の一資料 — Brahmasiddhiの一節」

『히카타(干潟)博士古稀記念論文集』1964, 97-109

809 「旋火輪の喩 — 一つの聲字實相論」

『智山學報』12/13, 1964,

810 「ブラフマシッディの歡喜説」

『金倉博士古稀記念印度學佛教學論集』1966, 283-295

811 「Akṣaraの解釋」

『印度學佛教學研究』15-2, 1967, 906-901

812 「A revised index to the Brahma-sūtra-sāṃkara-bhāṣya (adhyāya 1, pāda 1)」

『Acta Indologica』1, 1970, 9-54

813 「スポ-タ存在の論證 — スポ-タシッディ(3)」

『哲學年報』32, 1973, 1-12

814 「スポ-タ存在の論證 — スポ-タシッディ和譯(4)」

『哲學年報』33, 1974, 1-18

815 「スポ-タ存在の論證 — スポ-タシッディ和譯(5)」

『哲學年報』40, 1981, 1-17

츠자키 고이치(津崎浩一, ???-?, 문학석사(동양대)):

816 「『Gauḍapādīya-bhāṣya』第二章の試譯(1)(2)」

『東洋大學大學院紀要 — 文學研究科』22, 1985, 82-70; 23, 1986, 51-59

가나자와 아츠시(金澤篤):

817 「Brahmasūtra 1-1-4의解釋을めぐって — samanvayaを中心に」

『고마자와(駒澤)大學佛教學部論集』16, 1985, 565-539

818 「梵我一如 — シャンカラによる(1)」

『고마자와(駒澤)大學佛教學部論集』17, 1986, 585-555

819 「ヴェ-ダ-ンタ學派と大文章」

『다카사키지키도(高崎直道)博士還曆記念論集』1987, 111-124

820 「mahāvākyaとśodhakavākya」

『고마자와(駒澤)大學佛教學部研究紀要』45, 1987, 319-293

821 「シャンカラとhrdaya」

東京, 春秋社, 『前田專學博士還曆記念論集, 我の思想』1991, 449-462

822 「Traividyaṣṛddhāḥ — 或る註記のための覺書」

『고마자와(駒澤)大學佛教學部論集』19, 1988, 491-472

가나쿠라 엔쇼(金倉圓照):

823 「パンチ-カラナ考」

『哲學雜誌』41卷-475號, 1926,

824 「Über die Interpolation des Śankara bhāṣya zum Brahmasūtra」

Bonn, Festgabe, Hermann Jacobi, 1926

825 「吠檀多精要と十五章篇(1)」

『宗教研究』5-2, 1928,

826 「吠檀多精要と十五章篇(2)」

『宗教研究』5-3, 1928,

827 「ヴェ-ダ-ンタ派の一異流 — 特にバ-스カラについて」

『思想』79, 1928,

828 「我の覺知」

『宗教研究』新8-4, 1931, 4-27

東京, 春秋社, 『印度哲學佛教學研究(3)』1976, 183-204

829 「吠檀多哲學の研究」

東京, 岩波書店, 1932

830 「ヴェ-ダ-ンタ派の一異派 — 바-스칼라について」

東京, 春秋社, 『印度哲學佛教學研究 3卷』1973, 229-261

831 「スレ-シヴァラと佛教」

『スズキ(鈴木)學術年報』15, 1978

832 「シャンカラの哲學 — 브라마스-트라釋論の全譯 (2卷)」

東京, 春秋社, 1980, 1984

833 「インドにおける神秘主義の一側面 — シャンカラとスレ-シヴァラ」

成田山新勝寺『インド古典研究』6, 1984, 109-115

834 「ダクシナ-ム-ルティ-スト-トラ」

東京, 春秋社, 『中村瑞隆博士古稀記念論集, 佛教學論集』1985, 3-9

가와구치 겐(川口賢, 1958-, 히로시마대졸):

- 835 「Advaita vedānta學派における變容(vṛtti)の概念」
『哲學』37, 1985, 101-116
- 836 「Śrīharṣaの知覺論批判」
『印度學佛敎學研究』34-1, 1985, 403-399
- 837 「シュリー・ハルシャのプラマーナ論」
『印度學佛敎學研究』38-2, 1990, 906-902

고다테 요시로(神館義朗, 1931-, 동북대졸, 고교교사):

- 838 「ヴェーダーンタの文獻に現れたartha-kriyā-kāritvaの概念」
『印度學佛敎學研究』6-2, 1958, 405-406
- 839 「ヴェーダーンタ哲學と佛敎交渉の一斷面 — 「假裝の佛敎徒」をめぐって」
『日本佛敎學會年報』23, 1958,
- 840 「シャンカラのカタウパニシャッドパーシュヤについて(1)」
『印度學佛敎學研究』8-2, 1960, 575-577
- 841 「シャンカラのカタウパニシャッドパーシュヤについて(2)」
『印度學佛敎學研究』10-1, 1962, 580-583
- 842 「ラーマヌジャに於けるグナに就いての備忘」
『密敎學』57, 1961
- 843 「ヴェーダーンタ・サーラとパインガラ・ウパニシャット」
『金倉博士古稀記念印度學佛敎學論集』1966, 297-309

구라타 하루오(倉田治夫):

- 844 「祭式の二重機能性 — シャンカラの祭式觀の一斷面」
『東方』8, 1992, 90-102
- 845 「ブラフ만의明知とシュドラ」
『東方』9, 1993, 93-106

기요시마 히데키(清島秀樹, 1951-, 동경대졸, 철학박사(델리대), 킨키대강사):

- 846 「ラーマヌジャのパンチャラートラ說の擁護」
『東方』4, 1988, 61-72
- 847 「不二一元論と佛敎にみられる定義不能という概念」
『佛敎學』27, 1989, 49-67

기무라 분키(木村文輝, ????, 나고야대학대학원생):

- 848 「ラーマヌジャにおけるジュニャーナヨーガ(1)」
『東海佛敎』37, 1992, 130-143
- 849 「ラーマヌジャにおけるジュニャーナヨーガ(1)」
『東海佛敎』38, 1993, 42-58
- 850 「Vedārthasamgrahaにおけるkarma-yoga」
『印度學佛敎學研究』41-2, 1993, 1033-1030
- 851 「ラーマヌジャにおける아트만의直證」
『印度學佛敎學研究』42-2, 1994, 985-982

다나카 오사무(田中收, ???):

- 852 「シャンカラのサンキヤ批判」
『法政論叢』77, 1978, 155-211

다카기 테츠야(高木철야, 1956, 츠쿠바대졸, 문학석사(츠쿠바대), 고교교사)

- 853 「マンゾーキヤ頌におけるマーヤ說」
『宗教研究』54-3(246號), 1981,

단지 데루요시(丹治昭義, 1932-, 경도대졸, 칸사이(關西)대교수):

- 854 「Ānandānubhāvaの自己顯示說」
『印度學佛敎學研究』15-2, 1967, 900-892
- 855 「Vṛttivyāpyatvaとphalavyāpyatva」
『印度學佛敎學研究』18-2, 1970,
- 856 「ヴェーダーンタ學派に於ける我の一考察 — 파도마파그を中心として」
『關西大大學論集』20-3, 1971,

도쿠나가 무네오(徳永宗雄,):

- 857 「Prapatti思想の歴史的展開」
『宗教研究』211, 1972, 77-97
- 858 「Viśiṣṭādvaita의 形成 — ātmaśarīra-bhāva의 概念의 成立」
『印度思想史研究』2, 1983, 36-49

하라다 다카아키(原田高明, 1962-, 고마자와대졸, 오타니대박사과정):

- 859 「Sarvadarśanasamgrahaにおける推理の立場からの轉變說批判 —

シャンカラ學派とサンキヤヨ-ガ學派の對論の一斷面」

『東海佛教』 37, 1992, 144-156

하라 미노루(原實):

860 「泡 — Upadeśasāhasri 2.1.19によせて」

東京, 春秋社, 『前田專學博士還曆記念論集, 我の思想』 1991, 429-448

하리모토 겐고(張本研吾, 1964-, 나가사키(長崎)대졸, 문학석사(큐슈대)):

861 「ヴィヴァラナ作者とマンガナミシュラ — Īśvaraをめぐる論議」

『이하라쇼텐(伊原照蓮)博士古稀記念論文集』 1991, 471-195

862 「Pātāñjalayogaśāstravivarāṇa 3.17, Sphoṭasiddhi K.27 and Brahmasūtrabhāṣya 1.3.28」

『印度學佛敎學研究』 41-2, 1993, 1138-1136

하시모토 다이겐(橋元泰元, 1953-, 동경외대인도파키스탄어과졸, 다이쇼대·타쿠쇼쿠(拓殖)대의 비상근강사):

863 「傳記に見られるチャイタニヤの思想」

『印度學佛敎學研究』 37-2, 1989, 942-938

하타에 히로코(波多江博子, 1954-1987, 큐슈대졸)

864 「Śaṅkara의 prasamkhyana說批判」

『印度學佛敎學研究』 30-2, 1982, 643-640

865 「可見なものとしての知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31-2, 1983, 611-608

866 「Śaṅkara의 行爲觀について」

『西日本宗敎學雜誌』 8, 1985

867 「シャンカラ作『ウパデーシャサ-ハスリ-』韻文篇第18章和譯(1)」

『西日本宗敎學雜誌』 9, 1987

868 『インド哲學の一斷面』

東京, 岩波ブクサービスセンター, 1990

하토리 마사아키(服部正明):

869 「最高神とその様態 — 라-마-ヌジャ 『ヴェ-ダの要義』(抄)

東京, 中央公論社, 『世界の名著 1』 1969, 267-291

후지타니 다카유키(藤谷隆之, 1963-, 큐슈대졸):

870 「Rāmaṇuja의 Prabhākara派批判 — niyoja說批判と apūrva說批判
をめぐる」

『印度學佛敎學研究』 40-2, 1992, 972-970

히노 쇼운(日野紹運, 1948-, 나고야대졸, 철학박사(푸나데), 기후(岐阜)藥科
大강사):

871 「Śaṅkara and Vācaspati on the trivṛtkarāṇa」

『東海佛教』 25, 1980

872 「Sureśvara에 於ける nididhyāsana에 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29-2, 1981, 164-165

873 「Sureśvara's critique of two pre-Śaṅkara views of the
knowledge and action combination」

『Sambhāṣā』 4, 1982, 29-43

874 Sureśvara's Vārtika on Yājñavalkya — Maitreyi dialogue
(Bṛhadāraṇyakopaniṣad 2.4 and 4.5)

Delhi, Motilal Banarsidass, 1982, 14+327p

875 「スレ-シュヴァラの知行併合說批判」

『印度學佛敎學研究』 31-2, 1983, 761-764

876 「ヒンドゥ-敎の宗教世界 — ヴェ-ダー-ンタ學匠の敎說をめぐる」

『Sambhāṣā』 5, 1983, 68-83

877 「마도우스-다나사라스ヴァティ — 考」

『印度學佛敎學研究』 33-2, 1985, 275-287

878 「ヒンドゥ-敎の宗教世界 — 마도우스-다나사라스ヴァティ-의 박티觀
をめぐる」

『Sambhāṣā』 6, 1985, 22-30

879 「Sureśvara's Vārtika on Puruṣavidha Brāhmaṇa (BUBV
1.4)」

『東方』 5, 1989, 170-184

880 「Sureśvara's comment regarding Udgītha Upāsana
referring to BUBV 1.3」

『印度學佛敎學研究』 38-2, 1990, 943-937

881 &k.P.Jog: Sureśvara's Vārtika on Udgītha Brāhmaṇa
(Bṛhadāraṇyakopaniṣad 1.3)

- Delhi,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pvt. 1991.
 882 「Sureśvara's Vārtika on the Bṛhadāraṇyakopaniṣad (1.4.1025-1081)」
 『東方』 7, 1991, 178-197
 883 「Sureśvara's Vārtika on liberation」
 『東方』 8, 1992, 266-275
 884 「Sureśvara's view on a commentator of Bhartṛprapañca — with reference to Bṛhadāraṇyakopaniṣad 1.4.9-10」
 『印度學佛敎學研究』 41-2, 1993, 1135-1132

- 히라오카 쇼슈(平岡昇修, 1949-, 오타니대출, 문학석사(마드라스대), 東大寺
 도서관부관장, 하나조노(花園)대비상근강사):
 885 「Pañcadaśīの研究」
 『印度學佛敎學研究』 35-2, 1987, 971-969

8. 문법학

- 나카다 나옴치(中田直道):
 886 「Mahābhāṣyadīpikā和譯」
 『오쿠다지오(奥田慈應)先生喜壽記念佛敎思想論集』 1976, 1195-1203

-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
 887 「バルトリハリの知識論」
 『宗教研究』 120, 1944, 1-20
 888 「バルトリハリに於ける絶對者の觀念」
 『哲學雜誌』 59卷 693/694號, 1944, 31-52
 889 「ことばの形而上學 — スポ-タ說」
 『哲學雜誌』 61卷 967號, 1946, 113-141
 890 「バルトリハリに於ける文法學の意義」
 『丁酉論理』 533, 1947, 1-16
 891 「文法學者バルトリハリの人物並びに著書」
 『丁酉論理』 534, 1947, 30-39
 892 「ヴェ-ダ-ンタ哲學の先驅者バルトリハリ」

- 『人文』 4-1, 1950, 25-32
 893 『ことばの形而上學(初期ヴェ-ダ-ンタ哲學史4)』
 東京, 岩波書店, 1956(1989復刊)
 894 「單語,文章,字母の超主觀性」
 『言語』 1980-6, 1-2

미코가미 에쇼(神子上惠生):

- 895 「Uttaratantra 1-50偈をめぐって — Mahābhāṣya研究のすすめ」
 『佛敎學研究』 34, 1978, 47-51

시미즈 신이치(清水新一, 1947-, 큐슈대출, 큐슈대조교):

- 896 「バルトリハリの音聲論の一典型」
 『印度學佛敎學研究』 34-1, 1985, 415-412
 897 「パタンジャリとスポ-タ(1)」
 『哲學年報』 45, 1986, 77-97
 898 「パタンジャリとスポ-タ(2)」
 『哲學年報』 46, 1987, 101-138
 899 「VP. 1, 1-4: 言葉とその淵源」
 『이하라쇼렌(伊原照蓮)博士古稀記念論文集』 1991, 399-420

스가누마 아키라(菅沼晃, 1934-, 동양대출, 문학박사(동양대)) & et al.:

- 900 「アップテサンスクリット文章論入門(1)」
 『東洋大學文學部紀要(東洋學論叢)』 42, 1989, 1-136
 901 「アップテサンスクリット文章論入門(2)」
 『東洋大學大學院紀要』 26, 1989, 128-178
 902 「アップテサンスクリット文章論入門(3)」
 『東洋大學文學部紀要(東洋學論叢)』 43, 1990, 1-74

아카마츠 아키히코(赤松明彦)

- 903 「カシュ ミールシバ派のバルトリハリ理解 — 言葉の三様相說, 特に paśyantīに關聯して」
 『印度學佛敎學研究』 43-1, 1994, 443-439

야기 도오루(八木徹, 1948-, 경도대졸, Doctrate de 3e Cycle, 오사카학원
단기대학교수):

- 904 「Praśīṣṭa-nirdeśa」
『印度學佛敎學研究』 24-2, 1976, 952-957
- 905 「A propos du nipātana」
『印度學佛敎學研究』 29-2, 1981, 962-965
- 906 「Pāṇini-sū. 6.4.3 'nāmi」」
『印度學佛敎學研究』 30-1, 1981, 482-485
- 907 「Pāṇini-sū. 6.4.12-13」
『印度學佛敎學研究』 31-1, 1982, 474-479
- 908 「Le Mahābhāṣya ad Pāṇini 6.4.22-57 — un essai de
traduction(2)」
『インド思想史研究 6, 服部正明博士退官記念論集』 1989, 181-191

오가와 히데요(小川英世, 1954-, 히로시마대졸, 히로시마대조교):

- 909 「インド土着文法における分析と総合」
『哲學(廣島哲學會)』 36, 1984, 82-95
- 910 「Kaṇḍabhaṭṭa의否定詞論」
『히로시마(廣島)大學文學部紀要』 44, 1984, 75-97
- 911 「意味制限と接辭制限 — 文法學派における制限の概念」
『哲學(廣島哲學會)』 37, 1985, 131-146
- 912 「Kaṇḍabhaṭṭa의bhāvapratyaya論」
『히로시마(廣島)大學文學部紀要』 45, 1986, 94-118
- 913 「The use of the particle eva in the Aṣṭādhyāyī」
『印度學佛敎學研究』 35-2, 1987, 1009-1006
- 914 「Kaṇḍabhaṭṭa의abhedāikatvasamkhyā論」
『히로시마(廣島)大學文學部紀要』 46, 1987, 66-82
- 915 「Bhāvapradhāna-nirdeśa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37-1, 1988, 446-443

오노 준조(小野俊成, 1962-, 히로시마대졸, 天台宗道成寺):

- 916 「パニニにおけるatideśa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38-1, 1989, 437-434

오지하라 유타카(大地原豊, 1923-198?, 문학박사(경도대?), 경도대교수):

- 917 「Quelques remarques sur l voyelle dans l'Aṣṭādhyāyī」
『印度學佛敎學研究』 4-2, 1956, 290-284
- 918 「Paṇin-Pāṇina-Pāṇini-Pāṇiniya — パニニ文典による派生説明」
『印度學佛敎學研究』 5-1, 1957, 328-318
- 919 「Causerie Vyākaraṇique — 1.1.62 vis-à-vis de 1.1.56」
『印度學佛敎學研究』 6-1, 1958, 305-310
- 920 「Causerie Vyākaraṇique(2) — antériorité du Gaṇapāṭha par
rapport au Sūtrapāṭha」
『印度學佛敎學研究』 7-2, 1959, 797-813
- 921 La Kāśikā-vṛtti(adhyāya 1, pādā) traduite et commentée
en collaboration avec L. Renou,
Publications de l'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vol.43, Paris, 1partie, 1960, 124p.; 2partie, 1962, 133p.
;3partie, 1967, 187p.
- 922 「Causerie Vyākaraṇique(3-1) — incohérence interne chez
la Kāśikā」
『印度學佛敎學研究』 9-2, 1961, 753-754
- 923 「Le Mahābhāṣya, adhyāya 1, āhnika 8 — un essai de
traduction」
『インド學試論集』 2, 1961, 9-22
- 924 「Causerie Vyākaraṇique(3-2) — incohérence interne chez
la Kāśikā」
『印度學佛敎學研究』 10-2, 1962, 776-781
- 925 Le Mahābhāṣya ad Pāṇini 1. 1. 56: un essai de traduction,
Acta Asiatica No.4, 1963, 43-69p.
- 926 「Causerie Vyākaraṇique(3-3): incohérence interne chez la
Kāśikā(3)」
『印度學佛敎學研究』 12-2, 1964, 13-15p.
- 927 「A la recherche de la motivation ultime du Pāṇini-sūtra
1.1.62」
『インド學試論集』 6/7, 1965, 69-85
- 928 「Causerie Vyākaraṇique (4): jāti genus et deux définitions
pré-Patañjaliennes」

- 『印度學佛敎學研究』16-1, 1967, 16-24
- 929 Sur l'énoncé Pāṇinéen Astriviṣaya(4. 1.63): deux interprétations et leur rapport avec le Gaṇapāṭha, *Dr. V. Raghavan Felicitation Volume, the Adyar Library Bulletin*, 31/32, 1967-68, 125-143
- 930 Read 'parṇaṃ na vēh', Kāśikā ad p. 1.1.4: a notice, *Bhandarkar Oriental Research Institute Golden Jubilee Volume*, 1968, 403-409
- 931 Les discussions Patañjaliennes afférentes au remaniement du Gaṇapāṭha, *Mélanges d'Indianisme à la mémoire de Louis Renou*, Paris, Editions E.de Boccard, 1968, 565-576: 2e partie, *Indo-Iranian Journal* 12-2, 1970, 81-115
- 932 &야기 도오루(八木徹): 'Le Bhāṣya Liminaire and Pāṇini 6.4.1 avec pradīpa et uddyōṭa: un essai de traduction', 『印度學佛敎學研究』25-1, 1976, 517-524
- 933 Sur une formule Patañjalienne: na cedanīm ācāryāḥ sūtrāṇi kṛtvā nivartayanti, *Indologica Taurinensia* 6, 1978, 219-234
- 934 'Causerei Vyākaraṇique(5): pūrvatra siddham contrairement à 8.2.1', 『印度學佛敎學研究』28-1, 1979, 503-508
- 935 Qu'on ne confonde pas un Vārttika avec un Sūtra, *Indologica Taurinensia* 7, 1979, 333-337
- 936 On the word 'kuṭilakā' 'poker, pickaxe': Pāṇini 4.4.18, *Abhinandana-bhārati: Professor Krishna Kanta Handiqui Felicitation Volume*, 1982, 44-50

와다 도시히로(和田壽弘):

- 937 「インド哲學における言語分析(1)」, 『나고야(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36, 1990, 73-92p.
- 938 「インド哲學における言語分析(3) — Nyāyasiddhāntamuktavali 「言語論の章」和譯研究」, 『나고야(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39, 1993, 17-33p.

이와사키 요시유키(岩崎良行, ????):

- 939 「バルトリハリの行爲論 — 動作名詞をめぐる」, 『印度哲學佛敎學』7, 1992, 67-100, 北海道印度哲學佛敎學會
- 940 「Vākyapadiyaにおけるsādhyaとsādhana」, 『印度學佛敎學研究』40-2, 1992, 992-220

이하라 쇼렌(伊原照蓮):

- 941 「印度に於ける言語觀變遷の一要素」, 『印度學佛敎學研究』1-1, 1953, 172-174
- 942 「ヴァーチャस्पアティに知られたスポータ說」, 『印度學佛敎學研究』8-1, 1960, 578-581
- 943 「バルトリハリによるPāṇini 3.2.123の解釋」, 『哲學年報』34, 1975, 358-344
- 944 「ワクチャパディーヤの一節 — 現在否定論をめぐる」, 『오쿠다지오(奥田慈應)先生喜壽記念佛敎思想論集』1976, 1181-1194
- 945 「インドにおける文法的考察萌芽 — Padapāṭha」, 『成田山佛敎研究所紀要』7, 1982, 213-226
- 946 「文法學と音聲學」, 『成田山佛敎研究所紀要』10, 1986, 1-30
- 947 「バルトリハリの時間論(1)」, 『나리타(成田)山佛敎研究所紀要』12, 1989, 1-12

츠지 나오히로(辻直四郎, 1899-1979, 동경대졸, 동경대교수, 東洋文化研究所所長, 東洋文庫이사장등):

- 948 「インド文法學概觀」, 『東京, 스즈키(鈴木)學術財團研究年報』11, 1974, 1-28
- 『ヴェーダ學論集』, 東京, 岩波書店, 1977, 424-477

가미무라 가즈히코(上村勝彦, 1944-, 문학박사(동경대), 동경대동양문화연구소소교수):

- 949 「インド古典における文學理論と言語哲學の接點 — ドゥヴァニとスポータ」, 『東方學』48, 1974, 81-70

가와지리 미치야(川尻道哉, 196?- , 문학석사(동경대))

- 950 'Śloka-vārttika-sphoṭavāda vv. 5-9 and Sphoṭasiddhi v.3.'
『印度學佛教學研究』42-2, 1994, 1069-1067

기요시마 히데키(清島秀樹):

- 951 '理の虚構性'
『東方』2, 1986, 148-161

- 952 'バルトリハリの言語哲學'
東京, 岩波書店, 『岩波講座 東洋思想 7卷』1989, 77-93

구도 노리유키(工藤順之, 1961-, 입명관대졸, 문학석사(불교대)):

- 953 'Absolute locative의用法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38-2, 1990, 914-912

다니자와 준조(谷澤淳三, 1954-, 동경대졸, 문학석사(동경대), 信州大助教授):

- 954 'バルトリハリにおけるpratyakṣa'
『印度學佛教學研究』33-1, 1984, 368-366
- 955 'Bhartrhariにおけるpravṛttinimitta'
『印度學佛教學研究』35-2, 1987, 980-978
- 956 'インド哲學で說かれたうそつきパラドックスの議論'
『타카사키지키도(高崎直道)博士還曆記念論集』1987, 155-164
- 957 'インド文法學派における否定の意味論'
『佛教文化』17, 1987, 69-91

- 958 'Jāti에關する一考察 — Mahābhāṣyaを中心として'
『佛教學』22, 1987, 45-59

- 959 'Yadṛcchāśabda and saṃjñā — from the point of view of proper names'
『印度學佛教學研究』37-2, 1989, 1008-1003

- 960 '同一性言明の意味論 — saṃkṣepaśārīrakaを中心に'
東京, 春秋社, 『前田專學博士還曆記念論集, 我の思想』1991, 463-474

- 961 'Pāṇinian Theory of guṇasamudāya — Indian Cluster Theory'
『印度學佛教學研究』39-2, 1991, 1049-1045

- 962 'Dravya as Referents of Pronouns'
『印度學佛教學研究』41-2, 1993, 1149-1145

- 963 'Advaitin's Theory of Lakṣaṇā and Pāṇinian Grammar'
『印度學佛教學研究』342-2, 1994, 1066-1062

다케나카 도모야스(竹中智泰):

- 964 '語の意味對象 — 個物と普遍'
東京, 岩波書店, 『岩波講座 東洋思想 7卷』1989, 58-76

하라다 와소(原田和宗, 1959-, 류코쿠대졸, 문학석사(고야산대), 高野山眞言宗東成寺):

- 965 '文章の表示對象として直觀と自己認識(下, 前半) — Dignāga vs. Bhartrhari(1)'
『佛教學會報』15, 1989, 27-53

- 966 '文章の表示對象として直觀と自己認識(下, 前半の余) — Dignāga vs. Bhartrhari(1)'
『佛教學會報』16, 1991, 29-53

- 967 '文章の表示對象として直觀と自己認識(下, 後半) — Dignāga vs. Bhartrhari(1)'
『佛教學會報』17, 1992, 25-57

하토리 마사아키(服部正明):

- 968 '言語と意味の考察 — 總論'
東京, 岩波書店, 『岩波講座 東洋思想 7卷』1989, 40-57

참고서적

- 1 『南アジアを知る事典』東京, 平凡社, 1992,
- 2 『世界の名著 1』東京, 中央公論社, 1969,
- 3 *Encyclopedia of Vedānta*, Delhi, Eastern book linkers, 1993
- 4 Mayeda Sengaku,
Indian Philosophy and Literature in Japan, 1963-1972
part2-21; Tokyo: the Center for East Asian Cultural
Studies, 1974
- 5 Hara Minoru,

- Studies on Indian Philosophy and Literature in Japan, 1973-1983 part2-21*: Tokyo: the Center for East Asian Cultural Studies, 1985 (이 작품은 앞작품의 후속판이다)
- 6 Mayeda Sengaku and Tanizawa Junzo,
Studies on Indian Philosophy in Japan 1963-1987, Acta Asiatica 57, Japanese Studies in Indian Philosophy, Tokyo, the Toho Gakkai, 1989
- 7 Nakamura Hajime,
Indian Buddhism, a survey with bibliographical notes
「intercultural research institute monograph, NO.9」,
Hirakata: Kansai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ublication, 1980.
- 8 『日本印度學佛教學會會員名簿』
1991년, 日本印度學佛教學會刊行. (1996년에 새로운 명부가 발행될 예정)
- 9 『東方學關係著書論文目錄 第1-90號』
(이 목록은 1951년이래 매년 일본불교를 제외한 인도불교, 티벳불교, 중국불교에 관한 연구업적을 소개하고 있다)
- 10 *Current Contents of Academic Journals in Japan 1071- 1987*: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okyo: Center for Academic Publications Japan, 1972-1988
- 11 『佛教學關係雜誌論文分類目錄』
龍谷大學圖書館 및 龍谷大學佛教學研究室篇, (전 4권으로 1868년부터 1983년까지의 연구업적이 연구분야별, 사항별, 인명별로 상세히 소개되어있다)
- 12 『印度學佛教學研究索引』
東京, 山喜房佛書林, 1986, (일본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도학불교학 관계 연구단체인 「인도학불교학회」에서 연 2회 간행하는 「印度學佛教學研究」의 논문목록과 그 색인으로서 1953년부터 1984년까지의 정보를 담고 있다)
- 13 『佛教學論文總覽』
東京, 國書刊行會, 齋藤昭俊監수, 1983, (명치시대부터 1980년 3월까지 간행된 일본어논문목록을 실고 있다)²⁷⁾

일본의 상카라 철학 연구

秀 雄(李榮洙)

〈目 次〉

- | | |
|--------------|----------------------|
| 1. 들어가는 말 | 3. 일본에 있어서 상카라철학의 연구 |
| 2. 상카라철학의 연구 | 4. 맺는 말 |

1. 들어가는 말

상카라(Saṅkara)는 베단따(Vedānta)학과 가운데 가장 유력한 不二一元(Advaita)論派의 開祖로써 다른 모든 베단따학파가 전개되는 원천이 되고 있는 사상가다. 그의 학파는 중세 이후의 인도 사상계에 있어서 압도적인 세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판디트(Paṇḍit)」라고 칭해지는 전통적인 학자의 대부분이 상카라의 철학적·종교적 권위를 의지 함으로써, 인도 최대의 철학자로 일컬어지고 있다¹⁾. 근대에 있어서의 인도 지도자들의 사상의 철학적 근거는 상카라의 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시인 타고르는 상카라의 사상인 브라흐만과의 合一을 주장 하였고, 간디는 不

1) 상카라철학이 인도철학, 특히 베단따철학의 대표자로 간주되는 또다른 이유의 하나는, 서양에서 인도철학이 연구되기 시작하기 초창기에 상카라의 사상이 우선 먼저 주목된 사실이다. 서양에서 인도철학의 영역만을 전문으로 연구한 사람은 도이센(Paul Deussen)으로, 특히 상카라의 철학에 심취하였다.

그 후의 인도철학 연구자도 상카라의 철학을 중요시 하여, 상카라가 인도철학사상 최대의 철학자로 간주 되기에 이른 것이다. (中村元, 『シャンカラの思想』, 東京, 岩波書店, 1989, p.829)